



9

주체 92 (2003)

문학예술출판사

조국을 안고 살라.....	44
선군시대 새 전설.....	44
한 공민에 대한 생각.....	45
녀인의 손.....	47
불타는 섬.....	48
내 고향의 맑은 샘.....	55
추억을 남기리.....	55
사랑에 대한 생각.....	56
무식은 암흑이고 지식은 광명이다.....	59
내 고향의 작은 집.....	60
양 키.....	73
독서금지.....	74
묘향산 절경.....	76
승냥이는 오늘도 살아있다.....	77
이것은 결코 소설이 아니다.....	78
미제에게 멸망의 종지부를!.....	79
불굴의 처녀공산당원 류호란.....	80

장군의 나라

한광춘

1

한그루 나무 길가의 돌 하나도
너의것이 아니었다
네가 자래우는 곡식
네 가슴에 품은 보화도
너의것이 아니었다

산천을 짓밟히고
이름도 빼앗기어
자기의 노래가 없었던 망국의 조선아
열어붙은 너의 생명을 부여안은
위대한 아들의 심장엔 노래가 있었다
사향가!

혈전만리길에
피에 젖고 사선의 천만고비 넘으시며
우리 수령님 자옥마다 새기신 노래
불바다 천리 함께 헤치고
눈보라 만리 심장 불태우신 노래

오 9월의 푸른 언덕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이름이 빛날제
조선아 너의 기발 오를 때 울린것은
우리 수령님 사향가에서 태어난
애국가였다!

2

윈다섯해
성스러운 년륜을 짊고 짊어
그 첫 돌기에 서면
진달래꽃속에 얼굴묻으시고
환히 웃으시는분

이 땅의 산과 들이
그 미소아래 오늘도 푸르려지나니
이 나라 물을 마시며 자라는
천만아들딸들의 마음속에
세월을 넘어 어머니로 사시는분

때일찍 유년의 오산덕을 내리시어

대사하언덕에 충성을 올리신분
해방의 천만리
건국의 초행길에
걸음걸음 태양의 해발이 되신분

조국이어
땅이 있고 력사는 있어도
주권이 없어
한 자식의 혈벗은 마음도 못으며주던 그대에게
어머니사랑의 첫 나이를 주신분
오 김정숙어머님!

3

그이는 오로지 너를 위해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였다
너를 꽃피우고
너를 빛내자고
그이는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담을 키우시고
장군이 되시였다

선군은 애국
조국위한 사랑은 헌신이어서
우리 장군님
1년 사계절 사시는 집은
차창에 성에끼고 비바람치는 야전차였던가
령길에 흔들리는 등반이가
그이 쪽잡도 달게 드시는 아래목이 되었던가

조국이어
빨찌산의 장군들
총대로 휘감은 성스런 그 년륜이
김정일장군님의
백두산총대에 의해 사수되고 끝없이 이어지나니

오 **김일성**조선
김정일장군님의 나라여
무궁번영하라
그대 윈다섯해 년륜우에
백두산3대장군의 총대가 빛난다!

존엄높은 조국과 더불어 영광떨쳐온 주체문학의 55년

최연경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이 나라 온 강산에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울려 퍼진 때로부터 55년의 세월이 흘렀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세계지도우에서 그 빛마저 잃어버렸던 우리 조국이 해와 별 찬란히 비치여 지난 55년 얼마나 존엄높은 자주강국의 상상봉에 올라섰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의 구현으로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주위에 굳게 뭉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이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55년력사는 반제혁명투쟁의 영웅사시를 창조하며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여온 성스러운 년대기이며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면서 민족번영의 전성기를 펼쳐온 긍지높은 로정이다.

민족번영의 전성기, 참으로 이 말속에는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력사와 고귀한 업적이 가슴뜨겁게 깃들어있으며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김일성** 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끝없이 통성변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참으로 자랑스런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항일의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하여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온 우리의 문학예술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20세기문예부흥기를 열어놓았으며 오늘은 선군의 기치 높이 일찌기 인류문예사가 알지 못하는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강도 일제와 혈전을 벌리시여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자주로 존엄높은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신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해방하신후 영광스러운 우리 당마크에 마치고 낫과 함께 붓을 새

겨주시고 작가, 예술인들을 문화전선의 투사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주체적인 민주주의민족문화건설로선을 제시하시여 새 조선의 문학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우리 문학예술은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해방후 첫 시기부터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에 기초하여 건전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서사시 **《백두산》**을 비롯하여 처음부터 수령찬가문학을 주류로 하여 줄기찬 발전을 이룩한것은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기본특징인 동시에 더없는 긍지이고 영광이다.

여기서 특히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노래한 혁명적인 송가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송가는 주체45(1956)년 반당반혁명분자들이 우리 당에 정면으로 도전하여나섰을 때 인민군대에서 지어부른 노래로서 인민군대는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되어있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참으로 이 송가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끄신 수령님의 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한 훌륭한 송가이다.

이와 함께 우리 문학예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시기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력사적기간에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시대의 참다운 주인공들의 형상을 창조하여 시대를 선도하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특히 우리 문학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적조선인민군대와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을 반영한 전투적시문학과 소설문학을 훌륭히 창조하여 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싸우는 조선의 영웅적기상에 대한 가장 빛나는 시적형상인 시 **《조선은 싸운다》**를 비롯하여 **《나의 따발총》**, **《이 사람들속에서》** 등은 말그대로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하는 전투적무기로 되었다.

이 시기 인민군전사-영웅들의 형상에 바쳐진 단편소설들인 **《불타는 섬》**과 **《구대원과 신대원》**, 중편소설 **《행복》** 그리고 후방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을 반영한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 전시가요들인 **《결전의 길로》**, **《전호속의 나의**

노래》들은 참으로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주체39(1950)년 9월에 있는 월미도방어전투를 소재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의 대주적영웅주의를 빛나게 형상한 단편소설 《불타는 섬》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소설문학의 가장 훌륭한 대표작으로 된다.

소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심장으로 받들고 한개중대의 역량으로 수적으로 대비조차 되지 않는 적들과 맞서 3일동안이나 조국의 섬 월미도를 사수하고 전원 장렬한 최후를 마친 리대훈해안포중대의 영웅적투쟁을 참으로 감명깊게 형상하고 있다. 소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이든 숨없이 바쳐싸운 이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있어서 심장처럼 소중한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고 수령님은 곧 조국이라는 위대한 혁명의 진리를 힘있게 확인하고 있다. 이것은 조국해방전쟁주체에 바쳐진 모든 작품들의 기본종자이기도 하였다.

아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즐기게 발전해온 우리 문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고 우리 문학예술에 대한 영광스러운 령도의 불멸의 자욱을 찍으신 지난 세기 60년대로부터 자기발전의 일대전환기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마침내 1970년대에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맞이하고 끊임없이 승승장구하여 20세기문예부흥기를 펼쳐놓았다.

일찌기 인류문예사에 있어본적 없는 20세기문예부흥기를 펼쳐놓으신것은 조국과 더불어 영원 불멸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20대의 그 시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나라의 권위에 맞게 우리의 문학예술도 세계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만드실 원대한 구상과 단호한 결심을 내리시고 문학예술혁명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시었다.

그이의 위대한 령도밑에 불과 10년남짓한 력사의 한순간에 문학예술혁명의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수행됨으로써 내용과 형식, 창조체제와 창조방법 등 문학예술의 모든 영역에서 일대 근본적인 변혁이 이룩되었다.

인류문예사에 것처럼 요란스럽게 기록된 유럽의 문예부흥이 무려 세세기이상에 걸쳐, 그것도 어느 한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발전된 여러나라들의 문학예술성공에 의하여 이룩된것임을 생각해볼 때 우리의 20세기문예부흥은 참으로 신비로운 기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속도전의 불바람이 휘몰아치던 이 격동적인 문학예술혁명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온한 서재가 아니라 창조의 열정이 들끓는 촬영현장과 국장에서 《영화예술론》을 비롯하여 《가극

예술에 대하여》, 《연극예술에 대하여》 등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1990년대에 《주체문학론》, 《음악예술론》, 《미술론》 등을 내놓으시여 주체문학예술창조와 건설의 길을 백과전서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길을 따라 가극혁명, 연극혁명, 영화혁명, 소설혁명이 련이어 일어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문학과 영화, 가극과 연극, 미술, 무용,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피바다》식혁명가극의 새 시대,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것은 명실공히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이 일대전성기에 들어섰다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력사적사변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항일혁명문학예술을 주체문학의 초석으로 보시고 무엇보다먼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기는 사업으로부터 문학예술혁명을 시작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사업을 우리 문학의 주체적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도록 하는 중대한 력사적위업으로 보시고 원작의 종자를 그대로 살리는것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원작에 충실하는것을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옮겨지는 문학예술형태의 특성을 잘 살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이리하여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자위단원의 운명》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소설과 영화, 가극과 연극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훌륭히 옮겨지게 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문예전통이 철저히 옹호고수되고 우리의 문학예술이 주체의 혈통을 이어 승승장구할수 있는 혁명적문학예술의 빛나는 본보기가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혁명의 나날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형상창조를 우리 문학예술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초미의 문제로 내세우시고 탁월하고도 독창적인 수령형상론을 창시하시여 수령형상창조의 뚜렷한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형상문학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령형상문학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위력한 창작거점으로서의 4.15문학창작단을 내오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총서형식을 발기하시고 친히 그 이름을 《불멸의 력사》라고 불러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인 《혁명의 려명》, 《1932년》 등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누구보다 제일 기뻐

하시며 선참으로 보아주시었으며 세심한 가르침을 주시여 최상의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완성해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정력적이고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마침내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이 빛나게 완성되었으며 편이어 해방후편들이 창작되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은 《맞은 올랐다》, 《혁명의 려명》, 《은하수》, 《대지는 푸르다》, 《봄우뢰》, 《1932년》, 《근거지의 봄》, 《백두산기슭》, 《압록강》, 《혈로》, 《잊지 못할 겨울》, 《위대한 사랑》,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준엄한 전구》, 《붉은산줄기》, 《천지》 등의 장편소설군으로 구성되어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은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력사를 총서형식의 장편소설군에 담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력사의 새 시대인 자주성의 시대가 개척되고 전진하게 되었으며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된 불멸의 업적이 력사의 진리로 진실하게 새겨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장편소설《빛나는 아침》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의 봄》, 《50년여름》, 《푸른 산악》, 《조선의 힘》, 《대지의 전설》, 《영생》 등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해방후편들이 편이어 왕성하게 창작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총서의 해방후편들이 최상의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훌륭히 창작된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런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주체문화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이며 경사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와 함께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영화문학 《조선의 별》(1부~10부)과 《민족의 태양》(1부~5부)을 영원불멸의 기념비적절작으로 훌륭히 창작하였으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한 장막희곡 《승리의 기치따라》를 세상에 내놓았다.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우리 작가들은 특색있고 매력있는 단편소설들로 그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단편소설 《눈석이》, 《력사의 자취》, 《맑은 아침》, 《철의 력사》, 《크나큰 사랑》, 《해빛 맑은 나라》, 《보통날 아침》, 《영원》 등은 수령형상에 바쳐진 훌륭한 성과작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우리 시인들은 수령송가문학의 일대 개화기를 펼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숭배심을 감동깊게 노래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충성의 노래》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창작하시여 수령송가 창작의 본모기를 마련하여주시었다.

우리 시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삼가 축원하여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수령님 밤이 껍 깊었습니다》를 창작하였다.

서사시 《인민의 위대한 태양》, 장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충성의 송가》, 헌시《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헌시》, 서정시 《만경대에 드리는 인민의 노래》 등의 많은 시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폭넓게 포괄적으로 노래하면서도 다양한 서정과 양상으로 개성적특성을 살리고 있다.

참으로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형상창조의 새 시대를 펼쳐놓으신것은 우리 문학을 명실공히 수령의 문학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이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장 고귀한 업적중의 업적으로 된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 수령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을 자기들의 가장 숭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시대사적사명으로 간직한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형상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형상문학으로 빛나게 이어놓았다.

이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혁명활동과 업적을 총서형식으로 형상한 총서 《불멸의 향도》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장편소설 《아침해》, 《예지》, 《푸른 하늘》, 《동해천리》, 《평양의 봉화》, 《전환의 년대》, 《력사의 대하》, 《서해전역》, 《평양은 선언한다》 등의 총서작품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최전성기를 빛내고 있다.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81(1992)년 2월 16일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몸소 창작하여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광명성찬가》를 격동된 심장에 받아안았다.

마침내 송가문학의 새 시대가 펼쳐졌다.

주체60(1971)년 위대한 장군님께 드린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로 시작된 충성의 송가문학은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합니다》, 《천만년 대를 이어 모시렵니다》 등의 우수한 시가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1980년대말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노래한 가요문학이 더욱 왕성하게 창작되었으며 그가운데서도 가사 《백두의 말발굽소리》, 《정일봉의 우뢰소리》, 《장군님 백마타고 달리신다》 등은 시대의 명작들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들을 문학예술의 여러형태들에 옮기는 과정에 최상의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완성된 혁명적문학작품들과 수령형상문학의 찬란한 발전은 그를 본보기로 하여 소설, 시, 아동문학 등 문학의 모든 형태에 걸쳐 주체문학의 전면적인 개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우선 문학의 대표적형태인 소설문학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소설론을 더욱 발전 풍부화하고 완성하심으로써 소설의 형상적우월성과 특성을 완벽하게 밝혀주시였으며 소설창작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소설창작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장중편소설 100편창작전투과제를 제시하시였다.

하여 1970년대말엽부터 1990년대중엽까지만 하여도 큰 형식의 작품 100편 창작전투가 세차례에 걸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이 보람찬 전투의 나날에 장편소설만도 《평양시간》, 《생명수》, 《새봄》, 《로동가정》, 《녀당원》, 《붉은기》, 《뜨거운 심장》, 《영원한 미소》, 《철의 신념》, 《빈터우에서》, 《야금기지》, 《청춘송가》, 《환희》, 《높은 목표》, 《력사의 대결》(1, 2부) 그리고 《갑오농민전쟁》 등 다양한 주제의 수많은 성과작들이 창작발표되게 되였다.

시문학발전에서도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였다.

시문학의 자랑스런 발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시신 《시는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한다》는 주체시론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시인들이 시대를 선도하는 명시, 명가사들을 창작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련된 지도밑에 서정시 《나의 조국》, 《어머니》, 가사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영원한 한길을 가리라》, 《전사의 념원》, 《우리의 신념은 하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동지애의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와 같은 시대의 명작들이 주체시단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아동문학도 전례없는 전성기를 이루었다.

참으로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 걸쳐 주체문학의 찬란하고도 전면적인 개화발전을 이룩하시고 그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의 사상예술적수준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것은 20세기문예부흥을 마련하는데서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하는 나날에 또한 우리 식의 창조체계와 창조방법,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가 더욱 철

저히 보장되고 문학예술의 창조와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 양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밑에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조국북단의 혹한속에서 단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기적을 창조한 속도전의 위력과 문학예술혁명의 나날에 창조된 혁명적인 창조기풍은 오늘도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그 보람찬 나날처럼 살며 창작하도록 힘있게 고무하고 있다.

문학예술혁명의 나날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인의 인격에 스스로 매혹되어 사상도 숨결도 그이와 함께 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붓대전사로, 근위대로로 자라났다. 이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문학예술의 가장 귀중한 재보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우리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 믿어주시고 《나의 작가》들이라고 뜨겁게 불러주신다. 이 위대한 사랑과 믿음속에 사는 우리 작가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짐으로써 문학예술의 참다운 주인으로, 그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되려는 인민대중의 세기적 념원은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를 령도자로 높이 모신 참다운 인민의 나라인 우리 나라에서 가장 빛나게 실현되였다.

참으로 수천년 세월을 두고 인류가 달성한 모든 귀중한 예술적재부의 집대성적총화이고 그 최고의 정화일뿐아니라 일찌기 그 어느 민족예술도 이룩할수 없었던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 20세기사회주의문예부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어나가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더불어 우리 민족예술사에,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불멸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업적이다.

해와 별 찬란한 주체조선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며 대륙과 대양을 넘어 만민의 심장을 틀어잡은 주체문학예술은 지난 세기말엽의 격동하는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 고고성을 올린 선군시대의 탄생과 더불어 새로운 선군혁명문학예술에도 더 높이 도약하였다.

오늘 필승불패의 선군강국인 이 땅에는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장엄한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문학예술을 낳는다.

오늘의 시대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인 선군시대이다. 선군시대는 위대한 선군령장이 높이 추켜든 선군의 기치따라 승승장구하는 우리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이다. 오늘 선군으로 무적필승하는 존엄높은 선군조국과 더불어 일대 전성기를 펼치고있는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예술은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

고귀한 산아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의 선군혁명문학 예술이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며 만능의 보검인 위대한 선군정치로 선군의 새 시대를 펼치신 천하제일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신념, 배짱과 의지, 담력과 지략, 감정과 정서를 체현한 문학예술, 장군님을 그대로 닮은 선군령장의 문학예술이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오늘의 우리 문학예술은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의 이 본질적특성을 사상정서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새형의 문학예술, 선군혁명문학예술이다. 바로 여기에 선군혁명문학예술이 주체문학예술의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로 되는 근거가 있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위대한 장군님의 총대철학과 미학사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독특한 선군문학예술정치의 산아이다.

노래로 시작되고 전진하여온 혁명을 노래로 완성하려는것이 그이의 음악철학이며 한편의 혁명적인 시는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는것이 그이의 혁명적미학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이 위대한 문학예술의 위력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격동시켜 원썩을 타승하고 혁명을 승리할수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 계신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총대철학과 함께 이 독특한 철학, 혁명적미학사상이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새 시대를 불러온것이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무엇보다도 천하제일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송가의 문학예술이다.

선군시대를 맞이한 우리 문학예술은 수령영생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으며 수령송가문학의 새 시대를 펼쳐놓았다.

이것은 수령형상문학발전에서의 일대 전환으로 되며 선군혁명문학의 가장 중요한 혁신적특징으로 된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영생》과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수령영생송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리고 추모설화와 금수산기념궁전전설 등이 보여주는바와같이 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수령영생문학의 창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문학사에 수놓으신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은 사상과 령도, 덕망에서 위대할뿐아니라 정치와 군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선군시대의 리상적인 장군형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송가의 문학이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선군시대의 수령찬가인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창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린것은 우리 선군작가들의 최대의 영광이며 조선의 행복이고 긍지이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진정수심성상을 두고 얼마나 드리고싶던 우리 인민의 심장의 송가인가! 그것은 정녕 사생결단의 각오로 총대를 틀어쥐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지켜주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신 천하제일명장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우리 천만군민의 뜨거운 감사의 노래이고 충정의 분출이었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가지게 된것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복이고 영광이며 선군혁명문학예술이 맞이한 최대의 경사이다.

송가는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온 세상이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러러 흠모하는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라뿐아니라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며 자주의 기치 높이 드신 정의의 수호자로 높이 격찬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이 없으면 조국도 없고 우리도 없다는 철석의 신념을 노래한 가요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더더욱 굳게 믿고 따르며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살며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심정을 반영한 가요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그리고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조선의 장군》,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등은 모두가 선군시대가 낳은 명작이며 영원불멸의 령장찬가이다.

선군의 조국인 위대한 내 조국땅에서는 오늘도 20세기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의 그 나날처럼 영원한 수령송배의 노래, 절절한 그리움의 노래인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시니까 그리운 장군님》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불리워지고 있다.

선군시대 선군령장찬가인 합창조곡 《선군장정의 길》은 세계를 향해 승리의 축포마냥 힘차게 메아리치며 원썩의 아성을 밀뿌리채 뒤흔들어놓고 있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또한 인민군대의 혁명문학예술을 본보기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군사가 국사의 첫째이고 군대가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며 군대를 강화하는것이 기본이라는 선군정치의 본질적특성이 투철하게

구현되어 있다.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여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의도이며 바로 그것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우리의 선군문학이다.

선군시대의 수령결사옹위의 노래인 가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를 창작한 것도 군인시인들이며 선군시대의 수령형상명작인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총대》를 창작한 것도 군인작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이 사상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예술성에 있어서도 완벽한 군인문학예술을 따라배움으로써 선군문학의 일대 양양기를 펼쳐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6(1997)년 3월 21일 전국작가협의회를 열고 작가들이 《동면》에서 깨어나서 혁명적군인예술의 창작기풍을 따라배워 선군혁명문학의 기발을 높이 추켜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협의회에 앞서 모든 참가자들이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공연과 조선인민군연합부대들의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도록 하시어 수령결사옹위의 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작에 구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동한 현실로 바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었다.

특히 우리 작가들은 선군혁명문학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인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커다란 감격속에 받아안고 선군명작 창작에 달라붙었다.

이리하여 우리 작가들은 군인작가들의 모범을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긴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 정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당의 혁명적 인생관을 투철하게 구현한 훌륭한 선군명작들을 수많은 창작해 내놓았다.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과 백두산3대장군의 위업을 칭송하는 문학작품을 비롯하여 가요 《강성부흥아리랑》, 《축복받은 나의 삶》 등 일대 변혁을 가져온 그 모두가 인민군대의 군인문학을 따라배우는 과정에 우리 문학이 이룩한 자랑스런 결실로 된다.

주체88(1999)년 한해에만 하여도 서사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 장시들인 《6월의 푸른 하늘아래에서》, 《인민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송년시 《아름다운 추억의 해 1999년이여》,

혁명전설 《언감자국수》 등 무려 50여편의 작품이 선군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되어 아버지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린 사실이 그것을 긍지높이

실증해 준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또한 새로운 선군시대의 시대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을 투철하게 구현하고 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인민군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우는 사생결단의 투쟁정신이며 그 어떤 대적도 맞받아 물리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과감히 뚫고 나가는 필승불패의 혁명정신이다.

혁명적군인정신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을 핵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이 이전시기의 문학예술과 구별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선군혁명문학예술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지난시기 우리 문학예술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핵으로 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을 체현한 주인공들을 내세웠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주인공들의 충실성은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함으로써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고 있으며 그것은 총폭탄정신, 자폭정신, 육탄정신에서 그 최고의 발현을 보고 있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을 그 사상정신적바탕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운 이러한 특징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후로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발현으로서의 혁명적군인정신,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은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들인 《총검을 들고》, 《강제정신》과 1990년대의 《적기가》인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우리는 맹세한다》, 《승리의 길》 등에 가장 투철하게 구현되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강제정신을 창조하고 라남의 봉화를 지펴올렸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강제정신》은 제명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의 시련과 난관이 극한점에 이르고 사회주의의 명맥이 끊기느냐 마느냐 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자강도 로동계급에 의하여 창조된 강제정신에 대한 영원 불멸의 화폭이다.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선군장정의 길을 따라 종군하면서 들끓는 현실속에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충만된 수많은 시들을 창작해 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6(1997)년 1월 1일 새해 첫 아침 눈보라를 헤치시며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면 축하시 《장군의 눈보라》가 세상에

태어났고 최전연전선길을 가실 때면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이, 강계정신의 고향인 강계를 찾으시면 시초 《우리는 강계사람이다》가 태어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원도의 토지정리전투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시초 《강원땅의 새 노래》가 태어났고 동해명승 칠보산을 찾으시면 산수련시 《내 나라의 명산-칠보산》이, 대홍단을 찾으시면 가사 《대홍단 삼천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칭송하여 합창조곡 《선군장정의 길》, 가사 《2월은 봄입니다》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태어났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을 따라 끝없이 종군하면서 선군시가문학을 창작하는 과정은 그대로 혁명적군인정신의 발현과정이기도 하였다. 우리 소설가들은 《고난의 행군》이 진행되던 그 어려운 나날에 제4차 큰 형식의 작품 100편 창작전투를 힘차게 벌리었다.

이것은 말그대로 선군조선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기적이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선군문학운동에서 일대 양양이 일어났으로써 온 나라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불타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또한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예술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문학은 침체되고 답보한 것이 아니라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힘차게 전진하는 조국과 더불어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하였으며 보다 높은 새로운 경지로 도약하였다.

선군시대 우리 문학은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과 평론, 고전문학 등 문학의 모든 형태에 걸쳐 전면적인 개화를 이룩하였으며 새롭고 이채로운 다양한 양상의 작품들을 수많은 탐구개척하였다.

선군의 위대한 조국인 우리 나라에서 21세기의 최대결작인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창조되어 세상을 들었다 놓고 있을 때 우리 작가들도 선군시대의 새로운 형식들로 선군문학의 화원을 보다 다양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소설부문에서는 실화소설, 운문소설, 환상소설, 추리소설들이 나오고 시부문에서는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같은 서사시를 비롯하여 송년시, 축하시, 추대시, 기행련시들이 새로 창작되어 나왔으며 아동문학부문에서는 유년기문학, 지능동화, 속담동화, 우화소설들이 활기를 띠고 련이어 창작되었다.

여기서 특히 금수산기념궁전전설과 추모설화, 백두광명성전설과 같은 혁명전설과 설화의 발굴 서사화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참으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선군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은 룡성번영하는 **김일성**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더불어 끝없이 끝없이 개화만발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언

《조국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라나 고향이 아니라 사람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곳이라야 한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당을 위하여 조국이 있는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하여 당이 있는것이다.》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 인간의 참된 삶이란 있을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떠난 개인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김일성**조국이며 우리 민족은 **김일성**민족이다.》

《조국을 위하여 해놓은것도 남길것도 없는 사람은 한생을 헛되게 보낸 가련한 인간이다.》

《조국에 바친 값높은 생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한다.》

원정대 1 번수

김청수

1

금수산의사당 집무실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안경을 벗어드시고 기억을 더듬어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머리를 가로 저으시었다.

《채성옥이… 생각이 안나. 채성일이는 생각나지만 그 녀자는 연길에서 만나본 기억이 없소.》 하시며 그이께서는 안경을 다시 끼시고 림춘추를 바라보시었다.

《이들테면 동무에게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집안인데 정말 가슴이 아프오. 처창즈에서 죽을 고비까지 넘긴 녀인이 함경북도의 외진 구석에서 조용히 살아왔으니 말이요. 게다가 남편이 배신자로 되어있는지?》

《그렇습니다.》

《확실하도오?》

《최득권동무가 증명했답니다.》

《그렇다면 할수 없구만.》

최득권은 우리 혁명의 원로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몇해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 무슨 해명이라는것을 바랄것도 못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채성옥이라는 녀성의 모습을 상상해보시며 안색을 흐리시었다.

그이를 우러르며 림춘추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괜한것을 말씀드려 수령님께서 근심하시게 한것 같았다.

어제 오후였다. 지방의 어느 군에 내려갔던 림춘추는 평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차창밖에서는 마가솔비가 내리고 있었다. 승용차가 교외에 들어섰을 때였다.

길옆으로 배낭을 멘 웬 녀인이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 힘겹게 걷는것을 보니 나이가 퍼그나 든 늙은이였는데 진회색치마저고리는 비에 흠뻑 젖어있었다.

《차를 세우오.》

승용차는 눈깜짝할 사이에 녀인을 지나쳤다. 림춘추가 다시 엄하게 말해서야 운전사는 차를 세웠다.

림춘추는 차에서 내려 녀인에게로 다가갔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저… 모란봉구역에서 사는데…》

부주석을 바라보던 녀인은 흠뻑 놀라더니 그 자리에 굳어졌다. 부관이 어깨에서 배낭을 벗겨 차에 실을 때까지 녀인은 림춘추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어서 차에 오르시오.》

림춘추는 녀인의 손을 잡아끌었다.

《예…》

승용차는 다시 달렸다.

《여기에 뭣하러 왔습니까?》

옆자리에 앉은 녀인에게 눈길을 주던 림춘추는 흠뻑 놀랐다. 녀인의 주름잡힌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것이다.

녀인이 무척 낮익어보였으나 어디서 보았던지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 어디서 보았던가?》

림춘추는 녀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물었다.

《부주석동지!…》

녀인은 울음을 삼키느라고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눈귀를 잔조롭히고 녀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림춘추는 와들 놀랐다.

《접니다. 채성옥입니다.》

(채성옥?!…)

림춘추는 저도 모르게 녀인의 팔을 덥석 잡았다.

《연-길의 그 성옥이란 말이야?》

《예, 제가 연길 백초구의 채성옥입니다.》

녀인의 입에서는 울음이 쏟아져나왔다.

림춘추는 두눈을 감으며 그의 두손을 부둥켜잡았다. 꼭 다물린 그의 이새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 이게 몇십년만인가!…)

그가 성옥이를 마지막으로 본것이 1935년 초 봄이었으니…

눈물도 웃음도 많았던 시절, 사랑과 증오로 충만한 불타는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림춘추가 채성옥을 처음 알게 된것은 1932년 9월이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량강구회의에서 제시하신 항일유격대의 력량을 강화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반일공동련합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받아안고 연길유격대로 가던 림춘추는 도중에 적 《토벌》대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간신히 추격에서 벗어났으나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상한 다리를 끌면서 백초구 초입의 산기슭에 있는 외딴집에 찾아 들어갔다.

집에는 열일여덟살 나보이는 처녀와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어마나! 림동지가 어떻게?…》

량태머리를 한 귀염성스러워보이는 처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나와 그를 부축하였다. 그 처녀가 바로 채성옥이었다.

림춘추는 그들 모녀의 부축을 받으며 집안으로 들어가 아래방 구들목에 누웠다. 처녀의 어머니가 그의 상한 다리를 응급처치하기 시작했다.

《저를 어떻게 압니까?》

림춘추는 모녀를 주시하며 물었다.

《재작년 가을 오빠와 함께 룡정에 갔을 때 얼핏 봐온 일이 있어요.》

처녀가 대답하였다.

《오빠가 누군데?...》

《채성일이라오.》 하고 이번에는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던 어머니가 손등으로 눈굽을 훔치며 말했다.

림춘추는 채성일을 잘 알고 있었다. 화룡현당에서 사업하던 채성일은 몇달전에 왜놈들에게 붙잡혀 희생되었다.

이태전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만나 뵈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채성일도 있었다. 하지만 녀동생은 본 기억이 없었다.

《연길유격대 최득권동무를 아오?》

성옥은 말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림춘추는 품속에서 밀봉한 봉투를 꺼냈다.

《중요한 문건인데 이걸 그에게 가져다주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다는것도 알려주오...》

《알겠어요. 인츰 갔다 오겠어요.》

채성옥은 어머니에게 간호를 부탁하고는 집을 나섰다.

피를 적지 않게 흘려 온몸이 나른해진 림춘추는 깜박 졸았다.

반시간도 채 못되었을 때 밖에서 성옥의 어머니가 허둥거리며 달려들어왔다.

《이보게, 왜놈들이 오네!》

림춘추는 자기를 추격하던 적들이 뒤쫓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연약한 몸으로 그를 업다싶이하여 뒤울박으로 갔다. 울박의 경사진 발에는 강냉이대 무지들이 더미더미 있었는데 어머니는 림춘추를 그 무지속에 숨겼다.

《여기에 가만히 누워있게. 내 인츰 다시 오겠네.》

어머니는 다짐받듯 말하고는 집으로 내려갔다.

얼마후 혼미한 의식속에 왜놈들이 왁작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향소리, 비명소리... 이어 매캐한 연기가 퍼져왔다. 금시 숨이 막힐것만 같았다. 놈들이 집에 불을 지른 모양이었다. 채채기가 쏟아져 나오려고 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코와 입을 싸쥐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었다. 강냉이무지를 뺀채나가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의식을 잃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초저녁무렵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웬 녀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강냉이무지밖으로 기여서 나가보니 성옥이가 어머니를 붙안고 울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해진 림춘추는 안간힘을 써서 그곳으로 기여갔다. 그를 발견한 처녀는 휘청거리며 달려왔다.

《어찌된... 일이요?》

《최득권동지에게 전달해주었어요... 인츰... 여기로 오실거예요. 흐흑》

처녀는 얼굴을 싸쥐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돌아... 가셨어요...》 하며 처녀는 목놓아울었다.

집은 이미 잔해밖에 없었다. 반나마 솟덩이가 된 잔해속에서 연기가 끄물끄물 타오르고 있었다. 성옥의 어머니는 집뒤에 쓰러져있었는데 온몸이 피로 얼룩져있었다. 왜놈들이 칼탕쳐 죽였던것이다. 저고리고름마저 베어져 한가닥 실오리에 겨우 붙어있었다.

최득권이 유격대원들을 몇명 데리고 달려왔다. 그들은 처녀를 달래며 령마루에 어머니를 안장하려고하였다.

어머니와 영결하는 마지막순간에 성옥은 동지들을 제지시켰다.

《잠간만 기다려주세요.》

처녀는 집터쪽으로 달려내려갔다. 십분 쯤이 걸려 성옥은 그울음이 낀 가위와 때가 오른 실토리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는 간신히 붙어있는 어머니의 피물은 옷고름을 이발로 물어끊었다. 그리고 자기 옷고름을 가위로 썩 베더니 그것을 어머니의 저고리에 매달고 고름을 곁게 매여주었다.

서산에는 붉은 저녁노을이 타번지고 있었다.

이틀후 채성옥은 공청에 가매하였다. 그때 처녀는 저고리고름을 짝 틀어쥐고 혁명에 충실할것을 맹약하였는데 림춘추는 그 고름이 바로 어머니의것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그후 채성옥은 유격대에 입대하여서도 잘 싸웠다. 림춘추가 성옥을 마지막으로 본것은 1935년 처창즈유격근거지에서였다. 그해 가을에 그는 채성옥이가 왜놈들의 손에 장렬히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로 그 채성옥이가 수십년만에 불쑥 나타난것이다.

림춘추는 이 상봉이 잘 믿어지지 않아 그를 유심히 보고 또 보았다.

《허허... 살아있으면 이렇게 다 만나는구만. 그래 그새 어디서 살았소?》

《온성군 강안리에서 살았습니다.》

채성옥은 저고리고름으로 주름진 눈굽을 짙으며 울음절반 웃음절반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 어조로 보아 결코 불행하게 살아온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왜 여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소?》
《무슨 체면이 있다구 찾아다니겠습니까.》 하며
녀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평온해보이는 웃
음이였다.

《몇해전까지 그곳 토장에서 일했어요. 이젠 나
이도 들고 몸도 이전같지 않아 자식을 뒤바라지
나 해주려고 평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수도에 오
니 이전에 싸우던 동지들 생각이 못견디게 나더
군요. 하지만 찾아뵈을 체면은... 용서해주세요.》

《아니, 용서는 내가 빌어야 했소. 나는 수십년
전에 처창즈에서 동무가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듣
고 지금껏 저세상사람으로 치부했었소.》

갈린 목소리로 말하는 림춘추의 눈가에는 물기
가 번쩍었다.

(우리 혁명의 초창기부터 싸워온 투사가, 처창
즈에서 죽음을 이겨낸 녀투사가 해방후부터 40여
년을 조국의 북변땅에서 조용히 살아왔단 말인
가!...)

가슴이 미여지는듯 아팠다.

이렇게라도 만났으니 다행이다. 40여년을 말없
이 살아왔으니 자기의 공적들을 가슴에 묻은채로
조용히 생을 마치려 했을것이다.

림춘추는 이제라도 할바를 해야겠다고 아픈 마
음으로 생각했다.

그는 비에 젖은 배낭을 내려다보았다. 색깔은
것이었는데 부피는 상당히 큰 배낭이었다.

《그래 어딜 갔다오는 길ियो?》

《인민군대원호물자로 고려약들을 좀 만들어보
려고 하니 약재가 없더군요. 그래서 약초들을 뜯
어가지구 오느라고...》

채성옥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림춘추는 머리를 끄덕일뿐 더 말을 하지 않았
다.

얼마후 승용차는 시내중심도로에 들어섰다. 채
성옥은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였다.

《가만 있소. 이왕 차에 오른 김에 집에까지 가
야지.》

림춘추는 채성옥이가 산다는 전승동 살림집까
지 차를 몰게 했다.

부관이 녀인의 배낭을 메고 집에까지 함께 울
라갔다가 돌아왔다.

《부주석동지, 채성옥녀인은 저 외랑식 살림집
의 단간방에서 살고 있더군요.》

젊은 부관을 말없이 바라보는 림춘추의 눈은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

오늘 아침 림춘추의 서탁우에는 채성옥녀인의
문건철이 놓여 있었다.

문건철을 한장한장 번져보는 부주석의 고동색
얼굴은 심각한 빛을 띠었다.

문건에는 채성옥의 남편이 혁명의 배신자로 기
록되어 있었다...

림춘추는 혼자서는 피로움을 이겨낼수 없어 위
대한 수령님을 찾아온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심중이 리해되지였다. 수십
년만에 자기 생명의 은인과 같은 녀성을 만났는
데 그의 남편이 배신자라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아픈 마음을 풀어주
고 싶으시였다. 그런데 최득권은 이미 고인이 되
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종단 말인가...

창박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문
득 떠오르는것이 있어 림춘추에게로 몸을 돌리시
였다.

《가만, 최득권동무가 증명 했다면 채성옥의 남
편이란 사람도 항일투쟁참가자겠구만.》

《그런가 봅니다.》

《이름이 뭐요?》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저으기 흥분하시였다. 그
시절에 변절한 자들은 불과 몇이 안된다. 혁명의
락오자, 배신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도 가슴아
프시고 가증스러우시여 그자들의 이름만은 다 기
억하고 계시는 수령님이시였다.

《홍범입니다.》

《홍범이라구?...》

수령님께서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였다.

《예. 수령님, 혹시 기억되십니까?》

《연길중대출신의 홍범이를 말하는건 아니요?》

《웁습니다. 최득권동무의 중대에서 싸웠답니
다.》

《연길의 홍범이야 이미 35년에 행방불명되지
않았소?》

《예?...》

림춘추는 당혹감으로 하여 굳어졌다. 그는 채
성옥이는 알고 있었지만 홍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의혹을 지우지 못하시며
수십여년전의 일을 돌이켜보시였다.

...1937년 여름 보천보에서 대승리를 거두신
그이께서는 최득권이네 4사도 함께 거느리시고
지양개에서 군민련환대회를 여신 다음 이어 연예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때 최득권과 나란히 앉으시여 연예공연을 보
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연길출신의 하모니카명수
가 생각나시여 홍범이가 잘 있는가고 물으시였
다.

《장군님, 홍범인 35년에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최득권은 석연치 못한 어조로 말쑼올렸다.

그이께서는 의아한 생각이 드시였다. 전사가
행방불명되었는데 지휘관이 말하는 품이 못마땅
해하는듯한 느낌이 드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 홍
범이 행방불명된 경유를 물어보시려는데 박수소
리가 터져올랐다. 잠잠해진 다음에 다시 물어보
시니 장질부사에 걸려 치료받더했는데 적 《토벌》
대의 습격과 함께 종적을 감추었다고 하였다. 그
때 최득권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었다...

《35년도에 행방불명되었다던 사람이 어떻게 되

여 배신자로 되었소?》 하고 수령님께서는 림춘추에게 물으시었다.

《수령님,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홍범이가 지금껏 어디서 살았소?》

《온성군 강안리입니다. 이전에는 동관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알고있소. 희귀한 산성이 있는데지?》

《예.》

수령님께서는 흐린 안색으로 홍범이가 채성옥이와 함께 묵묵히 보냈을 강안땅을 그려보시었다.

그이께서는 1931년 5월에 그곳에 가본적이 있으시었다. 그때는 동관진까지 협궤철도가 있었는데 쿡정선장도 동관에 있었다. 만주의 쿡이 대부분 동관을 통해 일본으로 갔었다.

《강안에서 무슨 일을 했오?》

수령님의 음성은 무겁게 퍼져갔다.

《그곳 토장에서 일했습니다.》

《음- 힘들었겠구만.》 하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아마 영달령과 창평 증산의 통나무와 석탄을 부리고 실었을거요.》

그이께서는 렬차로 온성지방으로 가시던 때들을 돌이켜보시었다.

낮에 지날 때나 밤에 지날 때나 강안역 토장에는 늘 로동자들이 있었던것처럼 생각되시었다. 그속에 분명 홍범이도 있었을것이다. 홍범이가 지나가는 렬차를 바라보며 그리움의 눈물인들 얼마나 흘렸겠는가...

(그런데 최득권이 홍범이를 어디서 만났겠을까?... 그렇지, 강안에 최득권의 이모네가 살고 있었지.)

소왕청 마촌에서 최득권을 처음으로 만나셨을 때 그는 자기네 가정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말한적이 있었다.

최득권의 아버지는 독립군에 들어가기전에 만주에서 장사를 하였다. 그는 나이 서른이 가깝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다. 누구도 뜨내기장사군에게 선뜻 딸을 내맡기려 하지 않았던것이다. 장사일로 동관진에 왔던 아버지는 한 미모의 처녀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는 속을 썩었다. 청혼을 하면 단박에 쫓겨나리라는것은 뻔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궁리끝에 처녀의 아버지가 투전을 좋아하는것을 알고 투전판을 벌려놓았다. 처녀의 아버지는 처음 련거퍼 이겨 많은 돈을 따자 입이 함지박만해졌다. 최득권의 아버지는 계속 지다가 나중에 차고있던 돈을 다 내놓으면서 이번에 이기면 이 돈을 다가지고 지면 딸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처녀의 아버지는 선뜻 승낙하였으나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처녀의 손목을 잡고 두만강을 건너갔다. 그래서 난 아이가 최득권이였다. 어머니는 두번다시 정든 고향과 부모형제들

을 못보고 이역땅에서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조국이 해방된후 최득권은 동관진에서 사는 이모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존경하였다.

《그러니 최득권동무는 이모네 집에 갔다가 홍범이를 만난 모양이구만.》 하고 수령님께서는 림춘추에게 말씀하시었다.

《예, 그렇습니다.》

림춘추는 강안역 토장에서 일하던 홍범이가 어떻게 되어 배신자로 락인되었는가를 수령님께 말씀올렸다.

...전후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중요부문들에 항일투사들을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시었다. 이 조치에 따라 전선연합부대 사령관으로 사업하던 최득권은 체신상으로 임명되였다.

최득권은 온 나라를 유선방송망으로 뒤덮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 달라붙었는데 유선방송화의 첫 시작을 나라의 최북단인 온성에서부터 하였다.

최득권은 유선방송망을 늘이면서 이모네가 살고 있는 동관땅에 들리였다.

겨울이었다. 산과 들은 아직 눈이불을 쓰고 있었다. 두만강도 흰눈을 뒤집어쓰고 얼음장밑에서 소리없이 흐르고 있었다.

유명한 빨찌산이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동관사람들이 최득권을 보러 이모네 집에 모여 들었다. 이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토방에 앉아 마을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최득권이 10여미터 떨어진 골목길로 눈가래를 메고 가는 사람을 불러세웠던것이다.

《가만, 거 낮이 익다. 혹시 홍범이 아니야?》

최득권의 목소리는 반가움에 젖어있었다.

동관사람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최득권이 역전토장의 평범한 로동자를 다 알다니?!...

최득권을 알아본 홍범이도 눈가래를 던지고 달려왔다.

《최득권동지!》

최득권은 신발을 꺾어신은채로 마당에 내려섰다. 홍범을 열싸안으려던 그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홍범이를 유심히 보았다.

최득권의 낮색이 변해가자 홍범은 물낱은 재빛 솜옷 아래흔술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머뭇거렸다.

마을사람들은 자연 긴장해서 그들 두사람을 지켜보았다.

《최득-권동지, 접니다. 홍범입니다.》

홍범은 좀 기가 죽어서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최득권의 얼굴에는 점차 노기가 어리더니 이어 장미가 푸들거리기 시작했다.

《이 노-음!》

최득권의 노성이 언 대기를 찢었다.

《너 어딜 갔다 이제야 내앞에 나타났느냐?》

《...》

최득권의 추궁에 홍범은 머리를 떨구었다. 홍

범의 침묵은 종시 최득권의 범같은 성미를 건드리고야 말았다.

《어서 말해? 왜 이제야 나타났어? 변절자같은 자식!》

최득권은 권총을 꺼내들었다. 홍범은 머리를 숙인채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최득권은 총을 쏘지는 않았다.

《이놈! 내앞에서 당장 사라지지 못하겠느냐?》 최득권의 호령에 홍범은 어깨를 내리뜨린채 돌아서버렸다.

동관사람들은 언 들길로 맥없이 걸어가는 홍범을 겁질린 눈길로 바라보기만 했다.

두만강너머에서 몰아쳐온 눈보라가 그를 삼켜버렸다...

《최득권동무가 해당 기관에 홍범에 대해 말하거나 무슨 글같은것을 남긴건 없습니다.》 하고 림춘추는 아버지수령님께 말씀올렸다.

《하지만 그날에 있던 사건을 많은 동관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결국은 문건에도 그렇게 기록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 그런 일까지 있었구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안색을 흐리시었다.

최득권이 권총까지 빼들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것은 그가 홍범의 배신행위를 명백히 알고있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처음에는 반겨 불렀을가?...

《홍범이는 그 일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지금껏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는겁니다. 변명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기 잘못을 빈것도 없다고 합니다.》

(변명도 빌지도 않았다? 이건 최득권의 행동을 긍정하면서도 긍정하지 않았다는건데...)

수령님께서서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수십년전 지양개마을에서 홍범에 대해 말하던 최득권의 얼굴표정을 다시금 더듬으시었다.

(그때 최득권이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지. 그래... 그런데 그 행방불명된 사람이 나타나자 반기다가 다음에는 권총을 빼들었던 말이지. 여기엔 분명 무슨 곡절이 있다.)

《림춘추동무, 최득권동무가 왜 홍범에게 권총을 빼들었을까?》

《...》

림춘추는 그이께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의 물으심은 물음이라기보다 안타까움이었던것이다.

《그는 홍범이가 이미전에 죽었어야 했다고 생각한게 틀림없소.》

《그렇게 믿었을수도 있습니다.》

《한 데 지양개에서는 행방불명되었다고 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령님께서서는 답답하신틀 목깃단추를 벗기시며 집무실을 거니시었다.

《혹시 수령님께서 걱정하실가봐 그런게 아닙니까?》

《그렇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볍게 머리를 저으시었다.

《그러면 최득권이 아니지. 그는 한평생 거짓말이란걸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소.》

《명백한것은 최득권동무에게 있어서 홍범은 살아있으면 역적이고 죽었다면 충신이였다는것입니다. 최득권동무로서는 홍범이가 죽은걸로 믿어왔는데 살아서 앞에 나타나니 총을 꺼내들었을수 있습니다.》

《그는 총을 빼들긴 했어도 쏘진 않았지. 호랑이같은 성미에 참았던 말이요. 의문이 가질 않소?》

《...》

림춘추는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세상을 떠난 최득권이만이 할수 있었다.

(확실히 최득권의 행동에는 석연치 못한점이 있었다.) 하고 그이께서는 생각을 이어가시었다.

(이건 그가 홍범의 변절을 완전히는 믿지 않았기때문이 아닐가?...)

아버지수령님의 안광에는 깊은 고뇌가 어려있었다.

《수령님, 최득권동무가 없으니 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고 림춘추는 안타까움을 토설했다.

《그래도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하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머리를 저으시며 저력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

《50여년전에 나와 함께 1차북만원정을 갔던 투사들은 다 나의 결을 떠나갔소. 그때 일을 잘 알고있는 귀중한 존재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배신자라니... 우린 해답을 찾아야 하오. 믿음으로, 혁명동지에 대한 믿음으로 말이요.》 하고 수령님께서서는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나는 홍범이를 믿고싶소. 왜냐하면 그가 1차북만원정을 헤쳐온 투사이기때문이요. 홍범이가 변절했다면 아마 그때 변절했을거요. 그만큼 간고한 원정이었지. 림춘추동무.》

《예.》

《동무는 이제 최득권동무의 부인을 만나보시오. 내 생각엔 최득권동무가 생전에 홍범에 대해 무슨 말인가 꼭 했으리라 보오. 그리고 홍범이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알겠습니다, 수령님.》

림춘추의 눈귀에서는 눈물이 번쩍거렸다.

2

하늘은 여전히 개일줄 몰랐다. 마가울비는 조용히 차창을 적시고 있었다.

대성산으로 가는 길은 고요속에 잠겨있었다. 은백색 가로등들은 고개를 숙이고 창백한 빛을 뿌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대성산혁명렬사릉으로 달렸다.

일이 드바쁘실 때에도 기쁜일이 생기거나 괴로운 일이 생겨도 마음속으로 먼저 옛 전우들을 찾게 되시는 그이이시였다.

(홍범이가 배신자라니?!...)

오늘 낮에 림춘추가 왔다면 다음부터 도무지 일감을 잡으실수가 없으시였다.

하도 오랜 세월이 흐르다나니 이제는 2차북만원정에 참가한 투사도 두어명밖에 안된다. 그런데 홍범은 하나밖에 없는 1차북만원정 참가자이며 증견자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일을 다 뒤로 미루시고 홍범을 만나 흥허물없이 그때 이야기를 나누고싶으시였다. 간난신고하여 로야령을 넘던 일이며 념안사람들에게서 팽대를 받던 일을 그리고 우리 《고려홍군》이 하모니카중주단으로 념안사람들의 언 가슴을 녹여주던 일들, 다음에는 천교령의 눈보라를...

천교령을 넘을 때에는 홍범이가 없었다. 그가 속한 연길중대는 한발 먼저 동만으로 떠나보내셨던 것이다.

로야령과 천교령의 이야기는 한홍권이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주작봉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 부관이 우산을 받쳐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부관의 손을 가볍게 미시고 한홍권의 반신상앞에 가사시였다.

고지식하고 충성밖에 몰랐던 이 전사를 마주 보느라니 눈앞에 하늘을 치받고 선 험준한 로야령이 떠오르시였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날치고 땅에서는 눈보라가 모든것을 얼구어버릴듯 기승을 부린다.

로야령에 올라선 그날은 아침부터 보기도문 폭설이 내리였다. 로야령북쪽 등성이들과 골짜기들은 모두 눈속에 묻혀 어느것이 어느 골짜기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원정대는 팔도하자로부터 80리 떨어진 지점에서 길을 잃었다.

지칠대로 지친 원정대는 로야령의 어느한 이름모를 중턱에서 쓰러져버렸다. 너무도 힘겨워 한홍권중대장도 맥을 놓았다.

그이께서는 가쁜숨을 몰아쉬시며 쓰러진 대원들을 바라보시였다. 적들이 원정대를 포착한 이상 여기서 머물거리다가는 파국적인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아니, 그것도 다음의 일이다. 지금 당장이 문제였다. 자칫하면 로야령의 한줌 흙이 될수도 있었다.

《동무들, 힘을 내오. 북만동무들이 우리를 기다

리고 있소!》

그이께서는 퍼드리고 앉아서 눈을 우무적거리며 씹고 있는 대원의 손을 잡아끄시였다. 하지만 대원은 도로 주저앉아버렸다. 얼굴이 기름하고 목이 쑥 빼여져나온 그 대원은 연길중대의 홍범이였다. 최득권이 하모니카명수이고 타고난 락천가라고 평장히 선전한 대원이였다. 그래서 동만을 떠나올 때 그를 비롯해서 몇명의 대원들에게 하모니카를 사다주기까지 하시였다.

《홍범이!》

그이의 부르심에 홍범은 눈으로 얼굴을 매닥질하며 올라다보았다.

《하모니카를!... 어서!... 힘을 줘야겠소.》

홍범은 씩 웃더니 배낭에서 하모니카를 꺼냈다.

잠시후 하모니카의 맑은 선율이 로야령의 천연수림속으로 울려퍼졌다. 하도 재주가 유명하여 《보배》로 통하고 있는 고보배가 인차 지휘를 하며 노래부르기 시작했다.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

하나, 둘, 셋... 원정대원들은 노래를 불렀다. 《혁명군의 노래》를... 전 대오가 합창하며 일어섰다.

천신만고 모두다 달게 여기며
피와 땀을 흘린 자가 그 얼마나

홍범은 더 힘주어 하모니카를 불었다. 고보배는 더 신나서 지휘를 하고... 얼마나 신명이 나서 지휘하는지 꺾꽂히게 얼어버린 숨동복이 터져나가 맨살이 드러난것도 몰랐다.

...

끓는 피로 맹세한 동지를 잃고서
피롭고도 모진 싸움 해내오다가

...

원정대오는 힘차게 전진하였다.

대오가 목적지까지 도착했을 때 그이께서는 홍범을 보고 놀라시였다.

그의 입은 피투성이였다. 언 쇄판에 입술이 멍청 묻어나는데도 그는 계속 하모니카를 불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걱정이 복받쳐 홍범을 껍 껴안으신채 아무 말씀도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다음으로 최득권의 반신상앞에 다가가시였다. 최득권은 항일전의 그날처럼 근엄한 자세로 서있다. 장장 반세기이상 총으로 수령을 받들고 혁명을 개척한 무장의 자세로...

(이것 보오. 최득권이, 북만원정을 헤쳐온 투사도 변절할수 있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역세인 눈빛을 마주 보시며 마음속으로 물어보시었다.

그러나 최득권은 대답이 없었다. 그 역시 고뇌에 잠겨있는듯 하였다.

(이 로장이 대체 무엇때문에 홍범이를 배신자로 타매했는가?…)

마가을비에 수령님의 옷은 폭 젖어들었다.

오랜세월 그 행방을 몰라 찾았던 홍범이었다. 홍범이뿐 아니라 전사들의 유가족들도 찾고 또 찾으신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것을 조선인 민혁명군 사령관으로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걸머지고 있어야 할 의무로 간주하고 계시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찾았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

몇해전에 오래동안 행방을 알길없던 강동무가 불쑥 나타난적도 있었다.

대부대전회작전시기에 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많은 탄약과 무기들을 비밀장소에 묻으라는 과업을 주시였다. 그렇게 떠난 전사가 수십년세월이 흘러서 나타난것이다. 한때 그가 전향했다는 소문이 나돈적이 있으나 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을 부정해 버리시었다.

강동무에게서 지나온 사연을 들으니 눈물을 참을수가 없으시었다.

강동무는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다가 일제 《토벌대》에 체포되어 갖은 악형을 다 당한뒤 무기징역형을 언도받았다. 몇달후 그는 감옥철창을 두손으로 벌리고 탈출하였는데 일본놈들은 비렬하게도 그가 전향했다는 허위보도기사를 냈다. 강동무는 주력부대가 원동훈련기지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고 쏘만국경을 넘다가 쏘련국경경비대에 억류되였다. 그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밀영에 나가계실 때였다. 강동무에 대해 조사하던 쏘련측에서는 일제의 전향기사를 그대로 믿고 간첩의 죄를 들춰워 장기형을 언도하였다. 그는 수십년이 지나서야 조국으로 올수 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보름 동안이나 저택에서 그와 함께 보내시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홍범이를 만나보지 못했는가고 물으시었다. 강동무는 연길출신의 유격대원이었던것이다. 그는 근거지해산후에는 홍범이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수령님께서 행어나하여 이튿날 저녁에도 그 다음날에도 홍범에 대해 물어보시자 강동무는 눈물이 글썽해서 어깨를 떨기만 했다. 그의 눈물을 보시는 순간 그이께서는 이제는 홍범이를 영영 찾지 못하겠구나 하고 가슴 저리게 생각하시었다.

그후에 강동무의 일도 순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일제의 모략기사가 허위라는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다. 하도 세월이 흐르다나니 동북지방에 들어간 조사단도 강동무가 무기를 묻었다는 비밀장소를 찾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친히 그를 보증하는 문건에 수표하시었다. 몇달 후에 해당 기관에서는 강동무의 감옥탈출과 관련한 일제관헌의 비밀문건을 찾아낼수 있었다.

그이께서 잊을수 없으시여 찾고찾으신 홍범이도 배신자로 되어 나타났다.

홍범은 강동무의 경우와 사정이 달랐다. 강동무는 일본놈들의 모략에 의해서 고초를 겪었지만 홍범이는 최득권이 변절자로 타매한것이다.

낮에 림춘추를 떠나보내신 다음 그이께서는 해방후 홍범과 채성옥이 살아온 경력을 세세히 알아보시었다.

그들부부는 동관땅의 첫 공산당원들이었다.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사업에서도 앞장섰으며 세포위원장, 녀맹초급위원장으로 많은 당원들과 핵심들을 키워냈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홍범은 선참으로 손에 총을 잡고 전선에 나갔다. 락동강까지 갔다온 그는 재진격시 서울부근에서 중상을 입었다.

전투능력을 상실당한 그는 동관으로 가서 전선원호에 모든 힘을 다하였다.

홍범은 영예군인이였지만 힘든 토장에서 얼마 전까지 로동자로 성실히 살아왔다....

그의 경력을 보면 한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인간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성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는 한생 조국 복변의 외지이고 어려운 초소에 서있으면서 당과 조국이 제일 어려울 때마다 한몸을 서슴없이 내댜것이다.

그들부부가 어떻게 되어 항일혁명대오에서 리탈되게 되였는가만 알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바로 그것때문에 최득권이 배신자로 타매했을테니까.

지금쯤 림춘추동무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텐데...

《수령님.》

뒤에서 부관이 울먹이는 소리로 불렀다.

《어서 내려가셔야겠습니다.》

《...》

《수령님, 밤이 깊어집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점심도 건느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무엇을 부정하시는듯 조용히 머리를 흔드시었다.

《수령님, 밤 9시가 넘었습니다.》 하고 부관은 다시금 간절히 아뢰었다.

수령님께서서는 9시가 넘었다는 말에 상념에서 깨어나시여 시계를 보시었다.

저녁에 랑림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는 한 처녀 선생을 데려오라고 서기에게 이른 일이 생각나시었다.

《수령님, 어서 가십시오.》

수령님께서서는 아무 말씀없이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얼마전에 평양에서는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가 있었는데 랑림군에서 온 한 처녀선생도 참가하였다. 처녀선생은 떠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꼭 들어줄터이니 종이에 한가지씩 부탁을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수도로 가는 선생님에게 제 취미에 맞는 부탁을 써서 주었다. 만경대사진을 주었으면 좋겠다. 새로 나온 수지연필을 사주었으면 좋겠다 등 별의별 부탁을 다 들어주었는데 한 학생의 부탁만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그 학생은 선생님에게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는것이다. 그래서 처녀선생은 다른 회의참가자들이 다 떠나 내려갔지만 러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어제 이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처녀선생을 자신한테 데려오라고 하시었던것이다.

《랑림의 녀선생이 기다리겠는데 가야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옛 전우들을 다시금 돌리보시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시고는 주작봉을 내리시였다....

랑림선생은 키가 자그마하고 귀염성스럽게 생긴 처녀였다. 처녀선생은 송구스러워 어깨를 움송그리고 있었다.

랑림의 교육형편과 학생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번 회의참가자들의 반향을 세세히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처녀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이젠 식사를 해야지.》 하시며 열방으로 향하시였다. 《선생이 학생들과 약속한거라기에 꼭 들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소. 선생과 학생들사이의 약속은 신성한거요.》

방에는 두명분의 식사가 차려있었다. 한켠에는 농마국수와 몇가지 음식들이, 다른켠에는 삶은 감자 몇알을 담은 접시와 소금과 건당이것이 들어있는 종지 두개가 놓여있었다.

《선생은 이 농마국수를 드시오. 다른 음식들도 다 감자로 만든거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녀선생을 자리에 앉혀주시고 자신께서도 앉으시였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감자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 감자 몇알이면 충분하오.》 수령님께서서는 감자껍질을 벗기시며 말씀하시였다. 《아마 빨찌산때 배인 식성인것 같소. 허허, 울긴 왜 우나? 선생이 그러면 나도 못먹질 않소? 내 성의니 나를 위해서도 많이 드시오.》

《예... 들겠습니다, 수령님.》

처녀는 오열을 씹어삼키며 저가락을 들었다.

《삶은 감자는 소금이나 건당이것에 찍어먹으면 별맛이요. 난 평안도출신이여서 건당이것에 찍어먹는걸 좋아하오. 빨찌산때 우리 동무들이 나에게 건당이것을 맛보이려고 애를 썼지.》

건당이에 찍어 감자를 드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1차 북만원정때 일이 생각나시여 종지 다른

한알은 들지 못하시였다.

《수령님, 이 소박한 식사도 못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처녀선생은 흐느낌을 터치며 말씀올렸다.

《미안하오. 선생은 어서 들라구. 내 산에서 싸울 때 일이 생각나서 그러는거니... 1차 북만원정때 우리는 녀안땅에서 싸웠소.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소. 전투를 마치고 마을에 내려와 저녁식사를 하려는데 한 대원이 없어졌소. 홍범이라구 하모니카중주단의 1번수였지. 나는 비상소집을 일으키려고 했소. 이때 홍범이가 혈떡거리며 나타났소. 그는 나를 위해 여러곳을 돌아다니던 끝에 새우젓 한종지를 얻어왔던거요. 나는 그가 눈물겹게 고마왔으나 자의대로 행동했기때문에 처벌을 주었소. 그는 온밤 강추위속에서 떨며 처벌받았으나 이튿날에 웃으며 하모니카를 불었소.》

《!...》

《이제 선생은 소박한 식사라고 했지. 우리 투사들은 한생을 소박하게 살아오고 있소. 이제 말한 그 홍범이도 함북도의 두만강기슭에서 평범한 노동자로 살아왔소. 나는 오늘에야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소.》

자리에서 일어서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창가로 다가가시여 밤하늘을 바라보시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이께서는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무수한 별들을 헤아려보시는듯 오래도록 밤하늘에 눈길을 주시였다.

등뒤에서는 처녀선생의 흐느낌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3

림춘추는 이튿날 오전 첫 시간에 수령님을 찾아왔다. 그의 고동색얼굴에 웃음이 비껴있는걸 보아 어두운 소식을 가져온것 같지는 않았다.

《갔던 일은 어떻게 됐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반겨맞아 자리를 권하시며 물으시였다.

《최득권동무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하고 림춘추는 선자리에서 말씀올렸다.

《어서 앉으라니까. 그래서?...》

《주인이 생전에 혼자소리로 홍범에 대해서 자주 외우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시기에도 이따금 눈을 홑뜨고 <홍범이, 그럴수 있을까?> 하며 피로와했다는것이였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민망하여 그 사람을 왜 자주 외우는가고 물어보니 눈을 감고 아무말도 안했다는겁니다.》

《그러니 최득권동무도 의문과 피로움속에 살다가 홍범의 일을 마음속에 지고 갔구만.》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저러오시여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결국 이 문제를 푸는것은 홍범에 대한 의리와 함께 이미 떠나간 최득권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게 전부요?》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다시금 림춘추에게로 눈길을 돌리시며 물으시었다.

《최득권동무의 부인은 자기 역시 처창즈에 있어왔지만 홍범에 대해서는 잘모른다고 하면서 혁명박물관의 계승중동무가 잘알수 있을거라고 하였습니다.》

《계승중동무가?... 그럴수 있지. 처창즈도 이젠 그동무만큼 아는 사람이 없소. 그리고 홍범동무는 만나봤소?》

《...예. 그의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림춘추는 몇시간전의 일을 더듬는듯 잠시 말을 끊었다.

《제가 홍범이네 부부의 집을 찾은것은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였습니다.》 하고 림춘추는 어딘가 침통한 어조로 경애하는 수령님께 말씀올렸다.

...그들부부는 전승동 외랑식살림집 4층의 단칸 짜리집에서 살고 있었다.

《계십니까?》

방안에서 안늬은이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채성옥이가 문을 열었다.

《아니, 부주석동지가?!...》

채성옥은 놀람에 차서 눈이 휘둥그레진채로 굳어졌다. 녀인의 퇴색한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차올랐다.

《여기에 계속 세워둘 작정이시오?》

《아 아님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루추해와서...》

채성옥은 림춘추를 방안으로 안내하였다.

홍범은 집에 있었다. 그는 잠옷차림으로 신문을 보다가 림춘추를 맞이하였다.

북향으로 앉은 살림집이어서 해빛도 들어오지 못하다나니 방안은 어둡시근해졌다.

《여기에 앉으십시오.》

채성옥이가 방석을 꺼내놓았다.

《예.》

림춘추는 자리에 앉아 방안을 둘러보았다. 창문밑에 《삼지연》텔레비존이 한대 있고 그옆에 낡은 이불장과 옷장이 있었다. 이것이 이들 부부의 재산전부인것 같았다.

《홍범동무는 전승분주소 수위로 일한단지? 피곤하겠구만.》

《피곤이랄게 있습니까?》 홍범은 주름이 가득잡힌 얼굴에 웃음을 띠었다. 《나이들면 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위란게 좀 따분한 일이긴 합니다.》

그는 나이보다 젊어보였는데 머리만은 세지않았다. 오랜 로동으로 단련된탓인지... 살이 빠져 그런지 얼굴은 사진보다 더 길어보였다.

《그사이 어떻게들 살아왔는지 궁금해서 왔소.》

림춘추는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홍범에게 권했다.

《피우오.》

《예.》

홍범은 담배를 피우며 강안토장에서 로동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참 전후에.》 림춘추는 그가 말을 끝내자 물었다. 《최득권동무가 동관땅에 온적이 있었다지?》

《왔었지요.》

홍범은 스스럼없이 대답했다.

《그때 동무한테 총까지 꺼내들었다는데 동문 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소?》

홍범은 짙은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할수 없었지요. 그렇구 말구요. 35년초 겨울에 전 장질부사에 걸려 누웠습니다.... 병을 다 털고 나왔으니 근거지는 해산되고 부대는 어디 간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는 반세기전의 일을 더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주력부대가 북만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은 홍범은 성옥이와 함께 길을 떠났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걷고 하면서 밀림을 헤쳐갔다. 로야령의 그 험준한 산밭을 넘으면서... 로야령의 원시림은 끝이 없는듯 하였다. 사방에서 맹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이리들이 냄새를 맡으며 뒤를 쫓았다.

그들은 한몸, 한마음이 되어 걷고 또 걸었다. 일이 안될때라 성옥이가 원인모를 병에 걸렸다. 처녀는 40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가끔 정신을 잃었다.

만약 그들에게 기어이 **김일성** 장군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억척의 신념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로야령의 원시림속에서 무주고혼이 되고 말았을것이다.

때마침 그들은 로야령산중의 중국인부락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

일본놈들의 《토벌》을 피하여 이리저리 쫓기우다가 로야령에까지 들어온 농민들이었다.

그들은 왕가성을 가진 중국로인네 집 옷방에 거처를 잡았다.

성옥은 홍범과 왕로인의 지극한 간호에 의해 몸을 완쾌했으나 다른 일이 발목을 잡았다. 성옥이가 임신하였던것이다.

몇해후에 그들은 딸애를 얻고 간도로 나왔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성을 듣고 다시 장백으로 간 그들부부는 장백의 오지에서 혁명군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유격대가 훈련기지로 들어간 이후 그들은 백초구에 정착하였다. 대오에서는 떨어졌어도 전우들의 피가 스며있는 땅에서 동지들을 추억하며 살고싶은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

《조국이 해방되자 우린 동관땅에 눌러앉았지요. 리유는 어떻게 락오자가 되었으니 그때 최득권동지가 총으로 싸죽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지요.》

《순전히 그 한가지때문이었던 말ियो?》

림춘추의 겹눈은 얼굴에는 놀라움이 력연히 비껴있었다.

《예. 그뿐입니다.》

《그러면 해방되지 반세기가 되어오는데 다년간 항일전에 참가하여 공로를 세운 동무가 왜 여적우릴 찾아올 생각은 안했소?》

《부주석 동지, 저에게 인간으로서의 공지가 있다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북만원정에 참가한 그것 하나입니다. 이게 공로일가요?... 그럴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공지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공지를 안고 한생을 살아왔습니다.》

홍범은 옷장안에서 붉은 비단주머니에 싼것을 꺼내 펼쳐보였다. 그것은 낡은 하모니카였다.

《이 하모니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차북만원정때 저에게 선물로 주신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이 하모니카만 붙여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림춘추는 머리를 끄덕였다.

홍범은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했다. 《혁명군의 노래》를...

그의 주름이 가득 잡힌 얼굴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옆에 앉은 채성옥이도 손가락으로 연신 눈곱을 찍었다...

림춘추의 이야기가 끝났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무 말씀없이 계시다가 담배를 꺼내드시었다. 그러나 피우지는 않으시고 물끄러미 내려다보시었다.

홍범이가 결코 배신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하였으나 자신을 락오자로 생각하고 있다는것에는 이름못할 걱정이 북받쳐 오르시었다.

홍범은 1차북만원정때의 하모니카를 5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간수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한생을 그날의 정신으로 살아왔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대오에서 리탈된것을 두고 자기를 그처럼 낮추다니?!... 이 역시 홍범의 인간됨을 보여주는것이 아니겠는가.

《림춘추동무도 알지만 우리는 부상자들을 쏘련에 들여보냈던 일들도 있었소.》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은 퍼그나 갈려있었다. 《그들은 모두 해방후에 조국으로 나왔고 우리는 그들에게 중책을 맡겼더랬소. 그런데 홍범이만은 대오에서 떨어진것죄로 생각하구 수십년이 넘도록 자책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지.》

《수령님, 최득권동무가 설마 그 한가지 리유때문에 배신자로 단죄했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림춘추가 말씀올렸다.

《그야 그렇지.》

《정말 갈피를 잡을수 없습니다. 최득권동무의 말을 부정할수도 없고...》

《우리는 두사람 다 믿어야 하오.》 하고 수령님께서서는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홍범이는 사실 그

대로 말했고 최득권이는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행동했소. 그런데 최득권동무는 필경 무언가 곱해한것 같소. 그걸 알아내야 하오.》

《알겠습니다. 수령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 평양에 올라왔소?》 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말머리를 돌리시었다.

《아들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산다오? 홍범인 왜 전승분주소 수위로 들어갔소?》

림춘추는 수령님께 홍범이내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두만강기슭 강안역 토장에서 살아온 그들은 세해전에 아들을 따라 평양에 올라왔다. 아들은 마흔이 지나 본 늦자식이었다. 그 우로 딸들이 주련이 있었으나 때가 되기 바쁘게 다 날아가버렸다.

아들은 어느 기업소의 로동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보통강구역의 단간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좁은 집에서 얹혀살자니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성옥은 령감에게 도로 토장마을로 내려가자고 성화를 먹였다. 홍범은 마음씨 고운 머느리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였다.

《우리가 내려가면 애들 화목이 깨질수 있어.》

때마침 나라에서 전승동살림집을 배정해주었다.

이사할 때 낡은 《삼자연》 텔레비존만 가지고 왔다. 토장에서 일할 때 홍범이 상으로 수여받은 것이었다. 아들네한테도 텔레비존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기가 무척 저어되었다.

《저희들은 일없어요. 이제 생기겠지요.》

머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성옥은 가슴이 아팠다. 옛날에 딸 셋이면 집안이 거지된다는 말도 있었지만 아들우로 딸 넷을 출가보내다나니 아들장가갈 때에는 정말 해준것이 없었다. 결혼식상과 머느리웃감을 해주었던가. 하긴 딸들에게도 이불 한두채 꾸며준것밖에 없다. 그래도 저들끼리 제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니 로인내외간의 마음만은 편안했다.

전승동으로 이사온후 홍범은 그저 놀수만 없어서 분주소 수위로 들어갔다...

림춘추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시금 홍범에 대한 생활자료철을 펼쳐드시었다. 마지막페이지까지 다 보신 그이께서는 림춘추에게 시선을 돌리시며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홍범이는 1차 북만원정때부터 오늘까지 한결같이 살아왔소. 이런 사람은 변절할수 없소. 아니, 절대로 변절하지 않소.》

《수령님.》 림춘추가 한결음 다가서며 걱정실린 목소리로 말씀올렸다. 《제가 공연히 수령님께 근심만 덧놓아드린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책임서기동무에게서 다 들었습니다. 수령님께서 홍범이때문에 식사를 건느시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일없소. 동무의 말을 들으니 먹지않아도 배부른것 같소. 우리 계송죽동무를 만나봅시다. 그를 만나면 뭔가 알수 있을거요. 처창즈에 있을 때와 그후에 최득권동무네 부대에서 싸웠으니 잘 알거요.》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두팔에 힘을 주시고 어깨를 쭉 펴시며 집무실을 거니시었다.

그이의 얼굴에서는 사색의 그림자가 사라질줄 몰랐다.

4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튿날 립춘추와 함께 혁명박물관으로 나오시었다.

《새 유적자료들이 발굴된것이 있소?》

수령님께서서는 박물관 책임일군인 계송죽의 인사를 받으시며 물으시었다. 그이께서 박물관으로 나오실 때마다 하시는 첫 물음이었다.

《예. 40년대의 유적들과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고있었습니다.》

계송죽은 그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아버지수령님을 자료를 전시한 곳으로 모시려고 하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30년대초시기 혁명사적들이 전시되어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시었다.

《내 송죽동무에게 훌륭한 혁명사적유물을 하나 주자고 하오.》

수령님께서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아니 어떤 유물이기에...》

계송죽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한번 알아맞혀보오. 그러면 내 거저 주지.》

무척 기쁘신듯 롱말을 하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어느 한 유화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1차 북만원정을 형상한 유화였다.

《송죽동무, 저 그림에서 내뒤에 서있는건 누구요?》 하고 그이께서는 유화를 가리키시며 물으시었다.

《한홍권중대장입니다.》

《그뒤에 선건?...》

《저...》

계송죽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수령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것이 아님을 잘알고 있는 그였다.

유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완성된것이였다. 한홍권의 뒤에 서있는 얼굴이 기쁜 대원은 홍범이었다. 처음 유화에는 홍범이가 없었다. 그런것을 수령님께서 1차 북만원정대의 하모니카중주단 1번수 홍범을 회고하시며 그의

모습을 그려넣도록 하신것이다.

《어떻소? 홍범이가 비슷하오?》

《예...》

순간 계송죽의 머리에는 이상한 생각이 찾아들었다.

바로 이틀전에 이 유화를 놓고 무심히 스쳐버릴수 없는 일이 생겼었다.

그날 평양시내의 여러 학생단체가 박물관을 참관하였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 유화앞에서 홍범을 가리키며 《우리 할아버지야.》 하고 뼈겼다는것이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이 《피- 그럼 너희 할아버진 왜 차두 못타니?》 하며 물아주었다. 승용차소리가 나오자 그 학생은 《지난해 할아버지와 함께 왔을 때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씨-》 하고 씩씩거릴뿐 더 우기지 못했다고 한다.

강사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계송죽은 잘 리해할수 없었다.

홍범은 이미 오래전에 행방불명되지 않았는가?!...

계송죽은 그 학생을 만나보고싶었다.

유감스럽게도 강사는 여러개의 학생단체들이 한조를 이루다나니 어느 학교 학생인지 알수 없다는것이였다.

송죽은 한 학술원을 불러 그 학생을 꼭 찾아내라는 과업을 주었었다.

헌데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도 홍범을 가리키시는것이다.

계송죽은 머뭇머뭇하다가 이틀전의 일을 말씀올렸다.

《그래?...》

그 학생은 정말 홍범의 손자일수도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유화속의 홍범을 다시금 유심히 바라보시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 모상을 세심히 가르쳐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연길출신의 투사들을 불러 화가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시였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보니 눈섭과 입술부위가 좀 다른것 같았다.

반세기전에 함께 투쟁한 자신께서도 이제는 홍범의 옛 모상이 가리까리한데 어린 손자가 어떻게 저 그림을 보고 대뜸 자기 할아버지를 짚을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그 학생의 말대로 홍범이가 손자와 함께 박물관에 와서 저 그림을 보았다는것을 말해준다. 홍범은 이 유화를 보고 당에서 자기를 항일투사로 내세워주고 있다는것을 알았을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남들처럼 평범히 살아왔단 말이지...

가슴속에서 불덩어리같은것이 옥 치밀어올랐다.

《그 애는 홍범의 손자일거요.》 하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감정을 녹았히시며 옆에 서있는 립춘추와 계송죽에게 말씀하시었다.

《아-니, 그럼 홍범동무가 살아있단 말씀입니까?》

계송죽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음.》

수령님께서는 만족한 웃음을 띠시며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그에게 녀안땅을 녹여낸 하모리카도 있다고 하오. 박물관에 그 하모리카를 전시하도록 해야겠소.》

《예...》

계송죽은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다.

《왜 그러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송죽의 얼굴을 유심히 보시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행방불명되었다던 사람이 불쑥 나타나니 잘 믿어지지 않아 그러합니다.》

《그래?... 송죽동무는 그때 일이 생각나오?》

《수령님, 어느 일 말입니까?》

《홍범이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던 때의 일을 말이요.》

《예...》 계송죽은 두손을 모두어쥐고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말씀올렸다. 《1차 북만원정을 갔다와서 그 동무는 열병에 걸렸었습니다. 근처 지해산을 앞두었던 때였습니다. 최득권동지는 한 녀동무를 불러 그를 간호하게 했습니다. 한달 후에 최득권동지는 그의 치료막이 있던 백초구로 통신원을 보냈습니다. 약제와 식량을 한집 지워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통신원이 갔다와서 한 보고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놈 <토벌>대의 습격을 받아 녀동무는 희생되었는데 홍범은 온데 간데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통신원은 그 녀대원을 안장하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최득권동지는 수령님께 진실 그대로 보고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같이 있던 녀동무는 전사했는데 홍범은 없으니 모두가 의문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녀대원의 이름이 뭐였소?》 하고 그때까지 말없이 서있던 림춘추가 물었다.

계송죽은 골똘히 생각에 잠겨 기억을 더듬다가 머리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야 비로소 최득권의 분노가 이해되시었다. 그는 홍범이가 자기를 간호하던 녀대원이 목숨을 바친 대가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비루한 인간으로 단정한 것이다.

그런데 홍범을 치료해준 채성옥이는 살아있지 않는가?! 살아있을뿐더러 고난을 헤치며 대오를 찾아가던 길에 안해가 되어 오늘까지 홍범을 돌봐주었다.

통신원이 안장했다는 녀대원은 누구인가?... 그 것만 확인하면 홍범이문제는 스스로 해결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춘추를 돌아보시었다.

《홍범동무부부가 얼핏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백초구에서 치료받을 때 한 녀동무가 희생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림춘추가 말씀올렸다.

《그 동무를 어떻게 했대오?》

《잘 물어주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계송죽이가 머리를 가웃했다.

《제가 알고있기에는 통신원이 감장했다고 했는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었다.

(통신원은 왜 그 녀동무를 채성옥이와 헛갈렸을가? 홍범이네가 물어주었다는 녀동무는 누구고 통신원이 물어주었다는 녀동무는 누구인가? 분명 한사람이겠는데... 이제는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는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지 않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관을 불러 지도를 펼치게하신 다음 계송죽에게 말씀하시었다.

《여기가 백초구요. 홍범동무에게서 치료막이 있던 골짜기를 알아보고 그 무덤을 찾아야겠소.》

《무덤말입니까?》 계송죽은 몹시 놀라와 하였다. 《그때 통신원은 시간이 없어 대충 감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남아있겠습니까?》

《있을거요. 송죽동무가 이제 직접 동복에 가서 확인해보고 오시오.》

《예?! 제가 말입니까?》

계송죽은 놀란 나머지 외람된것도 잊고 반문했다.

《그렇소. 이것은 혁명동지를 위한 중요한 일이요.》

《알겠습니다, 수령님, 곧 떠나겠습니다.》

계송죽은 몸가짐을 바로하며 대답을 올렸다....

중국 동북으로 간 계송죽과 몇몇 혁명사적일군들은 백초구에서 반세기전에 전사한 한 녀투사의 묘를 찾고 그것을 다시 정성껏 손질하였다.

그들이 탄 렬차가 평양역에 도착한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서기가 그들을 마중나와 있었다.

《어서 가십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 쉬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고 서기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말하였다.

집무실에는 당중앙위원회 일군과 화가가 이미 와있었다. 송죽은 마흔남짓한 그 낮익은 화가가 1차북만원정시기의 그림을 그린 재능있는 젊은이임을 알아보았다. 박물관에 걸어놓았던 그림도 집무탁에 놓여있었다.

유화를 가리키시며 화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계송죽일행이 들어서자 수고했다고 치하해주시며 반가이 손을 잡아주시었다.

《수령님, 백초구에 가보니 실지 무덤이 있었습

니다.》 계송죽이 갔다온 정형을 보고하면서 자기의 의문도 말씀드렸다. 《...그 무덤에는 <리신녀 렬사의 묘>라는 묘비까지 있었는데 그곳 인민들이 오늘까지 잘 관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럴테지. 나는 홍범동무를 믿었소. 그들이 자기네들을 위해 희생된 너투사의 무덤을 잘 해놓았으리라는걸 말ियो.》

수령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시었다.

《수령님, 리신녀는 누구니까?》

《홍범동무가 치료를 받을 때 약을 구해다주던 백초구의 처녀공청원이었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계송죽에게 구체적인 사연을 들려주시었다.

...리신녀는 공청조직으로부터 과업을 받고 이들에게 며칠에 한번씩 식량과 약품을 가져다주었다.

어느날 치료막으로 급히 달려온 처녀는 그들에게 적 《토벌》대가 오니 빨리 피신하라고 소리치고는 놈들을 유인하였다.

피신하였던 홍범이네가 돌아와보니 처녀는 이미 희생되었는데 누군가가 풀덤불로 감장해주었다.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리신녀를 물어주었다.

동북만각지를 찾아다녔으나 종시 부대를 찾지 못하고 백초구에 정착하여 살던 그들부부는 조국이 해방되자 리신녀의 무덤을 잘 만들어주고 동관으로 나왔다...

《홍범동무에 대한 오해는 통신원이 채성옥이와 리신녀를 혼동한데 있었소. 놈들이 처참하게 만들어놓았을테니 헛갈릴수도 있지. 이 모든건 립춘추동무가 홍범동무네 부부를 다시 만나 확인한거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창가로 가시여 창문을 여시었다. 주작봉쪽에서 시원한 새벽바람이 불어왔다.

《오늘은 제일 기쁜날들중의 하나요. 진짜배기 투사를 찾아냈으니까. 최득권동무가 이걸 알면 기뻐할거요.》

이윽도록 불빛이 환한 주작봉마루를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집무탁으로 오시여 그림을 가리키시며 계송죽에게 말씀하시었다.

《먼저번 그림과 홍범동무의 사진이 차이나는데가 있어서 다시 그리도록 했는데 어떻소. 비슷하오?》

《예, 수령님. 정말 꼭 같습니다.》 하고 송죽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씀드렸다.

《우리 화가들이 정말 재간들이 있거던.》

젊은 화가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

는 그에게 어디서 사는가고 물으시었다.

《당의 배려로 락원거리 세칸짜리 고급살림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가가 기쁨에 넘쳐 자랑스럽게 말씀올리자 수령님께서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동무는 세칸짜리 고급살림집에서 살고 있는데 동무의 주인공인 항일의 이 로투사는 단간방에서 살고 있는것으로 만족하고 있소. 그들은 누리는것보다 바치는것을 락으로 삼는 사람들이거던.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말ियो. 조국이 없으면 단간짜리 집에서의 행복도 없다는것을 벌써 그 시절에 체험했기때문ियो. 그래서 조국을 찾기 위해 청춘을 바쳤고 조국의 번영을 위해 한생을 바치고 있는거요. 젊은 세대들은 혁명선배들에게서 이 정신을 배워야 하요... 동무들, 고맙소. 밤이 퍼그나 깊었는데 어서 돌아가 쉬시오. 나도 발편잠을 자겠소.》

문가로 천천히 걸어가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었다...

며칠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홍범, 채성옥부부를 포옹해주시며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내 다 들었소. 한생을 하모니카를 불며 살아왔다지. 제일 힘든데서 일하며 수많은 당원들을 키워내고 언제나 계획을 넘쳐하고... 동무는 1차 북만원정을 갔다온후부터 오늘까지 한평생을 원정대 1번수로 살아왔소. 나는 이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당 총비서로서, 이전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으로서 동무네 부부에게 감사를 드리오.》

홍범과 성옥은 위대한 태양의 크나큰 품에 안겨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다.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립춘추의 가슴에서도 세찬 걱정과 파도가 일고 있었다.

(수령님, 수령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빨찌산사령관이시고 저희들은 수령님의 영원한 빨찌산전사들입니다!...)

몇년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사 홍범을 잊지 못하시여 불후의 저작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그때 70고령이었던 그는 전승분주소에서 수위로 일하고 있었다. 집도 소박한 단간방이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난 새 세대의 연주가들이 3칸, 4칸 되는 새집으로 이사갈 때에도 항일장정의 풍랑속에서 온갖 고생을 다한 유격대하모니카수는 그 단간집에서 사는것으로 만족하였다. 홍범은 그 이상의 특대나 특전을 바라지 않았다.

우리의 항일전쟁참가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

명언해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김일성**조국이며 우리 민족은 **김일성**민족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이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이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 가장 높이 빛나게 된다. 오늘 우리 조국과 민족이 지닌 존엄과 영예는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위인 중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존엄과 영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모든 품격과 자질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걸출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수난많은 력사를 끝장내고 룡성과 번영, 자주와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신 건국의 아버지, 민족의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 세상에 존엄떨치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공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조국의 상징,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 이시며 우리 사회주의조국은 위대한 **김일성**조국,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민족이다.

공화국기발

오피천

나는 들었다
전승의 광장을 넘어
9월의 하늘가에 휘날리는
우리의 공화국기

나는 높이 들었다
대담한 공격전으로
거창한 변혁으로
강성대국 령마루로 힘차게 날아오를
우리의 공화국기

우리 삶의 요람인
공화국을 없애려 달려든
미제국주의자들과 맞서싸워
조국을 수호하고
조선인민의 본때를 보인
조선의 기발

우리 행복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를 빼앗으려는
제국주의의 검질긴 야망을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박살낸

혁명의 가치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결전장마다에 나뻗겨
총탄에 뚫리고 폭풍에 찢기면서도
공화국의 권위를 떨쳐온
존엄의 상징
아, 우리의 공화국기

조국의 자주권을 지키는
포성없는 전투장마다 휘날려
눈비에 젖고 피땀이 배인
애국의 가치
아, 우리의 공화국기

세상에 이보다 성스러운 기발은 없다
존엄의 상상봉
위력의 하늘끝
승리와 영광의 55년이 실려있는
김일성조선의 가치
아아, 우리의 공화국기발이여!

《애국가》에 깃든 사연

람홍색공화국기발이 기세차게 퍼덕이는 9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울려 퍼진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런 55년 역사를 담아내고, 선군의 위력으로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기개를 담아내고 세기의 하늘가에 메아리쳐 울린다.

그러느라니 어버이수령님께서 《애국가》를 공화국과 더불어 길이 빛날 조국찬가로 완성시켜주시던 역사의 그날들이 감회깊이 돌이켜진다.

주체36(1947)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창작된 《애국가》에 대한 심의를 할때 있던 일이다.

이날 북조선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창작가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노래의 구절들을 짚어가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시다가 문득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시행부터 그아래는 반복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번만 부를수 있겠는가, 다시한번 부르면 선물로 보아서도 더 효과적이고 음악상 조화도 잘될뿐만아니라 노래도 한결 장중해지고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공지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창작가들은 그제서야 저마다 무릎을 쳤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문화로 찬란한 우리 조국과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다시금 가슴을 찔렀던것이다.

사실 그것은 창작가들이 《애국가》창작을 시작하던 그날부터 절감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 인민에게 당당한 우리 조국의 노래, 국가를 주어야 할것입니다.》

한해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몇몇 창작가들을 몸소 부르시여 해방된 우리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제손으로 정권을 세우고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있는데 아직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곧 애국가를 써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창작가들은 가슴이 뛸뛸이 시작했다.

애국가, 듣기만해도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달아오르는것만 같았다.

허나 애국가는 제목부터가 너무나 숭엄하고 벽

찬것이어서 창작과제가 아름답게만 느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듯 나직한 어조로 우리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산들은 기세차고 장엄하다, 들에는 �곡백과가 무르익고 지하자원도 무진장하다, 그리고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인민이며 찬란한 문화로 빛낸 인민이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우리 강산을 피로써 지켜 외적을 물리쳤고 항일빨찌산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를 반대하여 목숨바쳐 싸웠다, 오늘은 근로인민이 정권을 자기손에 틀어쥐고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과 슬기로운 투쟁전통을 가진 인민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노래에 담아야 하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창작가들을 흥분시켰다.

그것은 단순히 이제 지을 노래의 시상에 대한 흥분만이 아니였다.

그이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마다에서 우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한없는 긍지를 받아안았기때문이었다.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서 받은 충동을 그대로 가사와 선물로 옮기여 《애국가》를 창작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시금 《애국가》를 열렬한 조국찬가로 되도록 완성시켜주시는것이였다.

회의실에는 끝없이 통성번영할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더불어 길이 전해갈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조국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을 담아 《애국가》의 선율이 장중하게 울려 퍼졌다.

...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태어나 세기와 세기를 넘어 오늘도 울려 퍼지는 《애국가》!

이 노래를 부르며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김일성** 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해 힘차게 나갈것이다.

내 바라본 첫 푸른 하늘

홍현양

공화국기여

나는 끝없이 밟고 싶어
눈부신 너의 빛이 흘러내리는 땅
너의 별이 빛나는 모든 곳을
염소떼 구름인양 오르는 풀판을

나는 걷고 싶어라

싱그러운 바람에 옷자락 날리며
네 기폭의 한끝을
어머니의 손목처럼 꼭 붙잡고
끝없이 끝없이 가고 싶어
고향의 정든 자드락길을

내 태출물은 발이랑은

나라없던 설움의 땅
비물이 멀어지던 벼짚이영아래
내 첫 걸음마 땀 때
바라볼 한조각 하늘도 없었구나
걷고 싶은 한줄기 오솔길도 없었구나

공화국기여

우리 수령님 조국의 운명으로
너를 안아올리실 때
나는 다섯살
너는 내 바라본 첫 푸른 하늘

아버지, 어머니

고향집지붕우에 너를 띄우며
옷소매로 닦은 더운 눈물
내 철없이 뛰놀던 작은 트랙을
걸어도 걸어도 못다 걸을
내 운명의 길로 적시었구나

공화국기여

너는 내 걸어온 그 운명의 길
너는 내 받아안은 행복의 빛
격전의 언덕에서
아버지가 한몸에 덮고간
너는 내 몸에서 쉬임없이 끓는 붉은피

열병식광장

《애국가》의 선율속에 너 오를 때
어쩐지 말없이
내 두눈에 맺히는 뜨거운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옷소매를 적시던
그 눈물임을 나는 알았구나

아, 내 오늘은 예순나이

그러나 공화국기여
네 사랑앞에 나는 여전히
다섯살
네 사랑앞에 다 보답못한
나는 철부지

그래서 걷고 싶은 길이

아직 너무도 많아
그래서 땀흘리며 가야 할 곳이
지금도 쉬임없이 나를 부르고 있어
끝없이 끝없이 가고 싶어
장군님 가시는 선군길따라
공화국기여, 너를 날리며...

너는 언제나 청청하리라

내 바라본 첫 푸른 하늘인
람홍색 그 빛발

내 아들이 틀어잡은 총대우에

불길로 타리라
네 빛발아래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양을 알고 쉬이 잊지 않으리라

어머니의 손목처럼 꼭 붙잡고

끝없이 끝없이 가고 싶은
공화국기발이여
너의 별이 빛나는 모든 곳에
나의 노래 주추돌로 고이리라
생의 시작처럼 티없이 바치리라

록저이야기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한 외국대표단은 금수산의사당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그이의 건강을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 진귀한 재료로 만든 수저를 선물로 올린적이 있었다.

그들은 수령님께 선물수저의 신비한 효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직접 사용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사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이 돌아간후에도 그 선물수저를 생각깊은 눈길로 보고 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일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참 지성어린 선물입니다. 나의 건강을 넘려하여 그들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수저이상 애용품이 없을것이고 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서도 수저이상 없을것입니다. 나에게 처음으로 저가락을 선물로 준 사람은 김정숙동무였습니다. 그 저가락은 사슴뿔로 만든 록저였습니다. 록저로 식사를 하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나는 처음 그 록저를 김정숙동무가 어디서 구해온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보니 그 록저는 김정숙동무가 직접 만든것이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정숙동지께서 록저를 만들던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그 언제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으랴만 고난의 행군은 참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고한 혈전의 길이었다.

바로 이때 있는 일이라고 한다.

항일무장대오에 서신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과 건강을 보장해드리라는것을 혁명의 첫째가는 중임으로 여겨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록저의 신비한 효능에 대하여 알게 되시자 사슴뿔을 구하여 수령님께 꼭 록저를 만들어올릴 결심을 품으시었다.

예로부터 사슴은 장수의령물로 여겨왔다. 옛글을 보면 1,000년을 산 사슴은 청록이 되고 그 청록이 500년을 더 살면 백록이 되며 백록이 또 500년을 더 살면 흑록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런 사슴의 뿔만 얻으면 불로장생한다고 하였다.

아마 이 세상에 아름다운 전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동물이 사슴일것이니 우리 나라에서만 놓고보아도 고구려 동명왕의 소원을 하늘에 전하는령물로 흰 사슴이 나오며 고려시기 명장 서희장군의 가문이야기도 사슴과 련결되어있고 팔선녀전설에서도 나무군총각을 선녀에게로 안내해주

는 전령으로 사슴이 등장한다.

불교와 도교에서는 사슴이 학과 더불어 신선들이 타고다니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되어있다.

사슴은 또한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장생과 신비스러움의 상징으로 삼고 있으니 그리스신화속의 녀신들도 사슴을 벗어나 다닐 때가 많으며 중세 그리스도교의 미술에서도 사슴을 즐겨 화폭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또한 선사시대로부터 고대, 중세에 이르기까지 수렵도에서는 사슴이 빠져본적이 없다. 우리 나라의 고구려벽화에서도 제일 많이 찾아볼수 있는것이 사슴이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아마도 사슴의 민첩함과 아름다움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슴이 가지고 있는 신기한 약효때문이기도 할것이다.

사슴의 뿔은 록용이라 하여 제일가는 약재로 치며 꼬리와 내장들은 록미, 록태, 록혈, 록죽으로 아주 귀하게 쓰이고 지어 사슴의 잔등가죽밑에 생기는 등예의 알까지 세상 으뜸가는 청열제로 쓰이고 있으니 실로 사슴에게 있는것은 어느것이나 신기한 약재가 아닌것이 없다.

그러니 사슴뿔로 만든 록저가 어찌 희귀한 약효를 가지지 않을수 있겠는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록저를 만들어올리려고 결심하신것은 이런 까닭에서였다.

고난의 행군을 앞둔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사냥군로인이 사슴을 잡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자 지체없이 그곳으로 떠나시었다.

30리도 훨씬 넘는 먼길이었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밤으로 목적지에 이르시어 사슴뿔을 얻으시었다.

사냥군로인은 사슴뿔을 얻고 것처럼 기뻐하시는 김정숙동지를 의아한 눈길로 보며 물었다.

《너군사님은 이 사슴뿔을 어디에 낀히 쓰시려구 그렇게 기뻐하시우?》

《로인님, 사슴뿔로 만든 저가락이 사람의 건강에 좋다고 하기에 이것으로 록저를 만들자고 합니다.》

《아무렴, 록저야말로 귀물이지요. 그런데 그걸 만드는데 그렇게 쉽지 않체다. 나도 록저를 만들려고하다가 종시 만들지 못한 사람이웨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정성이 없이는 안되우다. 헌데 산에서 싸우는 너군사님이 어떻게 만드냐고 그러시우?》

《로인님,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정성이면 못해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마시고 록저를

만드는 방법이나 좀 대주세요.》

사냥군로인은 김정숙동지의 얼굴을 한참이나 보더니 그이의 확고한 결심을 읽었는지 감심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렇다면 대드리라. 우선 록저를 만들자면 사슴뿔을 흙속에 묻어 기름기를 말짱 뽑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열흘 스무날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몇달은 잘 걸립니다. 또한 그 사슴뿔을 묻은 곳엔 벌레나 잡스러운것들이 범접하지 말아야 하는것은 물론이구 냄새를 잘 맡는 산짐승들이 파헤치지 못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김정숙동지께서는 로인의 말을 들으시고나니 첫 순간 난감한 생각이 드시었다.

정착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수백리씩 이동하며 전투를 벌리는 유격대생활에서 사슴뿔을 묻고 몇달동안 지킨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것이였다.

이때 로인의 말소리가 울리었다.

《너군사님, 오늘은 사슴뿔을 나에게 맡기고 그냥 가시우. 내가 좋은 땅에 묻었다가 줄테니 걱정마시우다.》

《로인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동안 기다릴수 없습니다. 록저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해내겠어요.》

《아니우다. 그렇게 할순 없습다. 내가 잘해줄테니 그냥 두고 가시우.》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냥군로인에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고 그 길로 사슴뿔을 가지고 돌아서시었다.

그후 그이께서 어떻게 록저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록저를 만들어 드린 다음에 친솔부대성원들속에서 돌아간 이야기로 추측해보는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에 의하면 김정숙동지께서는 배낭에 흙을 넣고 그속에 사슴뿔을 묻어서 지고 다니시었다는것이였다.

그때부터 김정숙동지의 배낭이 예전보다 더 커졌고 행군휴식때면 외판곳으로 가시여 내려놓고 무엇인가 하시곤하였는데 그 자리에 가보면 언제나 쏟아 버린 흙과 새흙을 판 자리가 있곤하였다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의 배낭이 친솔부대에서도 제일 크고 무거웠다는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수령님께 대접할 여러가지 조미료와 산나물들, 사령부작식도구 등으로 하여 그이의 배낭은 항상 터질듯 팽팽하였다.

오죽했으면 한 항일투사가 《김정숙동지가 행군대오의 뒤에서 따라올 때면 짐이 너무 많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배낭과 작식도구만 보였다.》고 회상하였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크고 무거운 김정숙동지의 배낭이 눈에 띄게 더 커지고 무거워진것이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배낭을 들어주겠다는 그누구의 청도 받아주지 않으시었다.

고난의 행군의 간고한 나날 적들의 추적이 발뒤꿈치에 달리고 총알이 비발치듯 할 때에도 배낭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으시었다.

한번은 뒤에 바짝 따르는 적들을 죽쳐버리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고 부대에서는 명사수들로 저격수조를 조직하였다.

명사수로 이름난 김정숙동지께서 저격수조에서 빠질리 없었다.

은밀성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저격수조인지라 김정숙동지께서는 배낭을 내려놓고 준비를 갖추시었다.

그러는사이 언제나 도와드릴 기회만 노리던 녀대원들이 그이의 배낭을 들고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얼마나 무거운지 도저히 쳐들수 없었다. 부대에서 《너장수》라고 소문난 녀대원도 그것을 들지 못하였다. 보총끝에 보총 한정을 더 걸어놓고 한손으로 꼬나들어 남대원들도 입을 딱 벌리게 하던 그였으나 김정숙동지의 배낭만은 팡뽕을 못하였다.

그런데 준비를 갖추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배낭을 별로 무겁지 않게 들어올리는것이였다.

모두들 너무 놀라와 말도 못하는데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배낭을 둘러메고 대렬후미로 바람같이 달려가시었다.

《진짜 너장수는 정숙동무였구만!》 하고 모두 감탄할 때 대렬후미에서는 바짝 따라오던 적들에게 명중탄을 퍼붓는 총소리가 터졌다.

얼마후 총소리가 멎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시 돌아오시었다.

녀대원들은 그이의 등에서 배낭을 벗겨드렸다.

그런데 배낭은 방금전보다 훨씬 가벼워져서 누구나 들수 있었다.

배낭을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배낭밑에서 커다란 총알구멍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시는것이였다.

《흙이 다 새버렸군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보물이라도 잃으신듯 몹시 아쉬워하시며 배낭에 난 총알구멍을 급히 기우시더니 눈을 헤치고 흙을 파내어 배낭에 넣으시었다.

거의 반배낭이나 되게 흙을 넣고는 아구리를 푹푹 동여매시었다.

그러자 배낭은 다시 누구도 들수 없이 무거워졌다.

헌데 김정숙동지께서는 배낭을 가볍게 들어주시더니 《이제는 됐어요.》 하고 바람같이 대렬을 따라 달려 가시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배낭을 고난의 행군 전기

간 100여일동안이나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고 다니시었다.

그이께서는 고난의 행군이 끝날무렵에야 흠을 털어버리시었다. 사슴뿔을 꺼내보니 기름기가 많 짱 빠지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매우 기뻐하시었다. 그때부터 그이께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슴뿔을 갈고 쓸고 하시었다. 실참은 물론 행군하실 때에도 주무실때에도 손을 멈추지 않으시었다.

그후 열흘이 지나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록저를 드리시었다.

그것은 조국진군의 봄빛이 수림속에 차넘치던 북대정자에서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었다가 말씀을 이으시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안 다음부터는 그 록저를 무심히 쓸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록저생각을 하면 가슴이 빠근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그 록저를 들기만해도 온몸이 훈훈해지며 힘이 솟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록저를 사용하신 기간은 김정숙동지께서 록저를 만드시기 위하여 바친 기일보다도 더 짧았다.

그 시절에 수령님을 만나뵈려고 온 항일련군의 한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시는 록저를 보며 몹시 놀라와하였다.

《이 록저는 참으로 진귀한 보물입니다.》

그는 록저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은 사람이였다. 자기 집에도 가보로 전해지는 록저가 있었었다고 하면서 그는 감정가의 눈으로 록저를 한동안이나 이리저리 살펴보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틀림없이 3년 석달 1, 000여일을 가장 깨끗한 흠에 묻어 기름을 빼고 만든 록저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정성들여 만든 록저를 써본 사람은 아마 중국의 황제들중에도 없을것입니다. 조선인민들이 김사령을 얼마나 경모하며 따르는지 이 록저를 통해서도 잘알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크게 웃으시며 그렇게 아니라 100여일간 흠배낭속에 묻었다가 꺼내어 만든 록저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시었다.

《아니, 절대로 그럴순 없습니다.》

항일련군 지휘관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100일동안에 이렇게 깨끗이 기름이 빠지고 굳어질수가 없습니다. 내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가장 깨끗한 흠속에서 천일양생한

록저입니다. 이런 록저로 식사를 하면 소화안되는 음식이 없고 풀도 고기처럼 영양가높은 음식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휘관이 하도 부러워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록저를 건강이 좋지 못한 그에게 선물로 주시었다.

그 지휘관은 처음에는 펄쩍 뛰며 사양하였으나 마지막에는 받지 않을수 없었다.

《내 이 록저를 김사령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의리로 알고 받겠습니다. 내 한생을 마칠 때까지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고 김사령님의 우의를 생각하겠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 지휘관은 그 희귀한 록저를 사용한 다음부터 몸도 훨씬 건강해지고 더 잘 싸웠다고 한다.

그는 우리 나라가 해방된후에 위대한 수령님을 뵈오려 평양에 나온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얼마동안 휴양을 하였는데 바로 그곳이 남포시에 있는 우산장이라고 한다.

일제때에는 돈많은 놈들의 놀이터이던 그곳이 그때에는 우리 나라의 첫 로동자휴양소로 되어있었던것이다.

당시 그 휴양소에서 관리원을 한적이 있는 늙은이의 말에 의하면 그 항일련군지휘관은 식사할 때마다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온 류별난 저가락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저가락이 분명 록저가 아닐가.

그 지휘관은 생을 마칠때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수령님께서 주신 록저를 보여주며 천하 제일가는 귀물이라고 장담했다니 말이다.

사연깊은 록저이야기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말을 듣는 사람마다 둘우에도 꽃을 피우는 김정숙동지의 그 극진한 지성이 100일을 1, 000여일이 되게 하였다고 감탄하군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에 참가하였던 전우들은 그때의 하루하루가 보통날의 1, 000여일에도 비길수 없는 비상한 나날이었기에 그런 기적을 낳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이의 눈가엔 축축히 눈물이 맺혀있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외국대표단이 올린 선물수저가 매우 좋다고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이것을 자신께서 사용할수 없다고, 후손만대에 전해갈 인민의 재산이니 국제친선전람관에 가져다 잘 보관하라고 하시었다고 한다.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시어

최길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당의 기초 축성시기에 이룩하신 문학령도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혁명문학은 명실공히 수령을 형상한 문학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의도대로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요구라고 지적하시면서 당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 사실주의문학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데서 근본적인 고리를 놓치고 있는것은 없는가, 만일 놓치는것이 있다면 우리의 새로운 혁명문학에서 그것을 찾고 개척해나가야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문학에 대한 불멸의 령도의 자욱을 새겨가시던 1960년대중엽에 하신이 말씀에는 로동계급의 혁명문학발전의 전로정을 로동계급의 문학의 기본사명의 견지에서 깊이 분석하시고 그 근본요구를 천명한 매우 심오한 뜻이 깃들어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할 사명을 지니고 발생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당성을 생명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 근본고리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당성구현에서 매우 낮은 단계에 있었다.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에서 당성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평가된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곧 수령의 혁명위업이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문학은 바로 수령의 위업수행에 복무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고 있기때문이다.

지난날에는 당성에 대하여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옳게 리해하지 못하고 그저 당사업에 문학예술이 복무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론의와 리해의 범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므로 선행한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은 수령형상문제를 당성구현의 근본사명으로 보지 못하였으며 이 문제를 옳게 해명할수 없었다. 결국 지난시기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로동계급의 혁명문학건설에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놓쳐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포착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제한성으로 하여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

학에서는 수령형상문제를 근본핵으로, 그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로 제기하고 해명할수 없었다. 더우기 혁명의 배신자들이 수령의 권위와 혁명업적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문학예술에서 수령형상 창조문제를 로골적으로 반대해나서고 있던 사정과 그리고 리론적준비의 미숙성은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근본생명의 핵을 놓치고 자기 발전의 공백을 남겨놓게 되었다.

국내적으로 볼 때도 세계적판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파동의 영향으로 하여 우리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분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그 위업수행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역할을 거세하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고 있던 조건에서 수령형상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해나갈수 없었다.

로동계급의 혁명문학발전에서 근본고리로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인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문제는 오직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의 생명에 관한 문제로 제기됨으로써 비로소 주체사실주의 문학에서 그 전면적해결의 위대한 서곡이 울리게 되었다.

여기에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위대성이 있으며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성이 있으며 당의 기초축성시기에 우리 문학을 령도하시어 쌓아올린 가장 큰 업적이 있다.

우리 문학에서 수령형상창조문제를 그 운명과 관련되는 생명의 근본핵으로 보시고 그를 주체문학의 기본의 기본으로 규정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언에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뜻이 뜨겁게 깃들어 있다.

일찌기 어린 시절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안녕을 축원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의 수령》, 《우리 교실》, 《축복의 노래》를 창작하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충성의 신념을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 웅심깊고 격조높게 구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주체사실주의문학으로서의 자기의 근본사명을 다하고 그 면모를 확고히 갖추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우리 주체문학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의 해발을 받으며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혁명문학건설에서 근본고리를 정확히 찾아쥐게 된 우리 주체문학은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여 새로운 자기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의 빛발아래 우리 문학은 수령형상창조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거창한 위업을 수행하는 최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문학에서 수령형상창조문제를 우선 소설문학에서 빛나게 해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투쟁의 전 로정을 포괄하는 혁명소설을 창작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고향집을 떠나신 때로부터 백두산을 넘나드시며 전개한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폭넓게 반영하여 소설을 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하는 혁명소설을 창작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주체적인 소설문학의 근본창작방향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근본요구와 수령형상창조의 사상미학적특성에 맞게 수령형상창조문제를 장편소설에서 해결하도록 하시었다.

장편소설은 그 어느 문학형식보다도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측면들을 포괄하는 공간적넓이를 가지고 인물들을 보다 전면적으로 그리며 그 성격들을 보다 다방면적으로 부각할수 있는 형상적가능성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장편소설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수령의 혁명업적을 생활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식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수령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 그 뇌수로 되고 있는것만큼 수령은 혁명전반을 령도하며 그 활동은 무한히 넓고 심오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전반적인 생명활동을 지휘하고 령도하는 수령의 역할은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 집단의 구성부분인 인민대중의 개별적인 생활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다.

수령의 혁명활동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수령의 혁명위업을 전면적으로 형상할수 있는 창작실천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식이 장편소설이라고 말할수 있다. 장편소설이 가지고있는 형상방식의 우월성은 수령형상을 수령의 혁명활동내용의 심오성과 감동성, 그

위대성에 맞게 창조할수있게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편소설로 수령형상을 전면적으로 창조할데 대한 구상을 하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가장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밝혀주시었다.

장편소설이 수령형상창조의 적합한 형식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숭고한 품모를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형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탐구와 사색, 비범한 예지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여러 권의 장편소설들의 큰 묶음인 총서형식의 장편소설에 형상할 새로운 길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몇권의 장편소설로 형상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때문에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몇개의 시기로 나누어 매 시기별로 서로 다른 제목을 달아 다부작형식으로 만들수도 있고 수령님의 혁명력사전부를 포괄하는 하나의 총제목안에 주제별로 혹은 시기별로 유일번호를 달아나갈수도 있을것이라고 가르치시었다. 그러나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위대성으로 보나 그 방대한 내용으로 보나 총서형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것같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총서형식으로 하면 매 장편소설들이 각기 자기의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면서도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을것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한 장편소설들을 수령님의 위대성과 혁명업적에 맞게 총서형식으로 쓰되 여기에 속하는 매 장편소설들이 독자성과 특색을 가진 하나의 완결된작품으로 되어야 한다고 밝혀주신것은 인류문학사상 전례가 없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방침이다.

총서형식의 장편소설은 수령형상창조에서 일대기식, 전기식을 철저히 피하면서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생애와 혁명활동에서 있는 중요한 모든것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형상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형식이다.

깊이있는 탐구와 빛나는 예지로 이 모든것을 투철하게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하는 장편소설을 총서형식으로 묶을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그 제목을 《불멸의 력사》로 하도록 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서의 총제목을 《불멸의 력사》로 규정하여주신것은 총서형식의 전일성과 일관성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으로 되며 총서의 총적인 종자에 대한 탁월한 해명으로 된다.

참으로 총서 《불멸의 력사》의 탐구와 개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형상을 가장 훌륭히 창조하여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충성심과 원대한

뜻의 빛나는 구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념원, 로동계급의 혁명문학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수령형상창조를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시었을뿐아니라 이를 당문에정책의 기본으로 정책화하고 그를 전문으로 하는 4.15문학창작단을 내오도록 하여주시었다. 이것은 수령형상창조에서 일대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4.15문학창작단이 창립됨으로써 수령형상창조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되었으며 총서 《불멸의 력사》를 주체사실주의문학의 귀중한 재보로 빛나게 장식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이 최상의 사상에술적경지에서 창작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과 《1932년》의 초고가 나왔을 때 이를 지도하여주시고 작품의 종자를 바로 잡아주시었으며 작품들이 철학적깊이가 있고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이 감명깊이 반영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심의본)에서는 1920년대후

반기 길림지구를 중심으로 한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시기를 반영하면서도 근본문제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파악하지 못한데로부터 작품에 종자를 바로 심을수 없었다는것을 통찰하시고 이 작품에서 종자는 주체사상의 출발점이라는것을 밝혀주심으로써 작품이 철학적깊이가있는 명작으로 창작완성되게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창작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수령형상론의 미학실천적요구가 투철히 구현된 명작들로 창작되도록 구체적이고도 정력적인 지도를 하시었다. 이리하여 오늘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을 비롯하여 소설, 시, 아동문학 등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창작되고 있으며 주체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세차게 굽어치고 있다.

더우기 새로운 선군시대를 맞이한 우리 문학은 수령형상창조의 고유한 생리와 지난시기의 창작경험에 토대하여 선군령장의 위대한 형상을 창조하는데 형상의 화력을 집중하면서 수령형상문학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

이 땅우에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공화국창건 55돐과 더불어, 승승장구하는 주체문학의 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죽가마

리진철

불길 사그러지는 숯덩이를

열핏 손에 쥐었다가도

흠칫 놀래며

귀가에 손을 가져가는 사람들아

그 손에 쥐여보라 달아오른 쇠가마를

그리고 이어보라 물이 끓는 그채로

전딜수 있는가?

전딜수 있는가?

이런 죽가마를

김정숙어머님 머리에 이시고

총탄이 비발치는 고지에 오르셨고

싸우는 전우들의 전호가를 누비셨거니

펄펄 끓는 죽가마가 차거웠는가

어머님의 그 심장이 뜨거웠는가

어머님의 머리우에서

더 세차게 끓어올랐던 죽가마여!

아, 동지란 무엇인가를

사랑이란 정녕 무엇인가를

내 심장에 깨우쳐주는 죽가마!

오늘도 세차게 끓어오르는 죽가마!

나의 조국

김상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 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리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것

조국이어!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어질 듯 젖어드는것이냐

어찌하여 때로 이국의 거리를 거닐다가도
문득 솟구치는 그리움에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와
너를 안는것이냐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박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녀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심하신 고향어머니
모래불에 덩굴던 어릴적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지난날 네 그리 가난하고 억눌려
슬픔과 고통만을 줄 때에도
너의 운명으로 내 가슴이 아팠고
살길 찾아 너를 떠나면서도
눈물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거니

조국이어, 너는 무엇이기에
저 눈덮인 이국의 광야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면
두고온 네 하늘이 그리도 푸르려

살아서 너를 떠나간이들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했더냐

한번 너를 잃으면
네게로 돌아가는 길 그리도 멀어
피로써 눈보라 만리길을 헤쳐야 했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야 했거니

조국이어,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너의 한치땅을 위해
애어린 청춘들 웃으며 꽃처럼 졌고
쓰러지면서도 못잊어
두팔가득 너를 그려안고 갔더냐

한줌 흙속에
너를 싸안고 간 투사들도 있었더라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눈감고
너의 모습 그려본 너대원도 있었더라
아마도 조국은 어머니...

그렇다,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기여 사는 영원한 품

그것은 그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
맑은 거울앞에처럼
부끄러움없이 그앞에 서기 쉽지 않으리
오직 그의 영광속에 그대의 삶이 있고
그를 저버림은 곧 그대의 죽음인
조국이란 그러한것

뜨거운 심장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전에는!

오, 조국이어 조국이어
너는 손이 닳도록
쓰다듬고싶은 우리의 땅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더 바라보고싶은
우리의 푸른 하늘

조국이며
 그때문이 아니냐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더하고싶어
 하루를 십년으로 살고싶은 이 갈망은
 지혜와 힘과 뜨거운 열정을
 있는껏 다 쏟아바치며
 바치는것이 기쁨인 이 아름다운 삶은

가는 곳마다 들끓는 생활과
 끊임없이 탄생하는 환희의 노래
 강도를 굽이치는 철의 흐름우에
 소용돌이치는 열풍을 안고

조국이며, 너는
 세기의 하늘높이 나래쳐오르는
 세찬 퍼덕임
 그 아득한 높이의 빛발

찬란한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온갖 시름 잊은 얼굴들이
 로동의 기쁨 안고 돌아오는 락원의 거리
 무수한 배움의 창문을 비쳐드는 해살과
 보육원들이 지켜선 애기들의 고요한 숨결...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긍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조국이며 나의 조국이며

(1979)

위대한 령도, 불멸의 업적

서정시의 비상한 감화력과 생명력을 두고

김해월

문학작품의 생명력은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
 에게 새로운 뜻과 의미를 깨우쳐주는데 있다.

서정시 《나의 조국》(김상오작)은 선군혁명령도
 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조국애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진실하게 시화하여
 보여준 서정시의 본보기작품으로서 비상한 감화
 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서정시 《나의 조국》을 보
 시고 이 서정시는 조국을 노래하는데서 정치적표
 현을 많이 쓰면서 사실을 지내 로출시키던 지난
 시기의 결합을 극복하고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
 랑과 수령에 대한 흠모의 정이 구체적인 생활과
 정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흘러넘치게 잘 썼다고 높
 이 평가해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조국애를 노래한 우수
 한 작품으로서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형상한 본보기로 된다.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
 을 읊은 시가 많지만 서정시 <나의 조국>처럼 조
 국애를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훌륭히 노래한 작품은 흔치 않다.》

우리 시문학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을
 통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범한 예지로
 우리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자면 시대의 주도적
 감정을 깊이있게 담아야 한다고, 여기서 특히 중
 요한것은 당의 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받아안고
 제때에 풀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감정세
 계를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
 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사랑과 보살핌속에

시대의 명작으로, 조국을 노래한 본보기작품으로
 꽃피난 서정시 《나의 조국》.

서정시 《나의 조국》은 시인이 남다른 인생체
 험을 통해 체득한 조국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혁
 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감동깊게 형
 상한 시인의 인생의 총화작, 그의 생애에서 소중
 히 자리잡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기념비라
 고 할수 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조국애를 노래하였지만
 단순히 나서자란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이 아니
 라 인간의 자주성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
 장된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며 조국
 에 대한 사랑을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생활적
 으로 감동깊게 형상하고 있다.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긍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조국이며 나의 조국이며

우리의 삶과 긍지의 원천인 조국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다. 시인이 세상을 향하여 터친이
 심장의 토로는 서정시 《나의 조국》의 사상적핵
 이다.

서정시에서는 이 심오한 사상이 구체적인 생활
 화폭으로 생동하게 진실한 감정을 타고 뜨겁게
 안겨오고 있다.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어터져서
...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너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때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출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노예의 삶, 망국의 설움이 비긴 조국을 구원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력사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마련된 삶의 환희가 생동하게 안겨오고 있다.

조국은 민족의 삶이 꽃피어나는 아름다운 강토이며 아름답고 숭고한 어머니품이다.

서정시는 나라를 빼앗긴 탓으로 망국노의 슬픔과 고통을 당하던 그 시절 사람들이 눈물속에 바라보던 조국의 푸른 하늘 그리고 한줌의 흙과 한떨기의 진달래꽃, 눈덮인 이국의 광야와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서 숨진 사람들, 조국해방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혁명선열들에 대한 생활적표상을 불러일으켜 조국의 귀중함을 정서적으로 더욱 깊이 느끼게 하고 있다.

서정시는 조국이란 거대한 운명을 규정짓는 데 없이 귀중한것임을 과거 망국노의 비극적인 생활정서와 인민의 애국적인 생활정서로 느끼게 한다. 서정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의 귀중함을 정서적으로 깊이 체험시키면서 조국은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치시여 찾아주신 거대한 영원한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그속에서사는 영원한 품이라고 그 무궁한 뜻을 노래하고 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이 귀중한 조국을 지키는것이 애국자의 참다운 인간세계라는것을 감동깊게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안겨주고 있다.

한번 너를 잃으면
네게로 돌아가는 길 그리도 멀어
피로써 눈보라 만리길을 헤쳐야 했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야 했거니

참으로 서정시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교훈, 심오한 철학이 뜨겁게 맥박치고 있다.

조국을 한번 잃으면 피로써 눈보라만리길을 헤쳐야했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야 했다는 깊이있는 시형상은 우리 인민이 심장으로 터득한 심오한 철학이며 조국의 운명문제, 민족의 운명문제가 비긴 생활철학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찾아주신 조국

은 우리 민족의 참된 삶이 꽃피어나는 정든 고향이고 우리 민족이 사랑과 정으로 뭉친 운명의 공동체이다.

시는 조국을 가장 참되고 아름다운 영원한 삶의 원천으로, 조국의 아들딸들이 슬기와 용맹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가장 존귀한것으로, 미의 최고절정으로 그 숭고한 모습과 참 뜻을 시화하면서 사람들에게 애국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준다.

뜨거운 심장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전에는!

서정시는 뜨거운 심장과 진실한 사랑이 없이 부를수 없는 조국에 자기의 심장을 주기전에는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애국의 깊은 뜻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심장을 바쳐 조국을 지켜가는 우리 인민의 이 열렬한 애국적헌신성이 우리들자신의 억제할수 없는갈망이고 지향이며 기쁨이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이 숭고한 감정은 조국의 운명이 자기의 운명, 인민의 운명이라는 깊은 자각에 기초하고 있기때문에 그로록 소중한것이다.

조국의 운명에 대한 인민의 높은 자각과 애국적헌신성은 우리들에게 참다운 삶과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안겨주는 수령을 결사옹위하려는 신념과 의지의 표현이다.

조국을 사랑한다는것은 민족의 운명인 자기 수령을 심장을 바쳐 결사옹위한다는것임을 정서적으로 밝혀낸 여기에 서정시 《나의 조국》이 시대앞에 천명하고 있는 깊은 사상이 있고 심오한 애국철학이 있다. 참으로 서정시는 조국과 인생, 애국의 참 뜻을 형상적으로 깊이 밝혀냄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애국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되새겨보게 하며 공민적자각과 의무감으로 가슴불타게 한다.

서정시는 오늘도 모든 병사들과 인민들이 일심단결의 힘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의 전부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겨주며 사람들을 사회주의결사수호전에 떨쳐나서게 한다. 참으로 서정시 《나의 조국》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주도적인 감정세계를 반영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며 그 불패의 진리성을 확증한 생동한 실례이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시가 문학의 대전성기를 꽃피우신 탁월한 령도,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야 하며 선군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선군에 대한 생각에 젖어

전승일

태어나 서른이 넘어서
내 배운 말이였다
처음엔 낯설어
다시다시 씹어보며
간직한 말이였다

수만번 불러본
아버지 어머니란 말보다
이제는 더 소중한
목숨같은 진리로 새겨졌나니
너를 떠나 한초도
내 삶은 뛰지 못한다

선군
이 짙막한 두글자가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이 땅에 태어났느냐
뼈를 깎고 살을 에이며
이 강토우에 탄생했느냐

식어가는 강철로 동체를 불안고
사나이눈물을 터치던
나의 눈물을 닦아준 선군
빈 교대일지를 또 넘겨줘야 하던
그 차디찬 세월을 산산 깨치고
이 나라 만아들의 삶을 다시 찾아준 선군

아 눈보라치는 운명의 철령우로
파악 조항간을 부둥켜잡으신
그 사생결단의 야전차에 실려
너는 나에게 왔구나
나의 강철로에로 불을 실고 왔구나

섬찍한 땅 관문점
이 나라 천만인민들 울린
그 꿈이 서린 관문점 자욱을 따라
너는 나에게 왔구나
나의 아이들 창가에 노래를 실어왔구나

오직 한분 장군님앞에만은
명절도 일요일도 찾아오지 못한
준엄한 세월이여
그 밤도 없고 낮도 없이 굶이친 세월따라
이 나라 강토우에 아릅찬 행복을 실고
번영의 파도가 움썽움썽 물결쳐왔나니

조국을 일으켜세운 이 불패의 선군은
신념과 의지에 불을 달아
폭발적인 사랑과 정의로
우리 장군님 만들어내신것이다
오, 선군, 선군은 우리 장군님이시다

나의 조국이라 부를 때

김석주

단비가 내려 곡식들이 살지며 무르익어간다
왜 내 마음 이리도 기뻐지는가
조국땅 북변에서 새 발전소가 조업한다누나
왜 내 마음 이리도 벅차오르는가
이웃집 제대군인 막내가 대학에 간다누나
왜 내 마음 이리도 즐거워지는가
몇백리 물길이 열리고 멧쟁이 벌이 태어났단다
왜 내 마음 이리도 설레이는가
흰송아지를 낳고 신기한 새들이 날아들었단다
왜 내 마음 이리도 흥겨워지는가
가보지 못한 먼 산간지대에 무더기비 내린단다
왜 이리도 걱정스러워지는가
산불을 끈 병사가 심한 화상을 입었단다

왜 이리도 안타까워지는가
미제가 또 우리 공화국을 걸고 망발을 쉼쳤단다
왜 이리도 분노에 떨리는가
저 멀리 어디서 한줌 흙이 비물에 씻겨도
왜 내가 살을 꼬집힌듯 아픔을 느끼는가
이름모를 어느 숲속의 나무 한그루 꺾이여도
왜 내가 그 아픔을 느끼는가
나는 나라의 책임있는 일군도 아닌 보통사람
하건만 이 땅의 그 모든것 그 모든 일을 두고
왜 웃고 기뻐하고 걱정하며 분노하는가
사랑과 정을 담아 내것이라 부르는
내 거리 내 일터 내 땅 내 바다 내 하늘...
거기엔 피로 찾고 피로 지킨 붉은 선혈이 있다

거기엔 사생결단 험난한 전선길을 걸으시며
 우리 장군님 찍으신
 비물고인 자욱자욱이 있고
 헤쳐넘으신 숫눈길이 있고
 한평생을 바치시는 숭고한 애국의 넋이 있다
 내 이 성스러운 조국을 나의 조국이라 부르나니
 나의 조국이라 부를 때
 무한히 크고 가없이 넓고 끝없이 높은
 저 풍요한 땅, 저 푸른 바다, 저 맑은 하늘...
 조국이라는 그것이

나의 살속에 배겨있고
 나의 피속에 흐르고 있고
 나의 넋속에 숨쉬고 있기때문
 가릴수 없는 살과 피와 넋으로 엉켜있기에
 그 모든것에 웃고 기뻐하고 아파하고 분노하며
 그 모든 일에 관심하며 마음쓰며 운명을 같이
 한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 나의 조국이라 부르랴
 아아 나의 조국아

나는 이런 녀인들을 사랑한다

리명옥

사랑을 노래할 때 시는 아름다워지더라
 사랑의 노래가 시이기에-
 나는 지금 노래하고싶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시어를 골라
 저 녀인들을 노래하고싶다

허나 내 무슨 말을 고르면 다하랴
 나도 녀인임에
 가정과 남편과 사랑스런 딸을 두고
 날마다 행복의 꿈을 꾸는 나도 녀인임에
 영웅대회 높은 연단에 오른 저 녀인들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아름다운 저 녀인들의 삶에 대해...

장군님께 맹세한 105리를
 인생의 전구간으로 안고 달린 처녀
 그 길에 바쳐진 땀과 눈물을 생각해본다
 기쁨과 아픔이 뒤엉킨 그 105리를
 그대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하며 달리였다

소박한 말로 세벌작황을 말하는 녀인이여
 한해농사조차 짓기 어려운
 북방의 짧은 봄, 여름을 불려세우며
 그대의 손은 돌각담에 몇번이나 터졌던가
 몇번이나 비에 젖고 눈에 얼었던가
 새벽별보다 먼저 일어나
 그 손으로 따끈하게 지은 밥 아래목에 덮어둔
 녀인

단잠든 남편과 자식들에게 용서를 빌며
 녀인이 걸은 이슬젖은 돌밭길은 몇백, 몇천리라
 애타는 그 마음이 불려온 네계절 꽃향기
 무르익은 그 열매 향기속에 파묻혀
 녀인은 기쁨에 눈물지었더라
 훌륭한 어머니로 자식앞에 웃을수 있었기에

왜 이렇게 눈굽이 젖어드는것인가
 부르튼 입술이 채 아물지 않은 처녀연구사여
 피곤실린 그 무거운 탐구의 밤들을 이겨내며
 그대는 누구보다 행복한 녀인으로 성장했더라
 장군님 보내주신 사랑의 불사약으로
 두번 다시 태어난 그대는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녀인

참되게 살기 위하여
 어려운 길을 택한 녀인들
 나는 사랑한다 이런 녀인들을
 작은 편리화자욱이 찍혀진
 남다른 그 인생길을 나는 사랑한다
 조국이 힘겨워할 때 함께 피로워한
 발머리의 그 쪽잠을 사랑한다
 남모르게 떨군 그 방울방울의 눈물을 사랑한다

작은 어깨로
 조국의 큰 짐을 덜어드린 녀인들
 우리 장군님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한 녀인들
 그 녀인들이 지금 행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시대앞에 량심을 바칠 때
 찾아오는 행복이 어떤것인가를...

아, 이 나라의 녀인들이여
 우리 행복에 대해 쉽게 말하지 말자
 바친것이 없이는
 이 땅의 사나이들과 함께
 앞가슴에 금별메달 나란히 한 저 녀인들을 보라
 그대와 나 우리모두의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저 영웅메달을!

조국이며,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 《조선단편집》(1~5권)에 비친 조국의 모습을 그리며 -

고철훈

가없이 푸른 9월의 하늘가에 나뭇기는 람홍색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문득 조국에 대한 생각을
한다.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공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어질 듯이 젖어드는 것이냐
-시 《나의 조국》(김상오)중에서-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조국이란 뜨거운 심장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없이 부를수 없는 위
대하고 신성한 것이다.

우리 문학의 얼굴이라고도 할수 있는 《조선단
편집》(1~5권)에는 조국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
다. 단편집에 수록된 성과작들과 문제작들에는이
렇게나 저렇게나 조국의 모습이 비껴있으며 우리
조국이 걸어온 발자취가 력연히 찍혀져있다.

이제 《조선단편집》의 갈피를 더듬으며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려나.

조국의 참뜻

《조선단편집》(3)에 실린 단편소설 《조국》[리
호인작, 주체64(1975)년]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평양만수대예술단을 태운 특급열차를
향하여 이국의 외진 섬에서 령감내외가 공화국기
발을 힘껏 흔들며 《만세!-》를 높이 부르는 장면
이 있다.

... 《만세!-》

그것은 순간이었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들- 미에택과 령감은 그 짧은 순간에
자나깨나, 기쁨 때나 슬픔 때나 늘 마음속에서
그리워하며 힘을 얻던 조국-사회주의조국을 온
심장으로 보았던것 이다...

소설의 이 마감장면을 읽을 때마다 승엄한 감
정에 휩싸여 이렇게 되뇌이곤 한다.

(조국이며,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열차가 사라진 바다 건너 산기슭을 바라보며 너
력바위우에서 공화국기발을 흔드는 령감의 엄숙
한 모습이 우렁치 떠오른다.

오죽했으면, 조국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순간이
면 시야에서 떠날 조국예술단을 태운 기차를 그
토록 바래운단말인가.

소설은 솟구치는 그리움의 마음 달래일줄 모르
는 미에택과 령감의 형상을 통하여 인간에게서

조국이란 얼마나 소중한것인가를 절절하게 보여
주고 있다.

조국이란 외우기는 쉬워도 그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그야말로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승엄한 그 무엇》인 것이다.

그렇다고 조국이란 결코 꿈나라와 같이 아리송
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활
과 밀착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존재하
는 생동한 모습이다. 흔히 시나 가사에서 노래되
듯이 《고향마을 정든 집》, 《들꽃피는 그 언덕》,
《모래불에 덩굴던 어릴적동무》가 그대로 우리
의 마음속에 새겨진 조국의 모습이다.

조국에 대한 느낌은 구체적인 것이어서 사람마
다 같을수 없다. 나서 자란 시대와 사회적환경이
서로 다르고 생활력도 각이한것만큼 조국에 대
한 이해와 느낌도 차이날수 있다. 총을 쏜 병사
가 그리는 조국에 대한 생각이 땅을 가꾸는 농민
의 생각과 같을수 없으며 조국의 품속에서 행복
을 누리는 사람들과 이국살이하는 사람들의 조국
에 대한 생각 또한 같을수 없는 것이다.

《조선단편집》에는 조국의 모습이 각이한 시대
적 및 사회적환경과 주인공들의 구체적인 생활속
에서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형상되고 있다.

단편소설 《개벽》[리기영작, 주체35(1946)년]
에서는 토지개혁법령으로 이 땅도 사람도 천지개
벽을 이룩한 해방직후의 벅찬 현실을 통하여 새
조국의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
에 그려진 조국이란 봄맞은 대지이다. 전설적영
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해방의 새봄을 가져다
주시였고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실현된 봄맞은
대지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기약하는 인민의
기쁨의 씨가 뿌려진 것이다.

조국해방전쟁의 엄혹한 환경속에서 부모없는
고아들이 한집안식구로 자라는 가슴뜨거운 이야
기를 담은 단편소설 《우리는 친형제로 자랐다》
[로정법작, 주체65(1976)년]에서 은혜로운 사랑
의 품, 삶의 보금자리가 조국이라면 단편소설
《청년개척자의 수기》[김관일작, 주체74(1985)년]
에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창조와 랑만으로 개척
되는 간석지의 찬란한 미래가 곧 조국이기도 하
다.

조국은 미지의 운명이 맡겨진 씨앗을 품어주고
자래워주는 고마운 대지 [단편소설 《대지에 대한
이야기》, 강귀미작, 주체87(1998)년]이기도 하
고 때로는 오탁백과만물이 무르익는 풍만한 계절
(단편소설 《가을》, 리태운작, 1992년)이기도 하다.

단편소설 《내 고향의 작은 다리》[로정법작, 주
체76(1987)년]와 《이 나라 너인들》[김홍익작,

주체78(1989)년] 등은 제목자체가 그대로 조국의 모습을 련상시키고 있다.

이처럼 단편소설들에서는 조국을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려진 조국의 모습을 통하여 조국의 신성한 의미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 있다.

형상적으로 재현된 조국의 모습을 통하여 《조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예술적해답을 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작품은 진정한 의미에서 조국을 그렸다고 말할수 없다. 조국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면 그 어떤 생활을 그리든 관계없이 《조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주어야 한다.

조국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면 애국의 큰 뜻을 품을수 없으며 조국앞에 지닌 자기의 신성한 공민적무를 다할수 없다.

조국주제의 작품들은 《조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참다운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어나갈 애국의 뜻을 심어주어야 한다.

《조선단편집》에 실린 조국을 그린 단편소설들을 보면 작품에서 취급되는 시대와 사회적환경이 서로 다르고 주인공들의 투쟁내용도 같지 않지만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조국의 참뜻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라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조국의 상징이시고 우리 민족의 최고뇌수이시며 오늘의 우리 나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입니다. 조국은 곧 수령님 이십니다.》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고 빛내어나가시는 조국이다. 승리만을 새겨온 우리 혁명의 붉은기에는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으며 그 기폭이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가 되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고 백승을 떨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떠난 조국이란 생각할수 없으며 수령이자 조국이고 조국이자 수령이라는것이 우리의 조국관이다.

하기에 우리 작가들은 조국과 관련한 작품을 창작할 때마다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라는 위대한 진리를 밝히는데로 형상의 초점을 집중시키였다.

해방직후에 창작된 단편소설들인 《개벽》이나 《로동인가》[리복명작, 주체36(1947)년]가 그러한 지향밀에 창작되였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적희생정신을 그린 단편소설 《불타는 섬》[황건작, 주체41(1952)년]에서는 그것이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결사전을 앞에 두고 리대훈중대장과 고향이야기를 나누던 무전수 안정희는 문득 먼 포성이 울려오는 동트는 하늘가 꿈을 바라보며 조용히 뇌인다.

...

《지금 이 시각에도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불타는 이 월미도를 지켜보고 계시겠지요?》

대훈이 역시 승엄한 생각에 잠긴듯 정희가 바라보는 북쪽하늘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르며 다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켜보고 계시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지도앞에서 월미도를 꼭 보시구 계시겁니다.·· 원썬들이 더러운 발을 들여놓은 조국땅 어디에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그중에도 미더운 당원들이 총칼을 들고 서있는 모습을 모든 정을 기울여 지켜보고 계시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 말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은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얼마나 큰것인가.·· 정희는 이런 생각을 하며 더 입을 열지 못했다.

단편소설에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라는 위대한 진리를 감명깊이 밝히고 있으며 인민군전사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의 생활적바탕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있게 해명하고 있다.

단편소설 《우리는 친형제로 자랐다》에서도 은혜로운 삶의 품, 조국의 품이 곧 아버지 **김일성** 장군님의 품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감명깊게 강조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머니들이 가진 그 모든 은정과 아버지들의 웅심깊은 사랑의 마음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를 한몸에 안아 싹싹하게 자래워주신 아버지 **김일성** 장군님의 품이 있었으니 그때 우리의 눈물은 어리광이었다.

사실 그들은 사촌형제간은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그들은 친형제로 자란것이다. 하기에 작가는 소설을 마감지으면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천만년 번영할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에 인사를 드리고 있다.

단편소설 《조선시간》[성혜랑작, 주체72(1983)년]은 시간문제를 취급하면서 충성으로 마련된 조선시간으로 달리는 조국이 다름아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조국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와 세기를 재고 인생을 긍정짓던 종래의 시간개념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미증유의 창조력과 초인간적인 힘을 낳는 조선시간을 마련하시였다. 정력적인 활동과 충성의 열도로 창조하신 조선시간으로 내닫는 우리 조국이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조국인것이다.

이처럼 《조선단편집》에 실린 조국주제의 단편소설들에서는 《조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라는 철학적인 해답을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참다운 조국관을 심어주고 있다. 조국은 수령님이시고 장군님이시라는 참다운 조국관을 지닌 사람만이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

고 영원히 받들어나갈수 있다.

조국, 사랑, 인간...

《조선단편집》을 다시 보면서 조국과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조국과 사랑 그리고 조국과 인간은 뿔레야 뿔수 없는 련관관계를 맺고 있다.

원래 조국이라든가 사랑과 같은 문제는 작품창작에서 흔히 취급되는 주제라고 말할수 있다. 문학사의 갈피를 더듬어보아도 력대의 이름있는 작가들은 조국이라든가 사랑과 같은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작품을 써왔다.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문학의 기본 문제를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이 없는 인간이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떠난 인간이란 있을수 없다.

사랑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동지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 등...

그 어느 사랑을 막론하고 참된 사랑은 조국과 떼여놓고 이루어질수 없다. 동지애나 조국애는 물론이거니와 지어는 청춘남녀의 사랑인 경우에조차 사랑은 조국이라는 신성한 매체와 결부될때만이 가장 리상적이며 아름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조선단편집》에 실린 단편소설들은 이러한 생활의 진리를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단편소설 《언약》[안동춘작, 주체71(1982)년]은 조국해방전쟁시기 려단참모부서기 송경희가 반포대대의 화력부관 조성진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청춘남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송경희는 아름다우나 범접하기 어려운 형의 녀자이다. 려단의 젊은 군관들이 그에게 호의를 표시하였지만 그는 언제나 상대가 무안을 하지 않을 정도로 보기좋게 물리쳤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되어 반포대대의 화력부관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되였는가. 그것은 조국을 위해서라면 한목숨 기꺼이 바치는 그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이끌려서였다. 하기에 그는 려단의 후퇴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단조의 지휘관으로 결사전에 나선 조성진을 무작정 찾아가며 적들의 무한궤도가 한치한치 다가드는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긴박한 정황속에서 다시 만날 사랑의 언약을 하고 돌아온다.

조국해방전쟁은 승리로 끝나고 경희는 그때의 차단조성원 거의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조성진과의 언약을 지켜 끝까지 기다린다.

《기다릴테예요. 살아도 죽어도 나는 그를 잊을수 없어요.

조국을 위해 오늘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친 그 정신에 나는 반했어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그때 약속했던것이예요. 만약 내가 배반한다면 단

순히 그 사람에 대한 배반일것 같아요?

난 녀성이기전에 공민이예요.》

이것은 생사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기만 하겠느냐는 어머니의 말에 항변하여 터뜨린 경희의 오열이다. 경희는 이러한 사랑의 감정을 지냈기에 마침내 조성진과 감격적인 상봉을 할수 있었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조국을 위한 한길에서 뜨겁게 맺어지고 의리로 지켜지는 사랑이야말로 청년들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류의 작품으로서는 단편소설 《이 나라 녀인들》도 들수 있다. 전선에 나간 남자를 기다리는 이 나라 녀인들의 한없이 깨끗하고도 열렬한 애정윤리세계를 아름다운 생활화쪽으로 펼쳐 보여주었다는 면에서는 앞의 소설과 비슷한 점이 없지 않다.

이 작품을 통하여서도 뜨겁게 감동하게 되는것은 역시 청춘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이다. 쌍지팽이에 의지하여 한발로 굳건히 서있는 리벽과 그의 가슴에 와락 안기는 주인공 심유순, 3년을 기다려 이루어진 그들의 사랑이 그토록 아름답게 돋보이는것은 조국을 위한 길에서 맺어진 사랑이기때문이다.

단편소설 《내 고향의 작은 다리》와 《청년개척자의 수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맑은 시내가에 한사람씩 건느기 좋게 놓여진 내 고향의 작은 돌다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지만 해방을 맞이한 조국은 얼마나 변모되었는가. 세상도 사람도 몰라보게 달라진 내 조국, 그 조국의 벽찬 숨결속에서 성호의 사랑(그는 아침이 먼 다리목에서 늘 어기는 처녀를 사랑하였다.)이 움트고 자랐기에 그 사랑은 것처럼 청신하고 순결한것이 아닐가.

단편소설 《청년개척자의 수기》의 주인공 《나》는 순영이를 똥보이며 팔랭이로 늘쌍 구박주기만 하였다. 그러나 간석지건설에 점차 몸과 마음이 뿌리내리는 과정에 어느덧 순영이를 사랑하는 자기를 발견하고 당황해지기까지 한다.

소설에는 비록 애정선이 아기자기하게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가 티 한점없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여겨지는것은 그들이 찬란한 조국의 미래에로 함께 줄달음치고 있기때문이다.

이처럼 《조선단편집》에 실린 소설들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하려거든 조국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 사랑은 가장 아름답게 꽃피어나리라는 생활의 진리를 예술적형상으로 감동깊이 보여주고 있다.

《조선단편집》에는 조국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조국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깊이있게 주어져있다.

조국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먼저 씨앗과 대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어머니대지에 뿌리박고 자라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 고마운 대지에 뿌려진 씨앗처럼 인간은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만 참되게 자랄수 있는것이다.

삶의 보금자리, 어머니조국에서 자라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단편소설들로서는 《대지에 대한 이야기》[강귀미작, 주체87(1998)년], 《한 분조장의 수기》[변창률작, 주체90(2001)년], 《우리는 친형제로 자랐다》, 《청년개척자의 수기》 등 많은 작품들을 들수 있다.

단편소설 《대지에 대한 이야기》에 나오는 김승대는 이국땅 일본에서 버림받던 《씨앗》이었다. 어느 물결에 실려갈지, 어느 광풍에 날려갈지 알지 못하는 운명에 맡겨진 《씨앗》이었다. 이러한 씨앗을 품어주고 자라워주고 열매를 맺게 하여준 것이 바로 고마운 조국이다.

한때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져 인생길을 헛디딘 그는 조국의 품에 안기고서야 비로소 삶의 참 뜻을 깨닫고 새 출발을 하며 영웅기관사로까지 자라게 된다.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고마운 어머니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은 이 소설은 사람에게서 조국은 얼마나 귀중하며 진정한 조국이 있어야 인간은 참되게 살아나갈수 있다는 생활철학을 깊이있게 안겨주고 있다.

《씨앗》과 대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단편소설 《한 분조장의 수기》도 들수 있다. 흙냄새가 뚝뚝 풍기는 꾸밈새없는 생활묘사와 재치있으면서도 독특한 구성수법으로 술한 《씨앗》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았지만 궁극에 가서는 이 작품 역시 고마운 조국에 대한 찬가이다.

채홍기아바이, 김숙희아주머니, 주봉실아주머니, 출자 김송이 등 각이한 개성적인물들이 분조라는 한가정에 뭉쳐 농장의 참된 주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통하여 내 조국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 단편소설은 실로 감동적이다.

한해가 가고 새봄이 오면 우리들은 또다시 땅에 씨앗을 묻는다. 선대의 우수성만을 닮은 좋은 종자를 어머니대지에 뿌린다. 농민의 꿈이고 희망인 그 씨앗은 해빛과 바람과 폭우를 뚫고 가을을 향하여 줄기차게 자란다. 우리 역시 인생의 터전에서 아름답리 거목으로 성장해간다.

소설에 그려진것처럼 씨앗이 대지에 뿌리박지 않고 살수 없는것처럼 인간은 고마운 조국에 뿌리내려야 참된 인간, 아름답리거목으로 성장할수 있는것이다.

조국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란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안아주고 키워준 어머니조국앞에 공민적 의무를 다해가는 시대의 참된 전형들에 대한 이야기일것이다.

조국을 량심으로 받들고 빛내여나가는것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본분이다. 시련도 많고 온

갖 세파도 겪었지만 우리 공화국이 오늘처럼 존엄높은 자주적국가로 위력을 떨치고 선군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해 돌진할수 있는것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이 량심으로 조국을 받들었기때문이다.

《조선단편집》에는 우리 혁명의 년대기와 함께 조국을 량심으로 받들고 공민적의무를 다한 시대의 전형들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이 수많이 실려있다.

우리 조국이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던 1960년대에만 하여도 단편소설 《길동무들》[김병훈작, 주체49(1960)년], 《백일홍》[권정웅작, 주체50(1961)년], 《령북평》(리병수작, 주체52(1963)년], 《고기떼는 강으로 나간다》[진재환작, 주체52(1963)년], 《척후병》[리동구작, 주체54(1965)년] 등이 쏟아져나왔다.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에 창작된 단편소설 《덕흥나그네》[정창윤작, 주체70(1981)년], 《그를 알기까지》[김봉철작, 주체70(1981)년], 《리서기장》[김진성작, 주체72(1983)년] 등은 조국을 받드는 시대의 전형들을 형상한 대표작들이다.

이번에 《조선단편집》을 다시 읽으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작품들은 단편소설 《리서기장》과 《덕흥나그네》이다.

아마도 조국이 처한 오늘의 엄혹한 정세와도 관련이 되겠지만 리인민위원회 서기장 정옥진과 덕흥나그네의 형상은 나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과 강한 자극을 안겨주었다.

《여러분! 나는 가지만 인민정권은 다시옵니다...》

《당신은 국가물자를 가지고 더 <선심>을 쓰시마오.》

마치도 나에게 준 당부이며 충고인듯 죽음의 경각에 남긴 그들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히 울려온다. 진정으로 조국을 받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며 싸워나가야 하는가를 심장깊이 새겨주는것 같다.

아마도 이런것을 두고 그 어떤 무기도 대신할수 없는 문학의 위력한 사상정서적감화력이라고 하지 않는가.

비록 20년전에 창작된 작품들이지만 오늘을 예상해서 쓴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총대로 조국을 옹위하고 빛내여 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드팀없는 혁명적신념과 애국의 열정, 총대와 량심으로 조국을 진심으로 받드는 선군시대의 전형들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한돌기 또 한돌기...

자연의 법칙은 이 땅에 또다시 9월을 불러왔다. 정녕 9월은 언제나 오늘처럼 사람들에게 따사로움만을 주었던가.

나라잃은 모진 그 세월 망국의 설음만을 뼈에 새겨주던 9월이었다. 허나 오늘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더불어 신다섯돌기의 년륜을 새기며 찾아온 9월은 얼마나 환희롭고 약동하는 행복의 9월인가.

9월, 9월은 우리에게 속삭여준다. 우리모두 안겨사는 내 나라, 내 조국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이라고, 선군으로 이 땅을 꽃피우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이라고.

작가들이 남긴 말

조국은 무엇이었던가

《은혜로운 사랑의 빛을 받을수 없었던 그 옛날 고달픈 생활속에서도 어떻게 하나 문학을 해보려던 나의 절절한 념원은 기아와 빈궁, 천대와 멸시속에 짓밟히우고 말았습니다.

그때 쓴 어느 한 동요에는 <새파란 고향하늘, 그리운 하늘>, <언제나 고향집이 그리울 때면>이라는 구절들이 있었는데 일제경찰놈들은 그 고향집이 무엇을 노래한것이며 그 고향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이나고 하며 나에게 채찍을 안기고 별 모욕을 다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현해탄을 건너간 나에게 차례진것이란 참을수 없는 민족적멸시와 천대, 고역과 설음뿐이었습니다. 힘겨운 고학살이에 지쳐 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얼음장같은 침침한 댕방에 쓰러져도 돌봐주는 사람없고 슬픔으로 가슴에 멍이 들어도 따듯이 어루만져주는 손이 없어 길가의 조약돌처럼 굴러다니던 신세였습니다.

만약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주체의 내 조국이 없었더라면 저는 영영 거치른 수난의 파도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을것입니다.》

1981년 10월 윤복진

《아마 세상사람들은 눈도 못보고 운신조차 못하는 내가 자리에 누워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을 썼다는것을 잘 믿지 않을것입니다.

방대한 옛사료들을 고증하며 써야 하는 력사소

설을 눈이 멀고 전신불수가 된 사람이 어떻게 썼겠는가? 과연 그 어떤 신비로운 힘이 운신조차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칠십늙은이에게 정력과 의지를 넣어주고 창작의 역센 날개를 달아주었는가?... 하고 의문을 금치 못할것입니다.

칠칠야밤같은 나의 눈앞에는 장엄한 태양이 떠올라 그 찬란한 빛발로 온 누리를 밝히며 나를 포근히 감싸줍니다. 그 태양은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십니다.

진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이 몸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체문화대오에서 계속 꽃을 피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은인이시고 스승이시며 나의 삶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1982년 2월 박태원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스무살에 끝맺은 생명을 재생시켜주시고 삶을 빛내주신 재생의 은인이시고 빛나는 삶의 은인이십니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 어제날 자기 조국을 위해 피흘린 부상병들이 인간적모독과 버림속에 거지가 되거나 값없이 죽어가고 있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꽃나이에 쓰러져 폐인이 된 저와 같은 영예전상자들을 모두 재생의 한 품에 안아 인간존엄의 상상봉에 높이 올려세우심으로써 인간기적을 날게 하였습니다.》

1993년 5월 김시련

조국을 안고 살라

윤경남

내 운명 뿌리내린
이 땅의 흙 한줌도
소중히 안고 사는
나의 조국

이 땅 그 이데 서있건
한줌의 흙이
조국의 살점으로 이 마음속에
뜨겁게 간직된것

새 세대 맑은 눈동자에
고귀한 진리를 새겨준
한줌의 흙이여!
한포기 풀이여!

혈전만리 피바다속에서
내 나라의 첫 애국자세대
항일유격대원들 배낭속에
간직했던 한줌의 흙

전호가의 한그루 애술을
조국의 모습으로 안고
불뿔는 적의 화구에
서슴없이 몸을 던진 전화의 영웅들

조국을 지킨다는것
조국을 안고 산다는것
그것은 쉽게 부를수 있는
허끝의 말이 아니다

조국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다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다

가사

혈육들도 모르는
한 전사의 위훈을
어머니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고
생생히 기억하거니

아 조국
어머니 나의 조국
그 품에서 행복을 안고 산다
미래를 안고 산다

흙 한줌
풀 한포기
물 한모금
그것이 다 내 조국의 살점

사람들이여! 늘 본다고
무심히 대하지 말라
언제나 함께 산다고
그저 스쳐보내지 말라

조국을 안고 산다는것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을
영원히 안고 산다는것
우리 장군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산다는것

천걸음 만걸음
천리 만리를 간대도
공민적량심을 바치라
애국의 더운 피를 바치라

조국을 안고 살라
선군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라

선군시대 새 전설

안근배

병사들이 보고싶어 최전선에 가실 때면
흰 안개도 고이 내려 그이 안녕 지키였네
하늘이 내신 명장 하늘땅도 다 알아
새 전설이 꽃피었네 장군님전설

병사들을 품에 안고 기념사진 찍으실 때
내리던 비도 멎고 밝은 햇빛 비치었네

천어버이 사랑안고 찾아가신 초소마다
새 전설이 꽃피었네 장군님전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천만지략 펼치시니
그 담력 그 기상에 대적들도 났을 잃네
선군시대 내 나라는 백승의 나라되여
새 전설이 꽃피었네 장군님전설

한 공민에 대한 생각

한웅빈

나는 비전향장기수 김동호동지의 집에서 걸어 온 전화를 받았다. 부인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김동호동지가(물론 부인은 《우리 령감》이라고 불렀다.) 한시를 몇수 썼으니 와서보고 조언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럴 때면 좀 당황해지는것을 어쩔수 없다.

소설이나 산문이라면 몰라도 내가 시를 보고 이러니 저러니했다고 하면 시인들이 웃을것이니 말이다.

작가란 운문이면 운문, 산문이면 산문, 어느 종류나 막힘없이 다룰줄 알아야 작가라고 할수 있던 어느 로작가의 말이 생각되었다.

어떻든 전화를 받았고 가겠다고 하였으니 갈수 밖에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김동호동지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새록새록 들던 차여서 성큼 대답한것이였지만 주체89(2000)년 9월부터 나는 그를 한두번만 만나지 않았고 그사이 무척 가까워졌었다.

공화국창건 55돐을 앞두고 경축구호들과 꽃들로 장식한 거리를 걸으며 나는 이제 만나게 될 김동호동지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는 지금 87살의 고령이다. 그러나 그가 공화국공민으로 공민증을 가지고 생활한것은 얼마 안된다.

남쪽땅에서 31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40여년만에 이땅을 다시 밟았다. 허나 그는 한생을 두고 부끄럼없는 이 땅의 성실한 공민이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그를 처음 만나본것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고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평양으로 돌아왔던 주체89(2000)년 9월, 고려호텔의 어느 한 방에서였다. 그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워하는 상태였고 심한 언어장애로 한마디한마디를 무척 힘겹게 하였다.

취재하러 왔다는 나의 말에 그가 한 첫말은 아래와 같았다.

《나는… 영웅도… 투사도… 못됩니다. 옥살이 밖에는… 아무것도 한것이… 없습니다.… 글로… 쓸만한게 없습니다.… 그만 두십시오.》

이 몇마디밖에 안되는 말도 피염피염 힘들게 흘러나왔다.

나는 그에게 자그마한 과장이나 꾸밈도 없이 쓰겠다는 약속부터 하였다.

주체5(1916)년 8월 2일생, 고향은 경상북도 김천시, 소학교를 거쳐 주체24(1935)년에 김천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금융조합에 취직.

보천보의 총소리가 삼천리를 진감시키던 그해

여름에 만주로 들어가 《연길홍농합작사》에 취직, 그것은 간판만 다른 금융조합이었다.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된후 귀국, 청진에서 도소비조합위원회에 근무,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소비조합에서 근무…

이 짝막한 경력이 보여주는것처럼 그는 해방전에도 해방후에도 사무원이었다. 펜대와 수관, 종이장밖에 몰랐다. 대구에서도 그는 자그마한 런던회사의 전무로, 사무원으로 일하였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다.

《총이나 칼로 싸운적이 있습니까?》

그는 히죽히 웃으며 대답하였다.

《주먹싸움해본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그에게 1심에서는 사형, 2심, 3심에서는 무기형을 언도하였다.

그때부터 지옥에서의 31년, 시련의 31년이 시작되었다.

일제의 악착한 사상전향제도인 《치안유지법》,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에 뿌리를 두고 자라난 《전향공작》, 《전향강요》의 파도, 31년간의 그의 감옥살이는 《전향공작》과의 처절한 싸움의 31년이였다.

《전향하든가 죽든가, 이 두길밖에는 없다.》

그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야수적이며 검질긴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이미 잘 알려져있는것이 다.

인간을 괴롭힐수 있는 모든 수단이 깡그리 동원되었다.

인간을 유혹할수 있는 모든 수단도 이에 동원하였다. 가장 원시적인것으로부터 가장 현대적수단까지 모두 총동원되었다.

그러나 승리자는 비전향장기수들이였다.

평범한 사무원, 한평생 총이나 칼을 쥐여본적 없던 사무원이 어떻게 죽음을 이겨낼수 있었는가. 그것은 죽음이 하루에 백번도 더 천번도 더 찾아오는 죽음이 레사로운것으로 되어버린 나날이였다.

그와 껍 가까워졌을 때 나는 몇번 망설이다가 그에게 어떻게 끝까지 전향하지 않았는가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사람도 이런것을 묻는구나하는 실망때문이였을가. 아마도 그는 출옥후 남쪽땅에서도 수십수백번 그 물음을 받았을것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대답했을것이다.

《신념을 버릴수 없었다.》고...

얼마후에야 그는 대답대신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선은 창밖을 더듬고 있었다.

《해방후... 청진에서 5.1절시위를 할 때... 난 붉은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대렬앞에서... 기관을 대표하여... 사람들은 날... <붉은기친구>라고도 불렀습니다... 전후복구건설때는 밤마다... **김일성** 광장복구하는데 나갔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밤가는줄 몰랐습니다... 농업협동화초시기에는... 협동조합을 조직하는데 나갔었고... 대동교를 복구할 땐... 밤새껏... 일했고... 아들이가 걸음마탈 때부터... 손목을 잡구 모란봉에 오르구... 아들과 나란히 등성이에 앉아...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를 보았고...》

그의 눈길이 드디어 나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역시 찌열찌열 그러나 한마디한마디에 힘을 넣어 말을 끝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전향할수 있습니까?》

《!》

그 말은 높지 않았으나 우뢰소리처럼 나의 귀를 울렸고 가슴을 울렸다.

5.1절시위에 들고 나가던 붉은 기발, **김일성** 광장복구의 밤에 타오르던 모닥불, 농업협동화의 나날 별빛어린 이슬을 차며 걸던 두령길과 최특길, 아들의 고사리같은 손을 잡고 오르던 모란봉의 푸른 그늘, 고색찬연한 올밀데, 그것은 그가 심장에 안고 있는 조국의 모습이 아닌가!

일찌기 항일혁명투사 박달동지는 자기의 한생을 총화짓는 글에서 《조국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썼다.

적화점을 가슴으로 막은 리수복영웅은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고 웅쳤다.

그도 조국의 귀중함을 폐부로 느꼈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전향할수 있습니까?》

가장 평범한 말 한마디가 시로 명구로 되는 경우가 있다.

김동호동지가 찌열찌열 자기생활의 나날들을 이야기하던 끝에 마지막에 한 그 한마디는 그의 자기 한생에 대한 총화처럼 들린다.

나에게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나가는 조국이 있다. 사회주의조국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전향할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이것들은 죽는게 뭔지도 모르는게 안야?》

이것은 《전향》을 강요하던 고문담당 교도관들이 제련에서 맥이 풀려 내뱉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몰랐던것은 그자들이었던것 같다.

진정한 조국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국이란

자신의 부모와 같은것이어서 배신할수도 버릴수도 없는것임을 그자들은 알수 없었다.

나는 여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만나보았었다. 김동호동지가 건강상태와 언어장애로 취재를 어려워하는데로부터 감옥에서 그와 함께 생활한 동지들을 찾게

되었던것이다.

그 과정에 김동호동지와 그의 동지들에 대하여 내가 느끼게 된것은 그들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것이였다.

단식투쟁을 벌릴 때 그들이 적들에게 내던진것은 밥덩이나 물그릇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이였다. 적들과 죽음을 무기로 맞섰던것이다.

당황한 적들이 강제급식으로 단식투쟁을 좌절시키려 입에 《자끼》를 물리고 호스를 목구멍으로 밀어넣어 따거운 죽물을 쏟아넣었을 때 잘못들어간 호스가 숨길을 틀어막아 호흡이 끊어지고 눈앞이 일시에 암흑속에 잠겨들던 죽음의 시각들.

《복식하지? 하지?》

기다리는것은 죽음의 시각이었으나 그들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 김동호동지는 70살의 고령이였다. 그는 세번이나 죽었었다. 그것은 상징적인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음이였다. 다섯번, 여섯번 죽었던 동지들도 있었다. 그때 마지막까지 머리를 흔드는 그들을 보며 고문하던자들은 맥이 풀려 말했었다.

《이것들은 죽는게 뭔지도 모르는게 안야!》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였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였다.

어린 시절에 나는 옛말을 좋아하였다. 그 옛말들속에는 아무리 죽이고 죽여도 죽지 않는 죽일수 없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를 죽일수 있는 힘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은 몸에 있지 않고 다른곳에 있었기때문이었다. 그의 생명은 그 누구도 건너갈수 없는 멀고 먼 바다가운데의 섬에 있는 난공불락의 바위성안의 수리개의 몸안에 있었다.

때문에 그를 어떤 힘으로도 죽일수 없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 아니였던가. 그들의 생명은 여기 북쪽땅, 조국에 있었다.

그곳에서는 실사 죽는다해도 그들의 생명은 이곳 사회주의조국에서 영생할것이였다.

한 작가는 자기의 글에서 적들과 싸우다 쓰러지면 둘로 되어 일어서고 또 쓰러지면 넷이 되어 일어서는 장수에 대하여 쓴적이 있다.

그 글에 나오는 장수인 도끼장수는 적들에게 쓰러질 때마다 두배, 세배로 되어 일어섰고 마침내는 수백수천이 되어 적들을 완전히 무찔러버렸다.

옛 그리스신화에도 땅에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더 강해지는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 아름다운 불사의 생이 인류의 지향이었던 것이리라...

30~40년간을 감옥에서 싸운 비전향장기수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던가.

그들에게 불굴의 생을 준것은 사회주의조국이였다.

미제와 세계제국주의의 포위와 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붉은기를 곳곳이 들고 나가는 **김일성**민족의 나라, 위대한 장군님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5년!

오직 승리로만 헤쳐온 주체의 조국이였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걸느라니 나는 문득 출옥후 자기의 생일을 축하해준 남녘의 여러 민주화단체 인사들에게 보낸 김동호동지의 편지구절들이 떠올랐다.

《후원회성원들의 정성에는 감복할뿐 더 할말이 없으며 특히 청년학생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어 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축하는 나자신에 대한것보다는 영광스러운 조국에 대한 동경이라고 믿고 더욱 감격하고 있습니다.》

《불민한 사람에게도 생일은 있어 주위에 알리지 않으려 하였는데 장기수후원회성원들과 민주단체 여러인사들 그리고 청년학생들이 알고 열렬히 축하해주었습니다.

이는 나자신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조국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합니다.》

그의 한마디한마디에서는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민이다!》는 심장의 웨침이 긍지높이 울린다. 그는 40여년만에 이 땅으로 돌아왔으나 그 기나긴 나날 어느 하루도 공화국국민이 아니었던적이 없었다.

그들 비전향장기수들을 생각할 때면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긍지를 가슴뿌듯이 더 느끼게 된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덧 김동호동지가 사는 창광거리의 살림집에 이른것이다.

우뚝 솟은 초고층살림집 4층창턱의 화분에서 활짝핀 꽃송이를 지켜보며 나는 생각한다.

진정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곧 사회주의 조국임을 심장으로 체득한 사람만이 이 땅의 참된 국민이라고...

녀인의 손

박정애

쫓아보시고

다시금 뜨겁게 잡으시여

장군님 오래도록 놓으실줄 모르는

녀성관리위원장의 손

부풀어 터지여 굳어지고

피멍에 아리고 쓰렸을 그 손

부드럽게 어루만져주시며

마음속 아픔까지 다 녹여주시여라

녀인은 송구해 눈물만 흘리건만

장군님께선 그 손우에서 다 안아보시여라

돌 많아 사람못살 곳이라 이름났던 곳

이랑이랑 간지게 돌을 안아낸

땀젖은 그 날과 날들을

골은 깊고 해가 짧은 북방의 장강땅

찬바람 눈서리를 온몸으로 녹이며

이삭이 무겁도록 금나락을 실어준 그 자옥

입술을 깨물며 펼쳐놓은

푸르른 풀판들에 염소떼 흐르게 한 그 위훈을

어버이장군님

다시금 정히 잡으시여

황금비단 쫓아보시듯

한생의 수고만 헤아리시는가

조국땅에 전변된 선경마을 한쪽으로

안아보시여라

오 이 땅 위해 서른해

붓으로가 아니라 근면한 땀으로

세월로도 지울수 없는 천년화폭

보란듯이 황홀하게 그려놓은

강직하고 억척같은 손

성실한 근로의 못이 박힌 그 손

장군님은 세상에 비길수 없는

그처럼 진귀한 보옥을 찾으신듯

수정같이 비치는 마음의 세계

인간의 고결한 녀의 아름다움 보셨거니

충성스러운 값높은 삶이여라

애국의 거울같은 삶이여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펼쳐가는 길에

참되고 보배로운 영웅의 손

더없이 귀하고 더없이 소중한

장한 그 손을 높이 들어주신다

선경마을이 비끼여 자랑스러운 손

온 나라에 보여주고싶으시여...

온 나라에 빛내주고싶으시여...

불리는 섬

황건

1950년 9월 12일, 깊은 밤이었다.

해군통신수 안정희는 같은 녀성통신수 두 어린 동무와 함께 월미도에 있는 리대훈해안포중대에 배속되어 나갔다.

기지까지 차를 타고 나와 거기서부터 도보로 불붙는 인천시가지를 뚫는 사이 정희네는 좌우 사방을 켕 켕... 쿵 쿵... 하고 설사이없이 날아와 떨어지는 함포에, 폭격에 엎드려다가는 일어나고 또 엎드리고 하며 내내 마음이 한줌만해 달려야 하였다.

머리위를 낮게 감도는 비행기 으르렁대는 소리와 식식 포탄나는 소리가 시시로 귀박을 서게 하고 거리의 불기운이 치마언저리며 뺨에 확확 끼여오고 역한 내내가 끊임없이 코를 찔렀다.

월미도는 이미 건물도 초목도 죄 발가숭이 재더미로 뒤집혀져 련이은 포탄, 폭탄구덩이의 가생이에서 가생이로 기다실이 하며 녀성통신수들은 길이 아니라 생판 험한 메등을 더듬어갔다.

바다 먼 안에서는 포들이 아가리를 벌리는 파란 불광이 그칠사이 없게 보이고 머리우에서는 조명탄이 둥둥 떠 섬언덕과 골짜기들을 낮과 같이 비치였다.

무엇을 쓰는지 뚜루룩뚜루룩 뇌수를 굶는 기총소리까지 계속되었다.

녀성통신수들은 흠채기를 찾을 사이도 없이 겨우 등밖에 못넘는 흙더미를 의지하고도 긴시간 머리를 땅에 박고 있어야 하였다.

해병복의 턱반이 흰선들이 불빛과 그들속을 애꽃게 물결을 지으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였다.

가슴이 지지눌리울대로 눌리워 겨우 중대부에 닿은 통신수들은 그들과는 달리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수고를 하셨소. 함께 싸워봅시다.》하며 중대장이 인도하는대로 탄 전호속 무전기앞에 나란히 앉은 한동안까지도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낮은 밤보다도 더 하였다.

월미도는 줄곧 몸서리치는 지친 열병속에 허덕이는 것이었다.

함포들은 새벽부터 일제히 아가리를 고쳐쳐드는가싶는데 비행기는 하늘이 까맣게 덮여오고 포격, 폭격에 땅이 북치듯 울리는가하면 해가 연기와 흰 먼지에 가리워 하늘은 종일 닭알속처럼 흐리었다.

비행기가 던지는 휘발유통이 터지며 타다남은 나무그루에 또 불이 붙고 그 불이 다시 돌을 태웠다.

조국의 작은 섬은 악독한 짐승들의 발악앞에

할퀴우고 뒤집히우며 열번 스무번 불에 지지웠다.

이속에서 포중대동무들은 부상을 당하고 죽고 하였다.

그러나 정희와 그의 동무들은 해안포중대원들과 싸움을 같이 하는 가운데 환경에 익숙된것도 있겠지만 자기 두려움들은 어느사이에 잊어버렸다.

정희는 그 무서운 포화속에서 두려움도 없이 지칠줄도 모르고 싸우는 포중대동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포중대해병들은 웃도리는 거의 샤쓰바람으로 군복이 죄 폭풍에 찢기우고 너덜이 났는데 그사이로 역시 폭풍에 모래가 박히고 피가 빨강게 배여 나온 살결이 드러났다.

해병들은 포격을 한시도 떠나려하지 않았으며 줄음도 배고픈줄도 생각하는것 같지 않았다.

포를 쏘기에, 무너진 전호를 파울리고 위장하기에, 부상당한 동무들을 나르기에 해병들은 한시도 가만히 서있지 않았다.

물레방아처럼 중대장 리대훈을 축삼아 나머지 동무들은 나무랄것없는 수채가 되고 물레가 되고 방아에 방아확이 되었다.

그중에도 중대장 리대훈은 눈에 갈수록 불길이 줄기차지며 성난범이 몸돌곳을 몰라하는 형상이었다.

굳게 다문 입술은 강직하게 일어난 이마와 함께 굳은 투지와 그 어떤 자량을 말해주었다.

그 역시 군복은 폭풍에 찢기우고 너덜이 나 그사이로 드러난 어깨며 팔이며 가슴은 모래알에 박히우고 찢기여 피가 빨강게 배어나왔다.

중대원들의 한결같은 투지와 충직한 마음들은 더우기 이런 중대장과 함께 있음으로 하여 더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함포가 그칠사이 없는속에도 포가 있는 전호와 전호사이를 집안 드나들듯하며 전투지휘를 하였고 묘준경에 달라붙었다.

그는 무너진 전호를 자신 파울리고 위장을 하였다.

죽은 동무의 시체를 자기 손으로 파묻고 부상당한 동무들의 후송을 일일이 보살폈다. 부상당한 동무는 동무의 등에 업히지 않으려 두번째번 팔을 뿌리쳤다.

《싫어요. 나는 안가요. 나는 아직 싸울수 있어요. 같이 남아 끝까지 싸우겠어요.》

무거운 눈길로 지키고 섰던 중대장은 《엄히우오! 동무는 자기 생각만 했지 동무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리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소.》 하고 엄하게 꾸짖었다.

중대장은 부상당한 동무가 끝내 업히어 중대부에서 교통호에 나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전호에 따라나와 초연에 싸인 어둠속을 더듬듯 사라지는 동무들의 뒤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키고 섰었다.

그러던 중대장은 동무들쪽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고 감정이 격한 사람모양 곧장 포진지로 나갔다. 저녁무렵이었다.

하늘의 날강도들이 자취를 감춘 다음 취사병동무는 동무들의 식사를 근심하다 물가로 내려갔다.

물거품이 바위에 얹힌 물가에는 놈들의 함포에 얼을 먹은 보가지가 세네마리 밀려나와 푸들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취사병동무가 물가에 닿았을가말았을가 한데 때마침 날아온 포탄은 취사병동무를 꺼꾸러뜨리고 말았다.

그것을 본 한동무의 《앗!》하는 소리가 들렸다. 깨여진 포를 수리하던 중대장은 《앗!》하는 그 동무의 눈길을 좇아 물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 동무를 돌아보던 중대장은 눈에 콧 열이 끼치는듯싶더니 아무말없이 전호를 나서 성큼성큼 물가로 내려갔다.

포탄에 허영계 이지러진 바위위에 다달은 중대장은 넘어진 동무의 상처를 살피고 가슴에 손까지 대어본 다음 안아일으키더니 팔을 이끌어 등에 얹었다.

좀 떨어진 물속에 또 포탄이 떨어져 물기둥을 세웠으나 중대장은 돌아도 보지 않았다.

중대장은 넘어진 동무를 업은 그대로 일어나 도로 전호로 올라왔다.

취사병동무는 이미 숨이 넘어갔었다.

중대장은 동무의 시체를 묻은 다음 다시 포수리에 착수하였으나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이 모두를 정희는 결에서 목격하였다.

동무들의 수가 적어지고 전투가 가렬해지면 질수록 해병들이 중대장의 주위에 더욱 뭉쳐도는 리유가 환해지는것 같아 정희도 따라 가슴이 더욱 긴축되고 끓어오르는것이였다.

포중대동무들은 이를 낮과 밤을 꼬박 전투로 보냈다.

전투를 쉬는 참에는 무너진 전호를 파올리고 교통호를 파고 포를 수리했다.

10일이후 나흘동안 함포와 비행기폭격으로 장창눈코를 뜯사이없게 하던놈들은 13일 오전 11시를 넘어 함포를 멈추자 해안에 다가들기 시작하였다.

동무들은 전신이 땀과 먼지투성이가 되어 포탄을 나르고 쏘았다.

하얀 물기둥이 계속 일어섰다.

그러나 순양함, 구축함들을 뒤로하고 경비정,

상륙정, 상륙버트... 크고작은 각색 함선의 움직임과 배전에 거슬리는 높은 물결과 일떠서는 물기둥이 통신수들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도 분에 겨운 목매는 광경이였다.

저속에는 3백여척의 대소함선이 있다고 하였다. 신호는 두번 세번 명중을 고했으나 배기울어지는것은 좀처럼 볼수 없었다.

원수들이 미운 생각은 박박 가슴을 찢는듯하였다. 열두시경이였다.

마침내 구축함 한척이 한쪽꼬리에 검은 연기를 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놈은 거의 전신이 연기에 가리우면서 함체를 기울이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동무들은 기쁨에 서린 얼굴을 서로 쳐다보며 어쩔줄을 몰랐다.

10분후에는 또 구축함 두척이 거의 동시에 선체에 불길을 올리고 검은 연기를 뿜으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동무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였다.

《자식들 꼴 봐라!...》

하고 자기를 잃고 중얼거리는 동무도 있었다.

중대장 리대훈은 흥분을 누를길 없어 높은 소리로 정희를 부르더니 무전으로 보고할것을 명령했다.

기세를 꺾인 놈들은 진격을 멈추더니 다시 함포질을 시작했다.

비행기가 까맣게 덮여와 섬을 아주 말아먹을 작정을 했다.

전투는 오후 네시가 가깝도록 계속되였다.

놈들은 거듭 검은 연기를 올리며 함체를 기울이고 바다속에 대가리를 거꾸로 박고 도망쳤다.

밤에 사단지휘부에서는 축하전문이 내려왔다.

동무들의 기쁨은 말할나위 없었다.

중대장 리대훈도 여전히 타는듯한 열오른 눈을 정희에게 돌렸으나 자기 심정을 표현은 못하고 거북스레 껌벌일뿐이였다.

물 흐르듯하던 땀이 아직 채 잦아들지 못한 흠먼지에 얼룩이 진 얼굴들이며 너털이 난 샤쓰에 양복바지들이며 그사이로 내여민 피흐르는 살들이며 정희는 대훈을 비롯한 중대의 모든 동무들이 귀중한 생각으로 가슴이 벌써 전부터 시시로 빼개지는것 같았다. 이들과 함께라면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잊어버릴것 같았다.

그러나 이날의 전투에서 중대의 손실 또한 적지 않았다.

포가 두문 다 파괴되어 완전히 쓸수 없게 되고 전투원들이 많이 부상당하고 전사하였다.

새벽녘이 가까와 섬에는 포탄이 한자동차 운반되였다.

같이 떠난 한차는 폭격에 중도에서 타버렸다고 하였다.

그 한차마저 제대로 돌아가낼는지 알수 없었다.

14일은 일곱시부터 전투가 시작되었다.
오후 1시경이 되자 놈들은 다시 상륙을 기도했다.

중대는 전날 대소함정을 열세척이나 격침격과 했지만 이날도 여섯척이나 물속에 매장했으며 놈들은 두번째 상륙기도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중대에는 드디어 포 한문에 포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중대인원 역시 그랬다.

그러나 리대훈중대장은 조금도 당황한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대원들에게 전혀 대비도 되지 않는 힘으로 이틀이나 놈들을 막은후에 엄청난 전과를 올린것을 격설하면서 오히려 더 투지만만해하였다.

동무들 또한 몇명 못되나 그를 따라 투지완강한 가운데 싸움에서 살아남겠거니는 이미 생각지 않고 있는것 같았다.

정희는 송신기의 전건을 부지런히 눌렀다.

《현재 중대원 8명, 포 한문 남았음. 포탄을 보내달라, 포탄을...》

밤이 깊도록 정희는 같은 내용의 무전을 세번 쳤다.

사단지휘부에서는

《임무 중함. 계속 중대의 용명을 바람. 한시간 한초라도 더 놈들의 상륙을 막으라. 포탄은 수배중...》

그러더니 새벽이 가까운 조금전에는 다시

《무전수들은 전부 들어오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같이 나온 두 동무에게 명령을 전달하기 앞서 정희는 어쩌면 좋을지 모를 피로운 생각에 잠겨버렸다.

싸움을 중간에 놓고 포중대동무들과 헤어지겠거니는 정희는 조금도 생각지 못했었다.

일종의 절망에 가까운 말못할 쓰라림없이 당장에 정희는 이들과 헤어질 일을 생각할수는 없었다.

중증에도 싸움속에 마음도 몸도 불붙는가싶은 대훈의 모습은 지울길없는 진한 영상으로 혈육과도 같이 가슴에 하나가득해왔다.

지휘부는 방선의 위급을 생각하고 몇생명이라도 더 아끼려 이들과 갈라놓는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정희는 벌써 오래전부터 하여온 생각이면서 지금에야 하게 된 생각처럼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계속 싸우고 있는 한 자기도 함께 남아야 하는것은 같이 싸우던 자기의 가장 귀중한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생애는 이보다 더 절박하고도 더 중대한 시간이 있지도 않았지만 있을것같지도 않고 이 시간이야말로 자기의 가장 귀중한것이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가슴히비듯했다.

이 시간에 그렇지 못할제 자기에게는 영원히

돌이킬수 없는 후회가 남을것이며 이 시간에 그렇지 못할제 아무때에도 자기는 귀중하게 살수 없으며 귀중하지 못한 그 생애가 아까울수도 없을것이었다.

아직도 적정은 보고되어야 할것이고 중대는 상부와 수시로 연락되어야 할것이고 그들은 더 도움을 받아 외롭지 말아야 할것이고 또 포중대동무들의 싸움은 모든 부모형제들에게 전하여져야 할것이었다.

어려운 이 전국에 당하여 중대원자신들의 비상한 각오도 그러려니와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비장한 마음없이 지금 월미도에서 싸우는 이들을 생각할수는 없을것이었다.

정희는 동무들에게 명령을 전달하기전에 전건을 두들겼다.

가슴이 와작 저러오고 손끝이 떨렸다.

《1번수는 남을것을 허가하라. 1번수는 남아 계속 보고할것을 허가하라.》

회답이 없는 사이 정희는 동무들쪽에 당황한 얼굴을 겨누었다. 앓아왔다하며 또 전건을 눌렀다.

《1번수는 남아 적정과 포중대원들의 전투를 끝까지 보고할것을 허가하라. 꼭 허가하라.》

이윽고 사단지휘부에서는 1번수는 남아도 좋다는 회답이 왔다.

정희는 동무들의 손을 정답게 잡았다.

동무들은 돌아가기 싫어하고 갈라지기 애석해하였다.

동무들은 교통호를 나가 포중대동무들을 일일이 만나고 왔다.

무너진 전호를 나가 초연과 어둠너머 멀리 이 밤도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 인천시가를 바라보다 돌아가는 동무들의 뒤모습에 눈을 옮긴 정희는 자기도 모르게 눈곱이 뜨거워오는 가운데도 알수 없는 가라앉은 마음으로 이름못할 행복감이 가득 치받쳐왔다.

《동무, 몸을 주의해요.》

《난 넘어말구 동무들 주의해 들어가요.》

《또 만나자요...》

《그래요. 잘 싸워요...》

《잘 싸워요...》

전호에 돌아왔을 때 무전기가 놓인 책상옆에는 리대훈중대장이 우두커니 서있었다.

정희를 보자 대훈은 저르기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동무는 왜 들어가지 않소?》

단둘이래서 그런지 음성이 류달리 굵게 울려왔다.

정희는 잠간은 당황한속에 대답을 못했다.

《남아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 하던 대훈은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동무 할일이 없을지 모를것

이요.》

《왜 없어요. 중대장동무들 모두 그냥 싸우고 있지 않아요?...》

정희의 얼굴을 말없이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대훈은 한결 어성을 떨거며 혼자말처럼

《동무의 마음을 알수는 없소만... 하여튼 고맙소.》 하더니 눈길을 먼 바다로 가져갔다.

무슨 말을 더 할것처럼 입술을 씨물씨물하던 대훈은 얹히는 생각과 감정에 쫓기는 사람처럼 말을 못하고 외면한채 더딘 걸음으로 전호를 나가버렸다.

대훈이마져 돌아간 다음 혼자 남은 정희는 이상하게도 갑자기 마음속이 회오리바람일듯 허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정희는 자기 한일을 끝내 후회하는 마음은 없었다.

벌써 날이 새는듯 바다 먼 섬봉우리들이 희끄무레 밝아왔다.

밤새 무전기를 대하고 앉았으나 송신기에서 손을 놓은지 이숙한 정희는 나무결상에 걸터앉은채 전호출입구너머로 어둠속에 피코한 바다를 어느때까지도 지키고 앉았다.

왼편뒤에는 중대장 대훈이가 그 역시 말없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지난밤은 수리도 못하고만 포탄에 무너진 전호출입구 옷터에는 허리부러진 통나무가 드나드는 사람의 이마를 찌를듯 드리워있다.

통로에 가득 쏟아진 흙이며 둘은 포중대동무들이 포주위에서 떨어못지는 사이 정희가 혼자서 간신히 쳐내여 통행할수는 있게 하였다.

바다 먼 어둠속에서는 함포들이 계속 아가리에 서 불을 토했다.

지진에 치우듯 전호는 간단없이 울렸다.

이따금 가까이에서 떨어지는 포탄폭풍에 먼지가 전호속까지 확 풍겨들었다.

아직 채 가지지 않은 희멀어진 별빛아래 거뭇거뭇 멀고 가까운 섬들을 뒤에 두르고 인천바다는 새벽대기속에 마치 허바닥들을 다시는 피에 주린 악귀들의 소굴처럼 생각되었다.

크고작은 함정들은 바다한가운데 한 해적도시를 이루고 있지만 지금도 희뜩희뜩 눈에 띄는 마스트며 굴뚝이며 포아가리며 선체는 피문은 이발로, 발톱, 손톱으로, 살기 서린 눈깔들로 보였다.

《이젠 포탄 오기두 틀려버렸군.》

혼자 말하듯 대훈의 굵은 음성이 느릿느릿 들려왔다.

《날이 다 밝는군요.》

정희 역시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대훈은 더 말이 없었다.

다시 둘은 묵묵한속에 아직 어두운 바다멀리 시퍼런 불이 번쩍이는 함포아가리들만 바라보았다.

정희는 자기도 모를 힘에 끌려 대훈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어쩐지 정희는 이 시간의 대훈의 얼굴표정이 마음에 걸리는것이였다.

어둠속에 회미하기는 하나 대훈은 여전히 투지 만만한 긴장된 얼굴이어서 정희는 다시금 안도되는 마음이였다.

대훈에게서 도로 고개를 돌린 정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생각못했으면서 어쩐지 바로 이 시각에는 이제껏 할 기회가 없었던 서로의 마음속의 온갖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할것같은 간절한 충동을 어쩔수 없었다.

정희는 저으기 망설이던 가운데 다시 책 고개를 돌렸다면 다음 몸을 일으켜 나무결상 한귀를 내려주며

《여기 앉으세요. 중대장동무...》

하고 대훈에게 권했다.

《좋소.》

대훈은 결상을 굽어볼뿐 앉을념을 안했다.

정희는 몸을 일으킨 그대로

《앉으세요. 좁은대로 앉으세요.》

하고 재차 권했다.

대훈은 그리고도 얼마를 그냥 서있다가 결상에 걸터앉자 오른팔을 책상위에 버리듯 눕혀놓았다.

거북스런 가운데 둘은 다시금 한동안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정희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와작 저려왔다.

정희는 이제는 서로 마지막시간이 가까와왔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

그러며 정희는 지금 이 동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정희는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도 중대장에 대한 생각이 더 가슴에 가득했다.

그런데 불쑥 대훈은

《동무는...》

하고 느린 어조로 혼자소리처럼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두 들어가는것이 좋지 않겠는지...》

《왜요?》

정희는 얼굴을 들었다.

《포탄이 안오는 한 월미도는 오전안으로 저놈들한테 주어야 할것이요.》

정희는 그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정희자신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보다도 정희는 판 간절한 이야기를 나누고싶은것이였으나 생각도 말도 나가지 않고 가슴만 저렸다.

다시 얼마의 막막한 시간이 지나간 다음 대훈은 문득 갇추매없는 굵은 음성으로

《동무는 죽음이 무섭지 않소?》

하고 물었다.

말을 하는 사이도 대훈의 눈은 바다속 놈들의 함정들을 겨누고 있었다.

정희도 한곳을 지키며 말을 못하다가

《아니요.》하고 나직이 대답했다.

그러나 정희는 자기도 모를 흥분속에 저으기 창창한 목소리로

《그보다두 저는...》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음성은 가끔 목에 걸리어 거북하게 울려나왔다.

《그보다두 저는 중대장동무며 중대동무들과 알게 된 시일이 짧은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두렵거나 슬픈 생각은 없이... 어떻게 말루 표현할수는 없어두 기쁘구 행복한 마음이에요. 참말 저는 중대장동무며 중대동무들때문에 지금은 제 일생의 그중 귀중한 시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철없다고 꾸짖지는 마세요.》

대훈은 입을 열지 못했다.

대훈은 정희의 일로 하여 벌써전부터 마음이 자못 무거웠었다.

그의 심정이 무조건 고맙고 귀중하게 생각되면서도 그것에 무언가 잘못된 게 없었던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

얼마후 대훈이 역시 거북스레 입을 열었다.

《그러나 나는 동무의 일로 마음이 피로와지오.

아니 그보다두 무어라고 해야 할지... 저쪽 동무들두 같은 말을 했소만 동무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요.

모두 동무하고는 형제를 만난것처럼 생각하고 있소.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 싸워오는 마지막이 될는지 모를 이 전투를 앞에 놓고 동무는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더 뜨겁게 하여주고 있는지 모르오. 말하자면 동무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마지막순간까지 싸울것을 맹세한 젊은 아들들인 우리 전사들의 자랑과 기쁨을 더욱 찬란하게 하여주고 있는것이에요... 우리는 동무와 같이 있을 시간이 목전에 한정된것이 얼마나 애석한지 모르오. 그만큼 또 우리에게서 동무가 아직 여기 남아있는것이 피로와지는것이에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를 참된 길로 그냥 채찍질해주세요.》

정희는 자기 생각만 좇으며 외우듯 말했다.

대훈은 말대신 책상우에 가지런히 놓인 정희의 두손을 꼭 잡았다.

서로 겨누는 방향은 달라도 눈들은 타는듯했다.

바로 전호앞 얼마 떨어지지 않은곳에서 포탄이 터졌다.

폭풍이 확 전호안에 밀려들고 모래, 돌짝과 먼지가 날아들었다.

그러나 대훈이도 정희도 그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한모양으로 앉아있다.

정희 역시 지금은 앞에 놓인 같이 싸울 한정된 시간을 생각하며 이름 못할 감정을 달랠길이 없었다.

대훈은 한결 어성을 바꾸어 정희에게 물었다. 이제사 이것을 묻는것이 새삼스런 생각이 들었다.

《동무는 고향이 어디시요?》

《청진이에요.》

《입대하기전에는 무엇을 하셨소?》

《방적공장에 있었어요. 47년도부터 방적공으로 있다가 작년에 군대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 이내 해군기술학교에 가게 되구 졸업한지 반년만에 이번전쟁에 나오게 되었어요.》

검은 속눈썹을 간간이 내리덮는 정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 대훈은 회상하듯 입을 열었다.

자신 무엇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겠는가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나는 고향이 충청남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북반부에서 해방을 맞구... 고향에 돌아가자고 했지만 벌써 미제원썹놈들이 기여들어왔소. 그래 고향에 기여든 저 원썹놈들을 죽치려고 일찌기 군대에 들어왔소.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돌아가 어릴적 그리운 이들을 찾은뒤 마을을 위해 무척 많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어 왔소... 욕심꾸러기처럼 무슨 일이든 많이하지 않으면 한것 같지 않은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싸우는것만도 한은 없지만... 또 내 아나라두 얼마든지 열렬한 동무들이 고향을 위해 일을 해주겠지만 진격하는 길에 잠깐이라도 고향 마을에 들러보고싶었소.》

《친척들도 아직 계세요?》

《3촌, 4촌들이 있습니다. 동무는 방적공장에 만나고싶은 동무들이 많으시지?》

《많아요. 그렇지만 거의 전쟁에 나왔을거예요.

친하게 지낸 동무들이 많아요. 저는 그 동무들과 책읽은 이야기를 하는게 제일 기쁜 일이었어요. 읽던 책에 너무 감동돼서 밤중에 미치광이처럼 동무네 집에 달려가 동무한테 읽어준적도 있었어요...》

대훈이도 정희도 눈들은 다 기쁨에 서려 번쩍이었다.

날은 더욱 밝아오고 함포는 더 세차게 주위를 울렸다.

둘은 싸움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지 못한 이야기가 더욱더 끝이 없는 사람들처럼 어렸을적 자라던 이야기며 군대에서, 공장에서 지내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하였다.

문득 정희는 먼 포성이 울려오는 동트는 하늘가 끝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각에도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불타는 이 월미도를 지켜보고 계시겠지요?》하고 조용히 뇌였다.

대훈이 역시 승엄한 생각에 잠긴듯 정희가 바라보는 북쪽하늘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며 다

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도 지도앞에서 월미도를 꼭 보시구계실 겁니다. …원썬들이 더러운 발을 들여놓은 조국 땅 어디에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그중에도 미더운 당원들이 총칼을 들고 서있는 모습을 모든 정을 기울여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큰 것인가… 정희는 이런 생각을 하며 더 입을 열지 못했다.

적들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눈에 띄었다.

점점 밝아오는 바다를 묵묵히 지키고 앉았던 대훈은 부수수 결상에서 일어섰다.

《적정보고를 부탁하오. 놈들은 또 상륙할 작정이요.》 대훈은 이제껏 이야기하던 것과 판이하게 다시금 전선에 탄력을 모두며 눈에 불길기 성성해 교통호를 나갔다.

정희는 미진한 마음을 누를길 없어하며 무전기 전선을 두들겼다.

어느덧 바다는 눈앞에 환하게 펼쳐졌다.

크고작은 가지가지 배들은 가로세로 움직이며 가까와오고 있고 함포들은 발악하듯 포탄을 퍼부었다. 전호안이 뒤집힐 듯 울리고 출입구박이 초연에 뽀얗게 되었다. 더 가까이에 기여들 때를 기다리는 듯 단 한문 남은 우리 포는 아직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먼 바다속 섬봉우리에 해살이 비치자 이번은 하늘을 가리울 듯 비행기들이 날아와 날쳤다. 앉은 자리가 마구 구겨지고 숨이 팍 막히는 것 같은 질든한 시간이 계속되었다.

함포와 포격이 좀 뜸해지는가 싶자 또 놈들은 배머리에 흰물결을 세우며 섬을 향하여 가까와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우리 포가 불을 토했다.

먼 해면에 시커먼 물기둥이 일며섰다.

그리고 또 일며섰다. 그러나 포탄은 한발씩 한발씩 너무나 외롭고 안타까웠다.

하지만 적의 함정들은 짐승의 무리처럼 얼마나 욕실득실한가! 배마다 마스트마다 날리는 붉고 푸른 기발들은 세상에 도악스러운, 어떻게 저처럼 흉측하고 가증스러운 물건일 수 있을가! 짐승들에게는 죄없는 조선사람의 간장이-간장의 피가 요구되는 것이다. 선한 생명의 모든 피가 요구되는 것이다. 마침내 한발의 우리 포탄은 적의 구축함에 명중되었다. 바로 기관부에 맞은 듯 시꺼먼 연기가 톱트림치 올라가더니 연기는 함체를 완전히 덮기 시작했다. 폭음속을 뚫고 포좌지 전호에서 동무들의 환호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 한발의 포탄은 경비함을 갈겼다.

경비함은 이내 수중에 함체를 기울였다.

우리 포는 해상에 계속 그 외로운 물기둥을 올렸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우리 포소리는 그만 멈춘 채 울릴 줄을 몰랐다.

정희는 두손을 무릎에 놓은 채 교통호쪽에만 귀

를 기울였다. 포진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희는 결상에서 일어서자 초연에 눈을 뜰 수 없는 교통호를 달음박질로 나갔다.

전호안에는 포를 쏘다 만 해병복이 람루한 땀투성이, 먼지투성이의 동무들이 손을 드리운 채 늘어서고 그 가운데 중대장 리대훈이가 왼팔을 동무에게 맡기고 눈살을 찌프리며 서있다.

대훈의 팔을 잡은 동무는 그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붕대는 피에 벌써 빨갱게 물이 들었다. 그러나 대훈은 정희를 보자 태연한 얼굴로

《구축함 한척이 격파되고 경비정 한척이 격파된 걸 보고했소?》 하고 물었다.

《네 보고했습니다. 이제 포탄이 다 떨어졌습니까?》 하고 정희는 부상당한 것은 묻지 못했다.

《떨어졌소.》 하고 무심하게 대답한 다음 대훈은 옆동무에게 《자, 그만해 놓소.》 하고 나머지 붕대를 받아 오른손으로 아무렇게나 끝을 마물근 다음 팔을 그냥 드리워버렸다.

《이젠 모두 수류탄에 따바리들을 드오. 그리구 밖으로 나가야겠소.》 대훈은 자기부터 전호구석에서 수류탄을 집어 띠에 차고 호주머니에 넣기 시작했다. 정희는 먼저 중대부에 돌아왔다.

정희는 결상에 앉을 생각도 못하고 무전대앞에 멎어 서있었다. 바다속의 해적의 무리는 흰물살을 더욱 거칠게 울리며 가까이에 퍼져 다가왔다. 이윽고 교통호로부터 리대훈중대장을 선두로 중대원들이 모두 따바리에 수류탄들을 차고 나타났다. 정희는 동무들의 얼굴이 류달리 일일이 살펴졌다. 중대장이자 전원 여섯명 누구나가 여전한 한결같은 기개 드센 얼굴이었다.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잠간동안 대훈이도 정희도 동무들도 한곳에 우중충 모여서 바다우 놈들의 함체의 움직임이며 흰파도를 지켰다. 놈들은 훨씬 섬에 가까와지면서 함포를 멈추었다. 비행기도 뒤로 물러갔다.

중대장은 대원들에게 전호를 기여나가 물가에 진을 칠 것을 명령했다. 동무들이 나가는 뒤모양을 일일이 살피던 대훈은 정희쪽에 돌아섰다.

《부상당하셨어요?》

기다렸던 듯 정희는 이제서 그것을 물었다.

대훈을 생각하는 그리고 동무들을 생각하는 뜨거운 물결이 끓듯 가슴속이 소용돌이쳤다.

《파편에 좀 맞았소.》

《많이 다치셨나 본데…》

중얼거리며 정희는 자기 손을 대훈의 피가 배어나 흐르는 팔가 사이에 다치지 않을 정도로 엉겨주춤 이끌리듯 가져갔으나 더는 아무러지도 못했다. 생각하면 지금 그런대야 필요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대훈은 그것에는 생각도 가지 않는 듯 다시 놈들이 밀려드는 바다쪽에 고개를 돌렸단다 다음

《자 서루 마지막 임무를 깨끗이 수행합시다.》 하며 성한 오른손을 내어밀었다. 뜨거운 눈길에 서

로 맞부딪치며 말들이 나가지 않았다. 정희는 무엇든 들어라도 주듯 힘들여 자기 손을 대훈에게 주었다.

《전국이 어려워질것 같소... 그렇지만 일시키 모두 이를 갈며 막아설것이요.》

정희는 가슴에 고패치는 마음 어찌할길없이 대훈의 손을 두손으로 잡자 앞으로 쳐들었다.

그리고 그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던 정희는 책 고개를 들자 메여오는 목을 겨우 가누며

《중대장동무, 저두 함께 나가 싸울수 없어요? 저두 나가 싸우게 해주세요.》

라고 간원하듯 말했다.

그러나 대훈은

《안되오. 동무의 임무는 그것이 아니요.》

하고 엄하게 말했다.

그래도 얼마를 대훈의 얼굴을 간절하게 바라보던 정희는 단념하듯 이윽고

《저한테 수류탄을 하나 주세요. 보고를 더 계속할수 없을적에 쓰겠어요.》

하고 말했다.

대훈은 그 불같은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다 말없이 바지주머니에서 수류탄을 한개 꺼내주었다.

대훈은 정희를 다시한번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책 돌아서더니 전호밖으로 걸어나갔다.

정희는 무전대앞에 단정히 앉아 전건을 잡았다.

전건옆에는 수류탄이 이내 손이 닿을수 있게 놓여 있다.

정희는 타는듯한 마음으로 전건을 눌렀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통신이 될것이다. 통신이 그칠 때 그때에는 전건옆에 쪽철을 퍼놓은 수류탄이 터질것이다. 마지막 나의 통신을 정성껏 받아다오. 너와 모든 동무들에게 곱힐줄 모르는 싸움과 승리가 있을것을 빈다... 1번수.》

정희는 다시금 몸을 단정히 하며 눈을 바다가로 가져갔다.

바다를 가르며, 바다에 넘쳐날듯 놈들의 상륙썰매들이 물가를 향하여 쏜살같이 다가왔다.

놈들은 물결을 헤치며 배에서 쏟아져내리자 물가에 개무리처럼 까맣게 밀려들었다.

사단지휘부 무전실 유리창아래 무전대앞에는 턱밑에 물결이 선연한 해병복의 3번무전수가 눈물고인 눈도 씻지 못한채 온 정신을 수신지우에 기울이고 있었다. 자주빛연필이 수신지우를 넘어지듯 달렸다. 이윽고 무전수는 수신지들을 착착 겹친 다음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옆에 따로 밀어놓았던 자기에게 온 수신지를 잡고 망설이다가 그것까지 겹쳐들고 사단장실로 들어섰다.

나이 40이 넘는 듬직한 몸에 눈썹술이 많은 옛 항일투사인 사단장은 방안을 거닐던 그대로 걸음을 멈추고 근엄한 눈길로 전문을 읽기 시작했다. 먼저 3번수에게 온 첫 전문을 읽은 다음 분초의 사이를 못두고 수신지로 시선을 옮겼다.

《8시 47분... 중대장이하 중대원 여섯명 수류탄과 따바리를 휴대하고 물가로, 배에서 내린놈들은 개무리처럼 까맣게 물가에 오르기 시작, 해안 포용사들은 바위틈에서, 포탄구덩이에서 따바리를 휘두르며, 수류탄을 던지며 일떠선다. 놈들은 물가 진흙땅에 쓰러져간다. 거품이 어지러운 조수는 물감 풀리듯 붉게 물들어간다. 우리 범들은 몸도 감추지 않고 물가까지 나가 감탕속에 버티고 섰다. 용사들의 탄환, 수류탄은 겹쳐나오는 놈들의 배통, 골통을 그대로 가르고 마른다. 놈들의 전진은 수라장을 이루고있다... 1번수.》

《8시 57분... 뒤따라나온 놈들의 상륙정은 물가에 땅크를 내려놓았다. 땅크는 중기, 경기를 미친듯이 휘두르며 흙탕속을 기여나온다. 우리 동무들은 저마다 얼드렸다 또 일어났다간 얼드린다. 그냥 보이지 않는 동무도 있다. 불쑥 오른손에 수류탄뭉음을 든 리대훈중대장이 일어섰다. 땅크를 향하여 수류탄뭉음을 던졌다. 수류탄이 터진뒤 땅크는 무한레도가 끊어진듯 감탕속 한자리에서 몽겐다. 또 하나 땅크가 그옆을 기여나온다.

중대장은 더 보이지 않는다. 놈들의 세찬 불길속에 또 한동무가 일어섰다. 수류탄을 던지지 못한채 넘어지고 말았다. 우리 동무는 더 불수 없다... 1번수.》

《9시 5분... 놈들의 선두땅크는 벌써 내 전호 우측을 뒤로 달리고 있다. 또 한대가 그뒤를 따라 올라온다. 그도 보이지 않고 또 판 땅크와 땅크... 그리고 개무리들이...》

미국놈 검둥이에 일본놈까지 또 까맣게 따라올라오고 있다. 전호출입구에 미국놈 한놈이 막아섰다. 나는 이미 수류탄을 쥐었다. 어리석은 이놈은 총을 겨누며 나를 향하여 다가...》

밤잠을 못자 눈이 부석부석한 사단장은 다 읽은 뒤에도 수신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손을 떨쳤다. 원썬들의 시체에 덮인 감탕이, 피에 물드는 거품, 흐린 조수가 어수선히 눈앞에 떠올랐다. 옆에 와 선 눈이 부리부리한 젊은 참모장이 수신지에 손을 내어밀었다.

사단장은 참모장에게 수신지를 주며 혼자생각에 얹혀 중얼거리듯, 그러나 천근무게로 떠옴떠옴 말했다.

《이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소. 최고사령관 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불덩이같은 이런 사람들을, 놈들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것이요...》

(1952년)

내 고향의 맑은 샘

문용철

숫고 숫아
이처럼 맑고 정갈하게
몇십년을 숫고 숫아
내 고향 마을에는 얼마나 고운 꽃을 피웠으며
조국이 못잇는 아들들은 얼마나 키웠느냐

아마도
너처럼 맑은 물을 마신이의 가슴에는
언제나 맑은 피가 흘렀으리
너처럼 푸르른 샘줄기를 지닌이의 마음은
언제나 젊어서 늙지를 앓았으리

우리 마을 어머니들
너의 물을 긴고 길어 밥을 지어
그 모든것 우리의 이 몸이 되었을진대
어찌 우리의 몸과 닮아
너처럼 순결한 맑음이 비끼지 않으랴

아침마다 이 샘물을 길노라
언제나 저고리소매 젖어있던

어머니의 웃음지은 얼굴우에
내 모습도 어우러져 웃나니
아 무심히 비치인 이 샘물에서조차
어머니의 웃음은 아들의 웃음을 업고 있구나

태어나 자라며
어머니의 젖보다도 더 많이 마셔온
이 샘물
내 어찌 흐리울수 있으랴
내 조국 위한 먼먼 길에
더운 가슴 추기려오는 아들은 되여도
흐린 마음 씻으려 오는
아들은 되지 않으리

아 마를줄 모르는 조국애의 젖줄기로
끝없이 숫고 숫아
내 고향 마을에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랴
조국이 자랑하는 아들들은 또 얼마나 키우랴

추억을 남기리

심재훈

머리에 내린 흰서리
마음에야 어이 없을수 있으랴
마가울 불타는 단풍마저
가슴에 시흥을 불러주는데

내 로친 처녀시절 그리도 반하던
고수머리 반쯤 가리던 이마에
어느덧 깊은 주름살도
내 열정의 가슴에야 어이 패이라

나에겐 쇠장대를 쥐고 쇠물을 휘젓던
그날의 냇이 있다
쇠물이 끓어야 함께 끓던
오늘도 식지않은 심장이 있다

늙음을 차던진 정열이 있다

쇠물을 끓이던 그 시절처럼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심장의 피를 끓이고 끓여
쇠물같은 시를 남기며
지나간 청춘을 불러오리

하여 몇몇이 하늘 향해
치여든 머리의 흰서리에
선망의 눈길을 모으리
쇠물끓는 사나이로 누구나 부러워 바라보던
젊은날의 그 웃음 잃지 않으리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리

사랑에 대한 생각

김송남

1

내 조용히
 자신에게 묻는 때 있어라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겨운 눈빛인가
 따뜻한 손길인가
 환희인가 고뇌인가 그 아니면은
 쉽게는 대답못할
 또 그 무엇인가

물으면 물을수록
 가슴 찢듯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이야기
 눈앞에 어려오는 수많은 주인공들...

어디가나
 사랑의 훈향으로 가득찬 나라
 이 땅에선
 만나는 사람마다
 흐르는 순간순간이
 나에게 그 뜻을 말해주는듯

이것이 사랑이다
 삼태자의 고운 불을 다독여주며
 해빛 눈부신 산원의 창가에 피어나는
 젊은 어머니의 밝은 저 웃음

이것이 사랑이다
 대원들의 생명을 지켜
 터지는 수류탄 몸으로 덮은
 영웅의 마지막숨결속에
 그리도 뜨거웠던것

그 모든
 깨끗하고 뜨겁고 억세인것을 지켜
 위대한 우리 장군님
 끝없이 이어가시는 선군의 길에
 전설처럼 꽃피난 《악크림》 이야기며
 《축복》이 《홍단》이
 새 생명의 이름이
 온 나라의 기쁨으로 빛발쳐오른 그 이야기...

귀기울이라
 내리사랑
 올리사랑
 사랑이 넘치는 나라
 이 땅에선 그 뜨거움이
 햇빛속에 깃들고 바람속에 스배였다
 그 향기는 어디에나 진동한다

침상에 누운 영예군인총각
 찾아온 처녀에게 말하누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동무의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귀뿌리까지 빨개진 처녀
 다소곳이 머리는 숙이였어도
 수그릴수 없는 결심을 불길로 일으키누나
 《아니예요...
 이건 희생이 아니예요
 전...전...》

못다한 말 흐느낌으로 터치며
 침대머리에 얼굴을 묻는 처녀
 가늘게 떨리던 작은 어깨우에
 얼마나 참된 사랑은 떠실렸던가

조국의 큰 사랑에 이어진 사랑
 바치여 아낌없는
 자기의 헌신으로
 기쁨도 행복도 찾는
 선군시대의 숭고한 사랑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한마디 말로는 대답할수 없는것
 높뛰는 심장들은 말해주고 있구나

사랑은
 자신보다 큰것을 위해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라고!...

2

사랑없이 사람은 못살아
 가슴속 넘치는 정과
 피줄에 흐르는 뜨거움

바칠데 없이는
사람이 못살아

지구의 어데선가는
일신의 영달에 미쳐난자들
소란한 환락에 몸을 맡겼느냐
패륜패덕에
제 삶을 좀벌레처럼 쓸아먹히우면서도
사랑의 희열을 감히 말하느냐

사랑하노란다
실업의 무리
한끼의 빵조각을 걱정할 때에
애완용개에게
번쩍이는 보석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저도 사랑하노란다

사랑하노란다
변색한 우정
퇴화한 의리
등치고 간뺨고 서로 속이며
입술에만 내비친 그런 웃음으로
저도 사랑하노란다

아, 거기에선 부끄러우라
사랑이란 말이여
그 달고도 신성한 이름을
면사포처럼 뒤집어쓴 악행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사랑의 이름으로 살해했더냐

사랑의 이름으로
살판치는 악덕은
인간의 량심에 대한
가장 수치스러운 배반
정의와 진리에 대한
천추에 용납 못할 악랄한 도전...

《악의 축》을 떠들며
신성한 주권국가를 타고았으려
최신살인장비가 날아오른 그곳도
《자유의 녀신》이 감람나무가지를 흔드는
《박애》의 그 푸르른 그늘밑이었다

생존의 권리를 찾아
학원의 민주화를 불려
어깨를 짜고 나선 그 가슴들에
죽쇄를 채운 그 곳도
《인권》과 《복지》가 약광고처럼 나붙은
그 광장에서였다

총칼이
정의와 진리를 란도질하고
돈으로 환락의 탑을 쌓는
거기는 이미
무덤속에 사랑을 묻어버린
황량한 폐허

거기엔
흐려진 눈으로 세상을 보는
향연의 도도한 취흥은 있어도
래일의 희망을 땀으로 가꾸는
인간의 사랑은 없다

팔다리는 움직여도
뇌수는 이미 운동을 멈춘 삶
살아있다고 생각지 말라
사랑한다고 생각지 말라

아, 모독된 사랑
질식된 사랑
거기는 벌써 사랑이 끝나버린곳
하여
그 모든 운명도 종말을 고하였음을 알라

3

사랑이란 말이여
너는 아름다워라
사랑이란 말이여
너는 숭고하여라

세기를 넘는
시인들의 찬가속에도
가장 아름다운 말로
채색된 사랑

허나 우리는 자랑한다
그 모든 사랑우에 있는
이 땅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가장 깨끗한 량심으로 정화되고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승화되어
력사의 진리
주체의 힘으로 응결된
선군의 사랑
조선의 사랑을

그것은

이 세상 하나인
 백두산천지에 시원을 두었다
 거기서 천줄기 만줄기 뻗어내린
 이 땅의 산줄기들처럼
 거기서 창창히 굽이쳐내리는
 압록강 두만강 푸른 물줄기처럼
 대를 이어 흘러흐르는 영원한 사랑

그것은
 무적의 총대를 뻗쳐
 인민의 머리 위에
 영원히 은혜로운 태양을 얹어준
김일성-김정일 사랑

그것은
 아들딸의 의리로
 혁명전사의 도리로
 백두산3대장군을 받드는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불같은 사랑

내리사랑 뜨거워
 받드는 마음도 불이 되었노라
 그 끝없는 열기로
 이 땅에선 아침이 밝고
 저녁별도 반짝이나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우리 당이 좌우명으로 추켜 든
 이 구호속에 울리는 사상이
 이 세상의 참사랑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인민의 가슴이 터쳐올린
 이 대답속에 울리는 뜨거움이
 이 세상의 참사랑

한데 뭉치면 성새가 되고
 그 사랑 합치면 힘이 되는
 일심단결 혼연일체
 핵탄도 이기는 이 위력을
 우리는 건설했다

조선혁명이 그것으로 시작되고
 조선혁명이 그것으로 승리하는
 동지에 사랑의 힘이어!
 당, 군대, 인민이 하나로 된
 불패의 생명체
 최상의 높이에서 빛나는 사랑이어!

돈의 노예들은
 돈의 힘만을 믿으라
 우리는 사랑
 그 힘만을 믿는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건설하리
 강성대국 태일과 통일조국의 미래를
 사랑으로 영원한 새 세기를

이 사랑은
 아슬히 높은 주체사상탑이
 세계의 하늘에 들어올린
 조선의 정신
 조선의 재부

사랑을 아는 사람들
 아름다워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
 강대하여라!

4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처럼 그 뜻을 아는 사람
 세상 어디가도
 만날수 없으리

물이 흘러갈 제곡을 알듯
 봄싹이 머리 들 하늘을 알듯
 우리는 안다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 바쳐야 하는지

삶이 천날 만날이라면
 그 천날 만날을 바쳐
 삶이 순간이라면
 그 순간을 바쳐
 사회주의 내 조국을 위해야 하리
 어머니 우리 당을 받들어야 하리

우리는 사랑할것을 사랑한다
 우리가 언제를 쌓은 크고 작은 발전소들과
 산골짜기에 새로 세운 염소목장마을을
 동해가에 처음 펼친 무연한 소금밭과
 바둑판같은 토지정리 넓은 벌을

우리는 사랑할것을 사랑한다
 우리의 집과 이어진 출근길을

최전연 전호가와 쇠물 끓는 구내길에
꽃피고 눈내리는 우리의 네계절을

선군으로 불리우는 우리의 세월
자기가 선거한 인민주권과
사회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투쟁을
우리가 부어내고
우리가 버리어낸
자위의 총검과 대포와 땅크
《광명성》이 날아오른 푸른 하늘을...

얼마나 좋은가
이 사랑에 산다는것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제 발로 걸어간다는것
세계를 휩쓰는 미친 바람과 맞서
자기의 일터와 자기 집 창문
자기의 안해와 귀한 아들딸
소중한 그 모든것을 지켜간다는것

재가 되여도
한번 타오르면 끝수 없는 불이 될

그 사랑을 위한 우리 삶이여
홀어져도
멈춤없는 폭풍이 되여
그 사랑에 바치는 우리의 삶이여

그 사랑으로
우리는 자신과 조국의 운명을 함께 떠안은
새 세기의 주인으로 산다
그 사랑을 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 이름으로 높이 솟은 우리의 사회주의는
누리에 빛발친다, 빛발친다

위대한 우리 장군님
선군의 해발로 더 억세게 가꿔주시는
주체의 위대한 이 힘으로
자주세계의 초석을 놓으며
조선의 사랑은
만발하여라!
불타올라라!

무식은 암흑이고 지식은 광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오늘의 시대와 혁명발전에서 지식이 노는 중요성과 역할을 통찰하시고 무식은 암흑이고 지식은 광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명언이라는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무식은 암흑이고 지식은 광명이다. 이 말속에는 알아야 앞을 내다볼수 있고 알아야 앞길을 개척할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모르고서는 암흑속에서 헤매이는것과 같이 한치앞도 분간할수 없고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오직 지식만이 칠칠야밤의 등대와 같이 운명개척의 앞길을 밝힐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란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들의 리치에 대한 인식, 사물현상들의 본질과 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의 총체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현상들은 무한히 다양하고 복잡한 련관속에 있지만 그 근처에는 반드시 그 사물의 존재와 발전을 규제하는 내적인 본질과 필연적인 발전법칙이 있다.

때문에 지식을 가져야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을 옳게 파악하고 그것을 사람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도 찾을수 있다.

지식의 의의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커진다.

오늘의 시대는 실력전의 시대, 두뇌전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가 더 폭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활용해나가는가에 따라 운명개척의 승패가 좌우된다.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힘은 우리들자신, 우리의 지식과 능력에 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배짱도 아는데서 생기며 시대를 내다보고 앞날을 개척하는 혁신적안목과 실천력, 세계최상급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능력도 세계발전추세와 그 필연적전망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나온다.

오늘의 시대는 지식의 높이이자 충실성의 높이이다. 열성과 투지만으로 일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오직 높은 지식과 실력을 가져야 당에 충실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현시대에 맞는 과학기술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우리는 명언 《무식은 암흑이고 지식은 광명이다》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부각시켜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새기고 시대의 명작창작을 위한 실력을 끊임없이 련마해나가야 한다.

내 고향의 작은 집

박일명

지금은 밤이다.

래일 아침이면 나는 대외사업의 중임을 맡고 조국을 멀리 떠나게 된다.

나는 온밤 잠못들고 창결에 굳어진채 별무리 흐르는 평양의 거리를 바라본다. 그러느라니 흥분으로 뒤설레던 마음은 조용히 잤아들고 가슴가득 정에 겨운 뜨거움이 솟구쳐올라 눈시울을 적신다.

저멀리 흘러간 세월속에 내 고향의 작은 집이 감실감실 피어오르는 아침안개속에 묻히여 눈앞으로 다가든다. 금시 문이 열리면서 백발이 된 나의 어머니가 운택이 흐르는 밤색함지를 옆구리에 끼고 마당으로 나설듯 그리고 먼 평양하늘을 이윽히 바라보며 나를 부를듯, 나를 키우며 타이르던 봄날처럼 따뜻하고 향기 그윽하던 그 음성...

1

인생은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끝나는가 싶다. 그 사랑이 없어야 이 세상에 고고성을 터친 아기의 소생을 어찌 생각할수 있으며 대장부의 위용을 어찌 기대할수 있으랴. 그래서 낳은 정보다 기른정이 더 크다는 말도 생겨나지 않았을까?

우리 집은 마을 한쪽의 작은 토벽집이었다. 마을이라야 여러문채의 토벽집이 가물에 콩나듯 듕성듬성 널려져있는 보잘것없는 촌락이었다. 마을 앞으로는 바람에 날리는 파란땡기처럼 장자강이 너울너울 흐르고 마을뒤로는 조금 멀게 벼랑산이 병풍처럼 둘러막혀있어 벽촌의 한적한 정서가 짙게 떠돌았다. 그래도 장자강은 사람들의 삶의 요람터였으니 나의 유년시절은 장자강과 함께 흘러갔다. 장자강은 나에게 있어서 유년시절의 생을 키워준 샘과 같은것이였으며 껍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나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겨준 강이기도 하였다. 우리 집은 장자강가까이에 있다보니 장마철이 되면 어머니와 나는 범람하는 장자강물에 쫓겨여 피난처를 찾지 않으면 안되곤하였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밤이면 이불이며 옷가지들을 보자기에 싸서 대피할 준비를 해놓고꼬박 밤을 밝히면서 불안에 떨던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어머니는 문을 열고 자주 밖으로 나가 장자강물이 불어나는것을 감시했고 나는 옷을 입은 채로 꿈겨놓은 이불우에 앉아 토끼잠을 자곤했다. 어느 때면 살뜰한 녀인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나의 몸을 어루쓸던 맑고 정가롭던 물은 장마철만 되면 황토색으로 널름널름 우리 집을 삼켜 버리

곤하였다.

나는 범람하는 물이 무서워 여러번 읊으로 이사를 가자고 어머니에게 졸라대곤하였지만 어머니는 토벽집에 무슨 정이 붙었는지 아무말없이 흠을 바르고 다시 생활을 껴곤하였다. 집수리를 할 때에는 내가 큰어머니라고 부르는 인민반장어머니가 마을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집을 손질해 주곤하였다. 인민반장어머니는 우리 집 뒤채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나를 무척 고와하였다. 반장어머니에게는 옥녀라는 막내딸이 있었는데 그와 나는 쌍둥이오누이처럼 친하게 지냈다. 날이 밝으면 누런가마치를 껴져진 옥녀가 새콩지같은 뒤머리를 달씩이며 오리발 걸음으로 찾아오곤 하였는데 나는 늦잠을 자다가도 그의 목소리만 나면 발딱 일어나 문을 열어주곤 하였다.

우리 집은 마을사람들의 관심속에 있었다. 내가 앓기만 하면 마을어머니들이 찾아와 나의 이마를 짚어보며 걱정을 했고 별의별 음식을 다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 시절에 나는 마을사람들이 우리 집을 왜 그렇게 관심했으며 왜 나에게 대하여 걱정들을 하였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옥녀는 내가 앓으면 나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의 파리한 손을 매만지며 감포라지같은 까만두눈에 눈물을 머금고 《넌 왜 자주 앓기만 하니?》하고 안타까와했다. 그럴 때면 나의 어머니는 옷깃으로 눈굽을 찍으며 호-하고 가는 한숨을 내긋곤하였는데 가냘픈 어머니의 정상이 어린 가슴에도 눈물겹게 안겨와 나는 《엄마 울지 말어.》하고는 울음을 터치곤하였다. 그러면 옥녀도 소리내여 따라 울었다.

마을사람들은 내가 자주 앓는 원인이 젖을 먹지 못하고 자랐기때문에 너무 약하여 오가는 병에 다 걸린다고 하였다.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어느날 밤 나의 손이 어머니의 젖가슴을 허빈적이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나의 손을 툇 쳐갈기던 일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그통에 정신이 말짱히 든 나는 해죽이 웃어보였으나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여 눈을 벽쪽으로 돌리고 까닭모를 설움에 잠기였다. 그러는 나를 야릇한 눈길로 한동안 바라보던 어머니는 왜서인지 아래입술을 꼭 뭉쳐물고 천천히 옷자락을 올리였다. 그러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올랐다. 나는 어머니의 눈에 피어오르는 눈물을 보고 이상스러워 울롱한 눈길로 매록매록 바라보다가 나도 울먹울먹해져 《엄마, 왜 그러나?》하고는 눈물을 참느라고 눈을 습벅이었다.

부드럽고 살쫍한 젖꼭지가 나의 입술에 와닿는 순간 어머니의 몸은 가볍게 떨리었다. 그때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나는 너무도 몰랐다. 단지 어머니의 젖이 다른 어머니들과는 달리 풍만하지 못하고 작았으며 그것도 가슴에 말라들었다는 생각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니 어머니는 거울앞에 앉아 귀밑머리를 추스르며 하염없이 거울을 보고 있었다. 나는 거울앞에 그렇게 앉아있는 어머니를 처음 보았으며 더우기는 그때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예쁘장하고 처녀같이 젊은 여자라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느꼈었다. 어린 생각에도 나의 어머니는 정말로 고왔다. 우리 마을에 곱기로 소문난 여자는 옥녀의 딸언니였는데 그는 역실역실한 눈으로 하여 잘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의 어머니는 얼굴이 동실하면서도 가름할 사하고 살결이 배꽃처럼 하얀데다가 크지도 작지도 않는 눈은 이슬을 머금은듯 야르르한것이 더 이뻐다. 하긴 그때 어머니의 나이는 스물다섯살 쯤이었었다.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의 별도 따다 줄만치 극진하였다. 어머니는 나의 몸을 추세워 보려고 강가에 나가 보쌈을 놓아 고기를 잡아다가는 장을 넣고 보골보골 끓여주기도 하였고 어죽도 써주곤하였다. 녀자의 몸으로 보쌈을 놓는다는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였으나 어머니는 여똥한철 매일이다 싶이 보쌈을 놓곤하였다. 그러던 어머니는 어느날 염소 한마리를 사왔다. 염소젖을 매일 먹으면 아이들이 좋아진다고 누구에게서 말을 들은것이였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침에는 이슬을 차며 강기슭잔디밭에 염소를 매놓았다가는 저녁이면 끌어다 젖을 짜서는 끓여서 나에게 주곤하였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 꺾하면 않던 나는 앓는 법을 점점 몰랐다. 내가 앓으니 나는 어머니가 앓고있는 몸이라는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초물처럼 태웠으니 그것이 어머니의 병을 더 악화되게 한것 같았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나는 소학교 학생이 되었다. 우리 마을에서는 옥녀와 나, 철수라는 아이, 이렇게 셋이 한학급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그때는 학교가 읍에있었기때문에 우리는 시오리나 떨어진 읍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였다. 어머니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만 나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앓는체를 안했다. 나는 어머니가 무슨 병으로 앓는지 알지 못했다. 어느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인민반장어머니가 와있었는데 무슨 말인가 하다가 끊는것이였다. 그러던 큰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를 측근한 눈길로 바라보더니 《어쨌든 알게 될터인데 이왕이면 명일이에게 말해주자구.》라고 하였다. 그 말에 어머니는 큰일이나 난것처럼 펄쩍 뛰며 큰어머니에게 사정사정하는것이였다.

《아니예요. 그러지 말아요. 전 안가겠어요.》

《그럼 어찌겠니. 너는 그래야 병을 고쳐.》

옷을 갈아입던 나는 큰어머니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무엇인지 그렇게 해야 어머니의 병을 고칠수 있다는게 아닌가. 어머니의 병만 고칠수 있다면 무슨 일든 할 나였다.

《큰어머니, 그게 어떻게 하는거냐요. 어머니병을 고칠수 있다는데 빨리 그렇게 하자요.》

나는 큰어머니의 팔을 잡고 졸랐다. 큰어머니는 더 말을 하지 않고 푸-하고 한숨만 길게 내쉬는것이였다.

며칠이 지나갔다.

우리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낯모를 남자가 집에 오기는 처음이였다.

《어머니 계시냐?》

나는 대답대신 공포에 가까운 눈길로 낯선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히, 너 왜 그러니. 난 너의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닌 없어요.》

나는 뜻모르게 무섭증이 나 올상이 되었다.

《어디 가셨니?》

《몰라요.》

《넌 아버지 있는 애들이 부럽지 않니?》

《?...》

그때로부터 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의문이 봄싹처럼 움트기 시작하였다. 옥녀도 철수도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

어머니가 시집간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철수는 《너의 어머니 시집 간대. 너를 남겨두고》하며 나를 놀려주었다. 그 말에 나는 설음이 울컥 솟구쳐 올라 혼자서 쉽게 울기도 하였다. 어머니에게 물어보자고 집으로 달려오니 전번에 왔던 그 사람이 집에 와 있었다. 어머니와 마주앉아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얼굴을 외로 틀고 금시 울듯 입술을 잘근잘근 씹고 있었고 그 사람은 무엇이 좋은지 빙글빙글 웃고있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올라 왕-하고 울음을 터치며 방안으로 뛰어 들어가 어머니를 막아서며 소리쳤다.

《가라요. 우리 어머니를 못다쳐요.》

어머니는 급작스러운 일에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내가 너무 큰소리로 울며 고아대는 통에 그 사람은 어머니에게 무슨 말인지 몇마디하고는 질겁하여 줄행랑을 놓았다. 나는 어머니를 낳신 그 사람에게 빼앗길것만 같아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겨들며 간절히 부르짖었다.

《어머니 시집가지 말아요. 나를 남겨두고 어머니가 가면 난 어떻게 살아요.》

《명일이! 울지말아. 그래 엄만 시집가지 않는다. 너를 두고 내가 어디를 가겠니. 흐흐흐...》

어머니는 나를 꼭 부둥켜안고 어깨를 떨었다.

어머니는 몹시 앓았다. 한번 자리에 누우면 사

흘나흘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럴 때면 인민반장 어머니가 와서 밥을 해주었으며 어머니를 돌보았다.

이무렵 우리 마을에는 경사가 났다. 그것은 우리 집앞으로 장마의 피해를 막기 위한 동쪽공사가 진행된 것이었다. 여기저기에 붉은기가 날리고 물소리, 바람소리 소연하던 강산에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진동했다. 사람들은 앞날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푸른 하늘의 구름송이처럼 둥둥 떠다녔다.

2

아이들속에서 나는 《색시》라고 불리웠다. 아이들이 별명을 불러도 나는 반항할줄을 몰랐다. 오히려 나를 대신하여 옥녀가 발끈 성을 내곤 하였다. 옥녀는 보통이악쟁이가 아니었다.

나는 학교에 가거나 집에서나 옥녀와만 놀았다. 내가 옥녀와 노는것을 제일 시샘나 한것은 철수였다. 나에게 《색시》라는 별명을 붙인것도 그였다. 그는 학교에서 힘이 제일 센 아이였다. 그의 뒤에는 항상 아이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었다.

어느날 나는 옥녀와 함께 장자강에 나가 미역을 잡고 있었다. 동쪽공사가 있는 다음부터 아래쪽에 언제가 생겨났다. 언제라기보다 우에서 내려오는 때목을 잡아놓기 위한 물막이에 불과했다.

그때로부터 갈기를 일으키며 출렁출렁 흐르던 장자강은 길들여진 망아지처럼 순해져 찬찬히 흐르면서 강녘에 넓은 모래밭이 생겨나 읍내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구름처럼 모여들어 여름 한철이면 바다가의 어느한 해수욕장을 방불케했다. 그날 나는 해염을 칠줄 몰랐기때문에 옥녀와 함께 얇은 곳에서 땅에 손을 대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다. 그때 철수가 아이들을 달고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히히닥닥 웃어댔다.

《여 <색시>, 넌 암만봐도 계집애다. 그러니 너 자하구 미역을 감지. 물장구만 치면서 꼴 좋다.》

그는 딱 버티며 서서 시가슬렸다.

《그런데 어쩐. 넌 시샘이 나서 그러지, 심술꾸러기같은거.》

옥녀가 발딱 일어나 쏘아붙였다.

《체. 넌 명일이라면 오금을 못퍼누나. 너 명일이하고 살라 그러지.》

《그렇다. 네가 무슨 상관이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옥녀뒤에 서서 그들의 말싸움을 멍하니 지켜보기만 하였다. 옥녀는 금시 울것 같았다. 입술을 꼭 웅쳐문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맺혀 바르르 떨어지고 있었다. 철수는 옥녀보기가 멋적은지 나에게 화살을 돌렸다.

《명일아, 이리 나와라. 너자하구 그제 뭐니. 물장구만 치면서. 너 그러다 꼬토리 떨어진다.》

《하하하.》

아이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난생처음 느낀 감정이었다. 옥녀보기가 부끄러웠다. 옥녀는 얼굴을 두손으로 감싸안고 울음을 터치었다. 어깨를 떨며 몹시 싫게 울었다. 나는 옥녀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것을 처음 보았다. 하지만 그가 왜 크게 우는지 몰랐다.

《옥녀, 울지 말어.》

나는 눈을 습벅이며 옥녀를 달래었다. 그러자 옥녀는 더 크게 소리내며 울었다. 그러더니 두손을 내리우고 나를 쏘아보았다.

《바보, 넌 바보야, 속매이야. 남자라는게 왜 말 한마디 못하니. 매를 맞을가봐 무섭니. 겁쟁이같은거. 예익.》

옥녀는 총알처럼 련속 내쏘고는 형-하고 물박으로 나가 옷을 걸어안고 종종걸음으로 가버렸다.

나는 아무말도 못하고 멀어져가는 옥녀를 멀리 바라보기만 하였다. 옥녀가 던지고 간 말이 귀전에 쟁쟁 울렸다. 나는 터벌터벌 걸어나와 모래밭에 풀썩 주저앉았다.

하늘은 맑고 가없이 푸르렀다. 포도송이같은 구름이 몽실몽실 피어올랐다. 해별은 쟁글쟁글 내려쬰어 어디를 눈주어도 열기가 느껴졌다. 저쪽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들면서 미역을 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그지없이 쓸쓸해졌으며 눈에서는 눈물이 소리없이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몰랐다. 옥녀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서글픈 생각에서였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별명을 불러도 대답을 해야 했고 때리면 맞아야만 했던 나 자신에 대한 저주스러운 감정때문이었는지.

《명일아, 너 왜 혼자 우두커니 앉아만 있지. 오-옥녀가 널 버리고 달아났구나. 그러면 뭘해. 자 우리와 함께 미역을 감자.》

웃쪽에서 미역을 감던 철수가 다가와 나를 이끌었다. 나는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았다.

철수에 대한 야속한 생각이 불쑥 솟구쳐올랐다. 철수때문에 옥녀가 울었다. 철수때문에 옥녀가 나를 버리고 갔다.

《너때문에 옥녀가 갔어. 심술꾸러기 같은거.》

나는 옥녀처럼 해대고 싶었다. 하지만 입안에 서만 뱀돌분이었다. 겁이 났다. 옥녀의 말대로 철수의 주먹이 무서웠다.

《너 귀를 먹었니? 자, 저기 가서 미역을 감자. 내가 해염치는 법을 배워줄게. 여긴 계집애들이나 미역을 감는데란 말이야.》

그 소리에 나는 부시시 일어났다. 남녀라는 구별이 있는줄을 그때에야 느낀듯 하였다. 지금까지 옥녀와 나는 구별이 없었다. 함께 밤이 늦도록 놀다가 잠도 같이자는 일이 많았다. 손을 서로 꼭 잡고 옥녀의 새근새근한 숨소리를 귀간지럽게 들으면서도 아무런 구속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강변에서 옥녀와 철수와와 《싸움》이 있

은 뒤부터는 어딘가 모르게 생각이 달라졌다. 함께 학교도 가고 놀기도 하였지만 이전같이 않게 무엇에 구속되는 마음이었다.

그날 철수를 따라갔던 나는 물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철수는 헤엄치는 법을 배워준다고 하면서 나를 깊은 물속으로 야금야금 끌고 들어갔다. 물이 턱까지 올라오자 나는 겁을 먹고 헉헉 느끼면서 돌아서려고 하였다. 그러자 철수는 나의 한쪽손을 잡고 《일없어. 너 그러다 인민군대에 못나간다. 자 땅을 차면서 몸을 솟구쳐.》라고 하면서 나를 떠밀었다. 나는 땅을 차면서 몸을 솟구고 팔헤엄을 쳤지만 물속에서 무엇이 자꾸 잡아당기는것 같아 그자리에 섰다. 그러나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물이 키를 넘었던것이다. 나는

당황하여 물장구를 치면서 소리소리쳤다. 좋아라고 웃는 철수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물을 여러번 먹고 정신을 잃은 뒤였다.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집이었는데 머리맡에는 큰어머니와 옥녀, 철수와 그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나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에게서 매를 맞았는지 철수는 쿨적쿨적 울고 있었다.

《이 녀석아, 명일이에게 빌어라, 잘못했다구. 명일이가 어떤 앤지 알기나 하구 그런 장난을 쳐, 불망종같은이라구.》

《철수 엄마, 그만해요.》

반장어머니가 뜻밖에 철수 어머니에게 엄한 눈총을 쏘았다. 속이 상해 녀두리를 하던 철수 어머니는 그만 무슨 실언이나 한 사람처럼 굳어졌다. 그때 철수 어머니의 말은 어린 나의 가슴속에 때이르게 밤마다 우는 소쩍새의 울음소리와 더불어 처량하고 구슬픈 설음을 가져다주었다. 물론 어머니의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속에 새겨볼새 없이 모든것이 녹아버렸지만 까닭모를 외로운 생각으로 마음이 쓸쓸해지곤하였다.

엿친데 덮친다고 우리 집에 슬픔이 찾아왔으니 그것은 옥녀네가 이사를 가게 된것이였다. 원래 옥녀 아버지는 도당에서 일을 보았다. 한달에 한번씩 집에 왔다가곤하였는데 이사를 가지 않은것이 우리 집때문이라는것을 후날에야 알게 되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옥녀의 만언니가 도예술단 배우로 뽑혀 올라가다보니 한가족이 서로 갈라져 살수 없게 되였다.

작별이란 참으로 가슴아픈것이였다. 어머니는 반장어머니를 불안고 울었고 나는 옥녀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잘 있어. 앓지 말고...》

옥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랴. 강남갔던 제비는 때가 오면 다시 돌아와도 옥녀와 큰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영원한 작별처럼 생각되었다.

그들이 없으면 못살것만 같았으니 그래서 더 슬프고 마음이 허전했다.

《언니와 헤어져 우린 어떻게 살아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마을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왜 정임인 자기들뿐이라고만 생각해요. 우리도 자주 여기로 오겠으니 걱정말아요.》

그들은 떠나갔다. 우리 모자를 위해 그토록 마음 써오던 그들은 옛 추억만을 남겨두고 도시로 떠나갔다. 더불어 나의 유년시절은 저 멀리로 흘러갔다.

3

세월은 잔약하던 나에게 생의 영양소를 한껏 부어주어 눈비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이마적에 와서 어머니는 몹시 거칠어졌으며 나의 손끝이 갈릴세라 찬바람에 입술이 틀세라 약을 발라주고 보호해주던 그 어머니 아닌 매를 드는 《무서운 어머니》로 변했다.

옥녀와 헤어진후부터 철수는 나의 보호자로 되었다. 그는 나에게 헤엄치는 법도 배워주었으며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자고 찾아오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철수의 생각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나는 울며 겨자먹기로 매일 아침 철수를 따라 새비탈고개(마을에서 20여리 떨어진 곳에 탄광이 생겼는데 새로 길을 닦으면서 생긴 고개)마루까지 뛰어갔다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더울 때에는 그런대로 일없었지만 겨울에는 죽기내기로 싫었다. 나는 아프다는 핑계로 빠지곤 하였다.

어머니는 한번두번 나를 가만두었지만 그런일이 반복되자 내가 피병을 한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사정없이 나를 밖으로 내몰았다.

《난 네가 앓는줄 알았다. 부뚜막에 기여드는 강아지 구실을 못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추위를 싫어하고 몸을 아끼기 시작하면 사람구실을 못한다.》

어느날 나는 어머니에게 물리여 밖으로 나오긴 하였으나 찬바람을 맞으며 뛰어갔다 올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득하여 집뒤 처마밑에 웅송그리고 있다가 집으로 들어간적이 있었다.

더구나 그때 철수는 뿔을 차다가 발을 풀쳤기 때문에 보름가까이 혼자서 뛰어갔다 오곤하였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어머니는 내막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짜고짜로 나를 불러세웠다.

《이제는 네가 어머니를 속이려 드는구나. 다시 나가, 어서.》

불호령이였다. 나는 할수없이 쫓겨나왔으나 별생각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노여움과 고까운 생각에 집모퉁이에서 황소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불쑥 나타났다.

《어서 뛰어라. 한번 주저앉으면 두번 주저앉게 되고 두번 주저앉으면 아예 주저앉고 만다. 자나를 따르거라.》

나는 그만 아연해졌다. 어머니는 찬바람을 맞으면 안되는 몸이었다. 그래서 큰어머니가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시집보내려고 그렇게 마음 써온것이였다. 이제는 흘러가버린 추억이지만 우리 집에 낯모를 사람이 찾아들게 된것도 그때문이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님 들어가세요.》

나는 애원하였으나 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나는 할수없이 어머니를 따라 뛰지 않을수 없었다. 그날 아침일로 나와 어머니는 감기에 걸려 몸을 덜덜 떨기까지 하였다. 나보다도 어머니의 몸은 화독처럼 달아올랐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이튿날 아침에 또 내의 바람으로 밖으로 나섰다.

《언사과는 찬물로 얼음을 빼는 법이다. 자 일어나거라. 우린 쓰러져서는 안될 사람들이다.》

어머니는 너무도 모질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매정해졌는가, 인정도 사정도 모르는 나의 어머니 아닌 다른 어머니같이 느껴졌다.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아버지없는 설움이 북받쳐올랐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더욱 나에게 부추긴것은 학교에 새로 온 나의 담임선생이었다.

처녀교원이 우리 학급담임으로 새로 왔다. 무용수같은 날씬한 키에 그때만 해도 보기도문 곤색양복을 빼입었는데 동실한 얼굴에 홍조가 어린 발기우리한 살결과 머루알 같은 감장두눈에 감실감실 흐르는 미소는 무척 다정스러워보였다. 첫 수업시간에 그는 칠판에다가 《최선향》이라고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박아 썼는데 처음 우리들은 최선향이란 세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리둥절해져 호기심어린 눈길로 칠판만 바라보았다.

《학생동무들! 제 이름은 최선향입니다.》

그제서야 물뿌린듯 조용하던 교실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름을 불러보는 소리로 술렁거렸다.

선생님은 출석부를 펼쳐들고 이름을 부르면서 답변하는 아이들을 한명 한명 여겨보았다. 나의 이름은 맨 마지막에 있었다.

《정명일학생!》

분명 나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옆아이가 옆구리를 쳐서야 나는 정신이 들어 대답대신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명일학생은 답변할줄 모르는가요?》

선생님이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명일이는 병어리입니다.》

누군가 그때라고 생각했는지 말했다.

《하하하》

교실안에 웃음이 터져올랐다.

《선생님, 명일이는 <색시>입니다.》

다른 아이가 또 말을 했다.

나는 얼굴이 빨갛게 익었다. 공부가 끝나자 선

생님은 나를 남으라고 하였다. 나는 선생님앞에 머리를 푹 떨구고 서있었다.

《명일학생, 어디 아픈가요?》

《...》

《왜 대답이 없어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학생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집에 누가 계시는가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동안 갑자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안계시는가요?》

《아버지는 없습니다.》

《어디 가셨는가요?》

《원래부터 없습니다.》

《원래부터요? 호호호. 그럼 명일학생은 아버지없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선생님은 즐겁게 웃더니 나를 빠금히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요?》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다. 선생님의 얼굴에 떠돌던 웃음이 가시여졌다.

《명일학생은 너무 용해빠졌군요. 그러니 아이들이 놀려대지요. 남자는 남자다와야 해요.》

문득 강가에서 옥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넌 속매이야. 바보.》

그러나 그런것에는 개의치 않았다. 저녁에 집으로 온 나는 아래목에 조그리고 앉아 생각에 음해있었다. 선생님의 말대로 아버지가 없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어머니는 왜 지금껏 나에게 아버지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날 따라 어머니는 날이 어두워서야 집으로 왔다.(그때 어머니는 종합편의 수매재생상점에 다니였다.) 나는 어머니를 마중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소리없이 오도카니 앉아만 있는 것을 보고는 방에 선택로 물었다.

《너 오늘 저녁엔 어떻게 된 일이나. 누구와 싸웠니?》

《아니요.》

《그럼 왜 그러니?》

《우리 선생님이 새로 왔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 물었어요. 난 원래부터 없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내가 아버지없이 어떻게 태어났는가고 하더군요.》

나의 뜻밖의 말에 어머니의 눈은 덩실하게 커졌다가 스르시 내려감기였다.

《네가 이젠 아버지를 찾는구나.》

어머니는 혼자처럼 외우고나서 호-하고 가는 숨을 내그었는데 숨소리는 몹시 떨리였다. 필경 말 못할 사연이 있으리라는 예감이 뇌리를 쳤지만 어머니가 울것만같이 묻지 않았다.

그날밤은 저녁밥도 먹는등 마는등하고 잠을 잤다. 한밤중에 나는 꿈결에서처럼 흐느껴우는 울

음소리를 듣고 눈을 뜨니 어머니가 나의 머리맡에 앉아 울고 있었는데 손에는 사진 한장이 쥐어져 있었다.

(어머니가 왜 한밤중에 일어나 울고 있을까?... 저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

나는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의문을 안고 조용히 일어나앉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순간 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들고 있던 사진을 등뒤로 감추는 것이었다. 그러는 어머니를 나는 말없이 바라보기만 하였다. 이윽고 어머니는 사진을 나의 앞에 내놓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왕지사 너에게 뭘 더 숨기겠니. 아무때건 알게 되겠지만 네가 아버지를 찾는 걸 보니 이젠 어린 아이라고만 생각되지 않는구나. 자 이 사진을 보아라. 이분은 너의 아버지이고 그 옆의 너인은... 너의 고모이다.》

어머니는 마지막 말을 몹시 더듬었다.

나는 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한동안 사진을 받지 못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던 말인가?

나는 사진속의 아버지를 오래동안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정깊은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슬진 눈썹, 억실억실한 눈, 금시 입이 열리면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올 듯 입술은 두툼하고 코마루가 우뚝 섰다.

《아버지!》

나는 입속말로 조용히 아버지를 불러보았다. 때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 어데 가고 우리만 이렇게 사나요.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한번만이라도 아버지를 보고싶은 강렬한 욕구가 가슴을 허비며 솟구쳐올랐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하여, 고모에게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과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고모는 바로 집앞으로 흐르는 장자강에 나가 빨래를 하다가 미국놈들의 비행기폭격에 시체도 찾지 못하고 목사하였다.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증오가 부지불식간에 가슴 가득 차올랐다. 나의 아버지와 고모를 죽인 원쑤, 우리 인민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긴 미제승냥이!

그날밤 나는 세상일에 대하여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며 꼭 인민군대에 나가 아버지, 고모의 원쑤를 갚으리라 마음다지었다.

4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대지는 더운 김을 피워올리고 나무 가지마다에는 봄빛이 무르녹아 파릇파릇 새일이

돌아왔다. 강건너 앞산에도 푸른 솔숲속에 무리를 놓은듯 다금다금 진달래꽃이 피었다.

어느날 선생님은 봄맞이 가자고 우리들을 데리고 장자강기슭으로 나왔다. 아이들은 좋아라 왁작 떠들며 뽕박질도 하고 잔디밭에 뒹굴기도 하고 서로 불안고 돌아가기도 하였지만 나는 울적한 마음을 안고 강기슭 바위우에 앉아있었다. 왜 그런지 요즘 나를 그렇게 고와했다는 고모에 대한 생각이 가슴을 파고 들었다. 나를 바위우에 채우고 빨래를 하다가 폭사했다는 고모, 폭탄과 기총사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가로 뛰어나와 울고 있는 나를 안고 뛰어들어갔다는 큰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자꾸 살아올랐다. 그때 어머니는 어데가고 고모가 나를 업고 빨래하러 나갔을까? ...

《명일학생, 왜 그렇게 혼자 앉아있어요. 봄의 축복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은 명일이 혼자뿐이에요. 자, 마음껏 가슴을 펴고 봄을 마중해요.》

어쩌면 선생님은 나의 가슴속에 엉킨 천만사연의 응어리를 알고 살뜰한 애정으로 상처를 쓰다듬어주는 듯싶었다. 나는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아이들속에 파묻혔다. 문득 선생님은 아이들을 다 모이게 하고 씨름경기를 하겠다고 선포했다. 선생님은 잔디밭에 매여있는 어미염소와 새끼염소까지 끌어다놓았다. 씨름경기에서 1등한 아이에게 어미염소를, 2등한 아이에게는 새끼염소를 상으로 주겠다고 했다.

아이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어느새 염소목에 토끼풀로 엮은 꽃목걸이가 걸려졌다. 제법 분위기가 섰다. 힘내기에서는 철수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었다. 철수는 확실히 힘도 켜지만 꺾도 있었다. 나는 철수가 이길때마다 박수를 쳐주었다.

《자, 누가 또 철수와 씨름을 해보겠어요? 나오지 않으면 철수학생이 1등이에요. 자 어서 나와요.》

선생님은 심판원이 되어 철수와 상대할 아이들을 불렀지만 나서는 아이들이 없었다.

《명일학생이 한번 겨루어봐요.》

선생님은 다짜고짜로 나의 팔을 잡아끌었다.

《전 못합니다.》

나는 얼굴이 빨개져 내뺄려고 하였지만 선생님은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왜 그렇게 신심이 없어요. 자, 힘을 내요.》

그리고는 나의 귀에 대고 철수의 다리를 걸고 뒤로 밀라고 귀띔해주었다.

《체, 명일인 대상이 안됩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였다.

《왜 대상이 안된다고 그래요. 명일학생, 동무들 앞에서 한번 본때를 보이세요.》

선생님의 말은 나에게 힘을 주었으며 나를 숭모는 아이들에 대한 반발심도 살아올라 나는 성큼 철수의 앞에 나섰다. 어데서 그런 담이 생겼는지 몰랐다. 나는 철수의 허리춤과 바지자락을

부여잡고 한동안 싱갱이질을 했다. 밀고 당기면서...

내가 예상외로 쉽게 넘어지지 않자 아이들이 《야, 명일이가 괜찮은데.》 하면서 나를 응원했다. 한동안 서로 붙잡고 채바퀴돌듯 빙글빙글 돌기만 하던 나는 선생님이 시킨대로 철수의 다리를 걸고 뒤로 밀었다. 철수가 건너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다.

《와!》 하는 환성소리가 터져올랐다.

《명일이가 이겼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가 이긴것처럼 기뻐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철수는 넘어져서도 히죽히죽 웃기만 했다. 무엇을 하든 남에게 지는 일이 없었으며 조금만 저도 씩씩 황소숨을 쉬곤 하던 철수답지 않게...

2회전에서는 오래동안 승부가 나지 않았다. 나는 안간힘을 쓰며 철수의 힘을 견지하였다.

1회전보다 더 치열하였다. 황소싸움을 하듯 머리를 맞대고 뺨치고 있던 나는 철수의 힘을 종내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3회전에서는 내가 이겼다. 결국 철수와와 씨름경기에서는 내가 이겼다.

선생님은 나의 손을 높이 쳐들어주었다. 아이들속에서는 나에 대한 반응이 대단하였다.

씨름경기가 있는 다음부터 아이들은 나를 그전처럼 놀려대지 못하였으며 은근히 두려워하였다.

꽤 후날에야 나는 그날 씨름경기가 선생님의 《각본》에 따라 진행된 경기였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나를 위해 그토록 원심을 썼다. 어느날 체육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체육구락부생으로 등록했으니 래일부터 공부가 끝나면 체육구락부로 오라는것이였다.

《명일인 달리기명수라면서? 어머니에게서 들었어요. 체육구락부에 들어가 몸을 더욱 단련해요. 그게 선생님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뜻이기도 해요.》

이튿날 공부가 끝난후 선생님은 나를 체육구락부로 떠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선생님은 우리들을 데리고 찍하면 장자강기슭으로 나오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우리나라 력사에 대하여, 산줄고 물맑은 금수강산 우리 조국에 대하여 그리고 수령님께서 백두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강도일제놈들을 몰아내고 빼앗겼던 우리 조국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그때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어 행복한 새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었으며 우리 조국을 침략한 미제국주의자들을 쳐물리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운 인민군대영웅들에 대하여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한 공병분대장의 이야기도 해주었는데 그것은 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머니가 들려준...

...아버지는 부대의 공격로를 열 지뢰해제임무를 받았다. 그러나 적들의 경계가 심하여 공격시간전에 지뢰를 다 해제하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몸으로 지뢰를 해제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선생님은 그 공병분대장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나를 둘러싸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다.

그렇게 나를 위해주던 선생님은 시집을 가게 되었다. 남편을 따라 어데론가...

선생님과 헤어지던 그날은 옥녀와 헤어지던 그때와는 또 다른 감정의 세파를 나에게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생활에 대한 새로운 느낌이였으며 나의 마음의 키를 자래워준 계기이기도 하였다.

헤어지던 날 선생님은 나의 손목을 꼭 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

《난 명일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과 떨어진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말아요. 우리 떨어지는게 아니예요. 누가 어데가든 우리 모두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함께安居하는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시 만나요.》

선생님의 말대로 나는 최설향선생님을 다시 만났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래서 세상은 넓고도 좁다고 하는지, 우리 대학에서 만났다. 선생님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선생님을 인차 알아보았다. 최설향선생님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나는 너무 기뻐 아이들처럼 눈물이 글썽하여 선생님을 일싸안고 어쩔줄 몰라했다. 선생님은 그새 학사가 되었다. 지금은 대학에서 최설향박사 선생으로 불리운다. 나는 지금도 선생님의 생일 때마다 안해와 함께 꼭꼭 찾아가곤 한다...

선생님과 헤어지던 날 나는 너무도 마음이 울적하여 체육구락부에 가지 않고 집으로 왔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어지럽게 날아들어 마음을 몹시도 괴롭혔다. 나는 책갈피에 정히 끼여넣었던 아버지와 고모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들었다. 마음이 괴롭고 울적할 때마다 사진을 꺼내들고 제단의 고민에 빠지는것이 이제는 버릇처럼 되어있는 나였다. 이날따라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나를 치켜보는것 같았다. 그러나 고모는 꽤 상냥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모의 눈길을 유심히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를 닮지 않고 고모를 닮았다고 하였다. 부드러운 눈매며 작고 알팍한 입술이 꼭 고모의것을 빼물었다고 했다. 그래 그런지 거울을 보면 내가 꼭 고모를 닮은것처럼 보이였다.

(내가 왜 어머니를 닮지 않고 고모를 닮았는가?...)

왜 그런지 사진을 보면 볼수록 슬픔이 자꾸 찾아들었고 아버지와 고모에 대한 그리움이 봄날의 해빛처럼 가슴에 스며들었다. 더우기 고모에 대한 생각은 집요하게도 나의 가슴에 이상아릇한 감정을 덧쌓여주며 새록새록 새겨안게 됨을 어쩔수 없었다.

(혹시 나의 친어머니가?...)

그 순간 나의 가슴은 후두둑 뛰었으며 몹시 두려워졌다. 다음 순간은 후회가 뒤따랐다.

(내가 무슨 생각을, 아니야, 그럴수 없다.)

나는 두손으로 랑귀를 꼭 막고 도리머리를 쳤다. 어머니 아닌 다른 어머니를 생각해본다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완강히 부정해버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문소리가 났다. 누군가 부엌문을 열고 들어섰다.

《집에 아무도 없니?》

《누구예요?》

나는 사진을 손에 든채 소리쳤다.

방문이 열리더니 뜻밖에도 큰어머니가 들어섰다.

《큰어머니!》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나는 큰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뻐 어쩔줄 몰라했다. 강제로 이사를 간후 드문드문 오는 큰어머니였지만 한동안 오지 않았다.

《아니, 네가 명일이냐! 어찌면 아이들은 오이처럼 한다더니, 그새 몰라보게 달라졌구나. 정말 세월두... 어머니가 너를 키우느라고 고생인들 작히 했겠니 쯤쯤... 그래 체육구락부생이라지?》

《네, 그걸 어떻게?...》

《왜 모르겠니. 마음은 항상 여기에 와있는걸. 너랑, 어머니에게...》

《혼자 왔나요. 옥녀는 잘 있나요?》

《잘 있다. 옥녀도 오려고 했는데 학과경연때문에 못왔구나. 옥녀도 네 소릴 한다. 소꿉시절의 정이란...》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올랐다.

《그런데 혼자서 뭘하댔길래. 가만, 그 사진은 웬 사진이냐, 어디...》

《큰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보셨나요?》

나는 들고 있던 사진을 내놓으며 물었다.

《아니 이 사진이 어떻게 너에게?...》

사진을 받아든 큰어머니의 눈이 멍실해졌다.

《어머니가...》

《어머니가?...그럼 어머니가 다 이야기를 했던 말이냐?》

《뭘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고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고모가 폭격에 잘못되던 날 강가에서 우는 나를 큰어머니가 안고 들어왔더군요.》

《그래...》

큰어머니는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니 그날의 광경이 눈물겹게 안겨오는지 눈만 습벅이었다.

5

철수가 인민군대로 나가는 날은 나에게 가장

큰 피로움을 안겨주는 날이었다.

나는 인민군대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아버지없이 어머니만 모시고 있는데다가 어머니가 몹시 앓다보니 학교에서는 나의 이름을 초모대상에 서 제명시켰다.

어머니는 몹시 병약하여 이마적에 와서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나로 하여금 인민군대에 나가는것을 포기하게 했다.

《철수, 너까지 군대로 가면... 다들 떠나가구나.》

《섬섬하게 생각지 말어. 선생님도 말을 하지 않았니. 우린 사회주의조국이라는 품에서 함께 산다고 어머니를 잘 모셔. 너를 위해 지금껏 자신 어머니인데, 난 네가 사회에서 한몫 단단히 하리라고 믿는다. 우리 조국의 아들답게 살자.》

《알겠어.》

철수가 인민군대에 나가자 나는 더욱 말수가 적어졌다. 누구와도 말을 하고싶지 않았다. 집에 들어와서도 나는 말보다도 책을 펼쳐들곤 하였다. 어머니는 나의 심드렁한 태도들 혼연한 눈길로 바라보곤 하였다. 어머니는 이전보다 펍 상냥해졌다. 잔소리도 하지 않았으며 다 자란 자식이 대견한지 얼굴에는 항상 흐뭇한 미소를 담았다.

일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면 먹을것을 한가방씩 가지고 들어와 나에게 주었으며 내가 두부를 좋아한다고 밤새워 콩망질을 하여 두부도 맛있게 하였다.

어느날 어머니는 함께 읍에 좀 갔다오자고 하였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나섰다. 어머니와 함께 걸어보기는 처음인듯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네가 요즘 생각이 많은게로구나. 파묵해진걸 보니.》

《생각이 많긴요. 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왜 없겠니. 동무들은 다 군대에 나가는데 너만은 이 예미때문에 군대에 못나가게 됐으니.》

《어머니, 일없어요. 난 어머니곁에 한생 있겠어요.》

《원 너석두.》

어머니는 읍사진관앞에 멈추어섰다.

《여기 잠깐 들리자꾸나.》

나는 의아한 눈길로 《중암사진관》이라고 쓴 현판을 올려다보았다.

《여기는 왜요?》

《글쎄 따라들어오렴.》

어머니가 사진관안으로 들어서자 안경을 낀 키 꼭다리 사진사가 마주나오며 반색을 했다.

《아니, 아주머니가 어떻게 여길 다 오시우?》

《사진을 좀 찍으려구요.》

《사진을요? 원 서쪽에서 해가 뜨겠수다.》

《서쪽에서 해가 떴수다. 내 아들이예요.》

어머니는 사진사의 말을 받아넘기며 나를 소개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다

가 꾸벅 인사를 했다.

《허. 정말 아들을 잘렀수다. 자, 앉으시우.》

사진사가 나의 인사를 받더니 조명등을 켰다. 그제서야 나는 어머니가 정말로 사진을 찍으려고 읍에까지 왔다는것을 알았다.

《어머니, 정말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그럼, 기념으로 한장 찍자구나. 이리 오너라.》
어머니는 먼저 결상에 가앉으며 나를 재촉했다.

《아들은 어머니뒤에 서시오. 예. 좋습니다.》

나는 사진사가 하라는대로 어머니뒤에 섰다. 그리고 한손을 어머니어깨우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는 한손으로 어깨우에 올려놓은 나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나의 온몸으로 흘러들었다. 왜서인지 코등이 쪼개졌다.

《자, 찍습니다. 웃으면서...》

찰칵 하는 소리에 이어 《됐습니다.》 하는 사진사의 말이 울렸지만 어머니는 일어설념을 잊고 앉아있었다.

《어머니, 이젠 됐어요.》

내가 독촉해서야 어머니는 힘겹게 일어섰다.

《사진을 좀 빨리 뽑아주세요.》

《어련하겠소. 래일 이맘때 오시우. 지급이웨다.》

《고마워요.》

이튿날 아침 학교에서 나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다.

(학교에서 나를 왜 찾을가?...)

의문을 안고 학교로 가니 한 군관아저씨가 나를 마중하였다.

《네가 명일이냐?》

《네.》

《래일 아침 군복을 입으려 도에 올라가게 되었으니 준비를 해라.》

《네?...》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입니까?》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되물었다.

《정말이다. 사실은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의 어머니가 며칠째 찾아와 강경히 요구를 하니 우리도 어쩔수 없구나.》

《우리 어머니가요?》

《그래, 너의 어머니 정말 훌륭한 어머니다. 넌 어디를 가든 어머니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머리가 뱅뱅해졌다. 기쁨보다도 근심이 앞섰다.

(어머니를 혼자 집에 두고 어떻게...)

나는 집으로 달음박질쳐 왔다. 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서니 누워있던 어머니가 일어나 앉아 머리를 손더듬하며 헐떡거리며 들어선 나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웬 일이냐?》

나는 찹찹 숨을 쉰으며 한동안 어머니를 바라

보았다. 너무도 때이르게 늙은듯한 어머니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찢었다. 벌써 이마에는 두줄기의 주름이 패이었다. 눈짓에도 잔주름이 거미줄처럼 엮갈려갔다. 마을에서 제일 꼽던 나의 어머니,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품에 와락 안겼다.

《왜 그러느냐. 다 큰 애가?》

《어머니, 난 어머니결을 떠날수 없어요. 어머니절 군대에 내보내고 혼자서 앓는 몸으로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네, 어머니.》

《원 녀석두. 어머니를 생각한다는게 고작 그제다나? 난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래일을 위해서 너를 키워왔다. 어머니의 락은 군복입은 너의 모습을 한번만이라도 보는것이다. 그리고 너를 인민군대로 보내는것은 너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다. 듣자니 지금 나라의 정세가 여간 긴장하지 않다더라. 미국놈들이 우리를 먹겠다고 또 지랄을 쓰는가보다. 예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싸움터로 나가는것은 장부의 첫째가는 미덕이라고 했다. 더우기 너는 미국놈들과 싸워 아버지, 고모의 원쑤를 갚아야 할 몸이다. 그러니 마음을 도슬러 먹고 떠나거라. 어딜 가나 장자강기슭의 이 작은 고향집을 잊지 말아라. 이 집은 네가 태어난 곳이고 아버지, 어머니의 삶과 녀이 깃든 집이다.》

《어머니!》

도로 떠나는 날 어머니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읍역전까지 나와 나를 배려주었다.

어머니는 함박꽃같은 웃음을 머금고 나를 보고 또 보며 등을 쓸고 또 쓸며 많은 말을 했다.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는 나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활짝 웃으니 마음이 한결 놓이었다. 그러나 아들을 축복해주는 어머니의 그 웃음뒤에 가슴을 허비는 눈물이 있으리라 하고 나는 생각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얼굴에 피어나는 밝은 웃음, 나는 아직도 그때의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사진처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

그것이 내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웃음이었다. 그때는 어머니와 영원한 작별로 되리라는것을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영영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떠나는 아들의 마음이 약해질가봐 눈물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렇게도 많이 웃었다. 아마도 어머니는 내가 떠난 그날밤 온밤 잠 못들고 빈방에 홀로 앉아 울고 울었으리라.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가슴터지는 슬픔으로 울고 울었으리라.

나는 도에 올라가 군복을 입은 날 어머니에게 전보를 쳤다. 이틀후에 떠난다고...

군복을 입은 나는 인풍루가 마주 바라보이는 장자강기슭에 홀로 앉아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군복을 입은 기쁨을 온 가족과 함께 나누며 별음식들을 차려놓고 웃고 떠들때 나에겐 그럴 사람

이 없으니 마음은 그지없이 쓸쓸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언젠가 이야기하던 인풍루에 대하여, 강계포수들에 대하여 생각을 더듬으며 외로움을 털어보려고 애썼다.

이때 누군가의 쟁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일동무 아니예요?》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애된 처녀가 저쪽에서 고무공 튀듯 뛰어왔다. 처녀는 나의 앞에 와서더니 방긋 웃었다.

《웁군요. 명일동무, 저예요.》

《누군데?...》

《어마나, 절 모르겠어요. 옥녀예요.》

《옥녀?...》

그제서야 나는 옥녀의 달라진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동실하고 해말썽한 얼굴, 장난기가 어린 웃음이 남실남실 넘친 까만 눈, 날씬한 키, 장자강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던 그 옥녀가 아니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의 앞에 나타났다.

《옥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외롭고 쓸쓸하던 마음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반가움과 기쁨이 가슴가득 차 올랐다.

《어아나, 명일동무 키도 나보다 더 크네. 나보다 작던 명일동무가 호호호. 그렇게 군복까지 입으니 더 의젓해보이네.》

옥녀는 어렸을 때의 성격 그대로 나를 대했다. 그것이 옥녀에게 어떻게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몰라 서먹서먹하던 나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구 나왔어?》

《어머니가 알려주었어. 오늘 명일동무가 군복을 입는다면서 나가보자고, 이제 어머니도 올거야. 난 이쪽을 찾으며 왔지 뭐, 어머니 저쪽으로 갔어.》

《그래?!》

잠시후에 큰어머니가 량손에 무엇인가 들고 기우뚱거리며 왔다.

《큰어머니!》

《명일아, 어디 보자. 명일이가 끝내 군복을 입었구나. 비루먹은 강아지처럼 앓기만 하더니...》

큰어머니는 나를 일싸안고 눈을 습벅이었다.

나는 코등이 시큰해올랐다.

《어머니를 잊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가 너를 이렇게 키웠다는걸.》

《다 알아요.》

《그래. 내가 공연한 소리를 하는구나. 하지만 부모는 자식 위해 머리칼이 흰다지만 부모 위해 머리 흰 자식은 없다고 했다.》

《그 뜻을 명심하겠어요.》

다음날 아침 나는 큰어머니와 옥녀의 배려움을 받으며 강계역을 떠났다. 옥녀는 렬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저어 배려주었다.

몇시간후이면 렬차는 어머니가 기다리는 중암

역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어머니는 군복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렬차는 중암역에 서지 않았다. 집중수송으로 렬차가 편성된 것이었다. 중암역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움썽거렸다. 렬차가 역홈에 들어서자 렬차를 따라 사람물결이 일었다. 나는 어머니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렬차가 역을 벗어나 어느덧 마을로 꺾어드는 경사진곳에 이르자 힘겹게 움직였다. 철길옆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모여있었다. 어머니가 보이었다. 분명 어머니가 나를 손저어 찾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예요. 여기.》

나는 차창밖으로 몸을 반쯤 내밀고 손을 흔들었다.

《명일아!》

어머니가 나를 보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청을 울렸다. 렬차를 따라오며 나를 부르고 또 부른다.

《어머니!》

《명일아, 군사복무를 잘하거라.》

《알겠어요. 어머니, 앓지 말고...》

나는 눈물이 앞서 말을 잊지 못했다. 말대신 군모를 바로쓰고 어머니에게 경례를 했다. 뿌이한 안개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갔다.

6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차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어머니를 부르며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갔던 아들이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햇순처럼 야리야리하고 병약했던 아들이 바위처럼 억센 장부가 되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추억의 문을 열고 어머니를 그리며 고향산천과 상봉의 기쁨을 나누며 걸어간다. 언제나 잊지 못해 군사복무의 나날 고향의 작은 집을 안고 산 아들이었다. 훈련의 나날 달아오른 몸을 개울가의 물속에 잠글 때에도 유년시절 물장구를 치며 놀던 장자강이 눈에 어려와 그리워졌고 그것이 조국임을 느끼기도 하면서 다시는 장자강 푸른 물에 한 발의 폭탄이라도 떨어지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었기에 훈련의 땀을 흘려온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지금 장자강기슭을 걸어간다. 유유히 흐르는 장자강 푸른 물이 고향의 아들을 마중하여 어서 오라 부르는듯 금빛은빛으로 반짝이며 정다운 미소를 보낸다. 앞산의 푸른 숲숲속에 피어난 진달래꽃이 고향의 아들을 축복하듯 미풍에 꽃잎을 하느적이다.

마음은 조금씩 어머니를 부르며 고향집으로 달려갔으니 이제 문을 열고 《어머니!》하고 찾으면 백발의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느라 체소해진 몸을 쑥 내밀고 《늬시오?》하며 가냘픈 목소리로 물으리라. 그러면 아들은 쌓이고 쌓인 그리움을 안고 《어머니, 저예요.》하고 달려가 안기리라. 그러면 살뜰한 손길이 아들의 바위같은 잔등을

썰고 또 썰며 어린아기를 품안듯 아들을 꼭 껴안으리라!

어머니의 사랑은 군사복무의 전기간 나의 옆에서 떨어지게 않았다. 그 사랑이 있어 입대한지 6개월만에 나는 상등병(당시)군사칭호를 수여받았으며 군기앞에서 영예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었다. 그날저녁 나는 입대후 고향에 첫 편지를 썼다. 어머니에게서 회답편지가 왔다. 석달후에는 저격무기사격에서 강한 우를 맞고 아버지, 고모의 원썬을 갚는 심정으로 사격하여 우를 맞았다고 편지를 썼다. 어머니에게서 두번째 편지가 왔다. 세번째 편지는 강행군과 도하훈련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여 사단장의 감사를 받고 썼다. 나는 군사복무의 전기간 훈련에서 막히는게 없었다. 그것은 모두 어머니가 나에게 바친 사랑의 덕이었다. 훈련의 나날 힘에 겨워 주저앉고싶을 때마다 앓는 몸으로 추운 겨울날 내의 바람으로 나섰던 어머니의 모습이 안겨와 눈굽이 젖어들었고 그때마다 힘이 솟아나곤 하였다. 나는 편지에 이 모든것을 썼다.

어머니에게서 회답편지가 왔다. 어머니는 병을 이기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큰어머니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옥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중학교 교원으로 배치를 받아 지금은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새 소식도 전하여왔다. 그 소식은 나의 마음을 푸른 하늘로 마음껏 날아오르게 했다.

다음번 편지부터는 어머니의 편지와 함께 옥녀의 편지도 한봉투안에 넣어오곤 하였다. 옥녀는 편지에서 고향의 작은 집을 언제나 잊지 말라고 하였다. 고향집에 어머니가 계신다고 그리고 옥녀는 우리가 함께 물장구를 치며 놀던 장자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유년시절을 그려보며 감회에 잠긴다고 하면서 철수의 소식도 전하여왔다. 철수는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군관이 되었는데 벌써 중대장을 한다고 하였다.

어머니와 옥녀의 편지는 군사복무의 전기간 나의 마음을 채찍질했으며 어느 하루도 나는 고향의 작은 집을 잊은적이 없었다. 하루훈련의 피곤으로 한순간에 눈이 감길 때면 나를 쏘아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섬광이 번뜩했으며 《명일동무, 눈을 뜨세요. 미국놈들이 어머니를...》하는 옥녀의 부르짖음이 귀전에 쟁쟁히 울려와 나는 눈을 번쩍 뜨곤하였다.

이제 그 어머니며 옥녀, 큰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집은 상봉의 기쁨으로 명절처럼 끊어번질것이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고향집이 눈앞에 보이었다. 토벽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얀 회벽의 집이, 네모반듯한것이 아담했다. 토벽집을 허물고 그자리에 볼록집을 새로 지어주었다고 하던 어머니의 편지생각이 났다. 마을은 아담한 꽃동네로 천지개벽을 하였다.

나는 꽃바자문을 열고 조용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인민군대로 나갈 때 어머니와 함께 심었던 살구나무가 키높이 자랐다. 눈에 익은 평행봉이며 철봉이 주인을 기다린듯 옛그대로였다. 달라졌다면 철봉대며 평행봉다리에 파란 뺨끼칠을 해놓은것이였다. 어머니의 체취가 그대로 느껴졌다. 아들을 위하여 한생을 이렇게 살아온 어머니였다.

나는 문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어머니를 불렀다. 그러나 기척이 없었다. 나는 살머시 방문을 열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한쪽벽에 걸려있는 사진액들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보였다. 그옆에 아버지와 고모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강계에서 군복을 입고 큰어머니, 옥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누가 왔나!》

등뒤에서 석싹한 목소리가 났다.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나는 몸을 돌리며 어머니를 불렀으나 한순간 굳어졌다. 어머니아닌 백발이 된 큰어머니였다.

《큰어머니, 저예요. 명일이에요.》

큰어머니는 굳어진채 입술을 덜덜 떨면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큰어머니, 그간 안녕하셨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큰절을 했다. 그제야 큰어머니는 나에게 한발자국 한발자국 다가서더니 흠담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명일아! 명일이가 왔구나. 흐흑.》

큰어머니는 나를 불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반가와 운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절통스러운 울음소리에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큰어머니, 이리저 미십시오. 우리 어머닌 어데 가셨는가요?》

《으흐흑... 정임인, 어머닌 잘못됐다.》

《네?...》

그 순간 나는 머리가 핑 돌았다. 귀가 멍멍해졌다. 땅이 내려앉았으며 눈앞에는 어두운 장막이 드리웠다. 현실이라고 하기엔 생활은 너무도 모질었다.

어머니가 잘못되다니. 이럴수가 있는가. 체대퇴기전에도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받지 않았던가. 그럴수가 없다. 큰어머니는 실성했다. 그러나. 큰어머니는 어머니를 찾으며 허위허위 울고 있었다.

어머니가 정말 잘못됐단 말인가?... 아니, 아니다. 나는 몸부림쳤다. 어머니는 지금 나의 옷을 빨려고 장자강에 나가 방치질을 하고 있다.

탁탁탁...

빨래방치소리가 귀가에 메아리쳐 왔다.

나는 장자강가로 걸음을 옮겼다.

강기슭에는 사람들이 없었다. 조용했으며 한적했으며 물소리조차 돌리지 않는다. 정답던 장자

강이 무정해보였다.

《어머니, 어데 갔어요. 제가 왔어요.》

《아들아, 네가 왔구나. 명일아!》

어머니의 음성이 금시 들리는것 같았다.

《어머니-》

나는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내가 눈을 떴을 때에는 사위가 어둑어둑해졌다.

누군가 옆에 무릎위에 얼굴을 묻고 앉아있었다.

까만치마에 하얀저고리를 받쳐 입은 처녀였다. 치렁치렁한 탐스러운 머리칼이 랑 앞가슴부위로 흘러내려 얼굴을 가리우고 있었다. 옥녀였다. 어머니의 편락을 받고 집으로 온 옥녀는 내가 강가로 나갔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왔으나 내가 어머니를 찾으며 눈물을 흘리다가 그대로 잠든 뒤였다. 옥녀도 나의 머리맡에 앉아 울다가 그대로 잠들었다.

옥녀를 실성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던 나는 진숨을 토폴며 검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못새들이 보금자리를 찾아 포롱포롱 날아갔다.

나는 혼자몸이 되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이 남았다. 못새들도 보금자리를 찾아가건만 나에게 이제 어머니가 없다. 어머니가 있어 행복도 삶도 꿈도 그렇게 크고 그렇게 희망차 추억의 문을 열고 고향으로 어머니품으로 왔건만 어머니는 나 혼자만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이젠 난...》

나는 어머니를 하소하며 울부짖었다.

《명일동무, 진정해요.》

옥녀가 나의 울부짖음소리에 깨어났다.

나는 실성한 눈길로 옥녀를 바라보았다. 군사복무의 나날 그렇게 보고싶던 옥녀를 이렇게 만난것이다. 옛 추억을 그릴 때마다 야릇한 흥분에 싸여 얼굴을 붉게 물들게 하던 처녀! 고향처녀가 이제 나를 어떻게 대할가 하는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며 그러보던 옥녀였다.

《우리 어머니가 언제 잘못됐소?》

옥녀는 잠시동안 눈을 삼박이며 줌저리다가 띠엄띠엄 입을 열었다.

《...동무가 군대 나간지 세해째되는 해였어요.》

《뭐라구?...》

나는 눈앞이 아찔했다. 그러니 어머니가 없는지 여러해가 지났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그게 사실이요?... 그럼 나에게 지금까지 보낸 편지는?...》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뉘요. 동무가?...》

나는 망연자실하여 분노에 가까운 눈길로 옥녀를 쏘아보았다. 온몸의 기운이 순간에 물먹은 솜처럼 잦아들었다.

《어쩌면 그럴수 있소. 동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대신할수 있는가 말이요. 어머니가 잘못

되었는데 알리지 않고... 아무리 남이라 해도 알려줄수야 있지 않았겠소. 무정하오. 무성하단 말이요.》

나는 허탈감에 빠져 맥빠진 소리로 부르짖었다.

《전 동무가 별말을 다해도 할말이 없어요. 하지만 전 어머니의 뜻을 따랐을뿐이에요.》

《뭐라구?...》

《어머닌 림종을 앞둔 순간에 동무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그러면 군사복무를 잘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지금껏 편지를... 흐흐흐.》

《아, 어머니-》

나의 부르짖음은 긴 여운을 남기며 장자강반으로 울려갔다.

《명일동무, 진정하세요.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의 뜻대로...》

《나를 괴롭히지 마오. 난 이젠 혼자란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혼자라고요? 아니예요. 동문 혼자가 아니예요. 동무의 곁에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고 큰어머니도 있고 마을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안겨사는 조국의 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품속에서 우린 모두 한혈육 한가정으로 살고 있어요. 어쩔 동문 그런 웅졸한 생각을...》

《그만하오. 동문 나를 아직도 철부지로 보는데 아니요? 동무에게는 어머니가 있지만 나에겐 이제 어머니가 없단 말이요. 어머니의 사랑을 그레누가 대신할수 있단말이요. 누가?...》

《아니예요. 동문 모르고 있어요.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조국을 너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옥녀의 말은 뜨거웠으며 절절했다.

언제 나왔는지 큰어머니가 나의 곁에 조용히 앉으며 말을 이었다.

《옥녀의 말이 옳다.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나라없던 그때처럼 족박을 차고 류랑결식하는 교아의 신세를 면치 못 했을것이다. 더우기 너는 이 세상에 없는 몸이 되었을게다. 옥녀도 말했다만 너는 조국의 품에 대해 모르고 있는것같구나. 너를 낳아서만 어머니겠니. 너를 길러주고 입혀주고 내세워준 그 품을 모른다면 어찌 이 나라 자식이라하겠니. 너한테 뭘 더 숨기겠니. 너의 어머니는 너를 낳은 친어머니가 아니었다.》

《네?》

나는 무아몽중이 되었다. 학교시절 야릇한 예감속에 그렇게 완강히 부정해버렸으며 그 이후로는 모든것을 잊었던 일이 눈앞에 닥친것이였다.

《...전쟁은 우리 인민들에게 해방된 새 생활의 단란한 가정을 파괴해버렸다. 그날 나는 빨래를 하려고 강가로 나가고 있었다. 나가면서 보니 너의 어머니는 너를 바위위에 눕혀놓고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을 찌는듯한 아즈

러운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날아왔다. 그것이 미국놈비행기인줄 어찌 알았겠니.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졌다.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자강땅의 산골마을까지 미국놈비행기들이 날아와 폭탄을 퍼부을줄 어찌 알았겠니. 나는 너의 엄마를 찾으며 그자리에 었드렸지. 너의 어머니 네가 걱정되어 허둥지둥 너에게로 뛰어갔다. 정말 눈깜박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폭탄터지는 소리에 눈을 감았다 뜨니 너의 어머니 검은 연기속에 잠겨져 보이지 않았다. 나는 눈앞이 아찔했다. 연기는 사라졌지만 너의 어머니 온데간데없이... 그때 너는 발버둥치며 울고 있겠지.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뛰쳐일어나 너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너를 들춰안고 막 달려 들어왔다...》

나는 그때야야 비로소 모든것을 알았다. 나를 낳은 어머니에 대하여, 나를 길러준 어머니에 대하여, 나를 낳은 어머니는 장자강에서 목사한 고모였다. 그때 아버지는 인민군대에 나가있었다. 나는 유복자로 세상에 태어났다.

나를 안고 들어온 그날밤부터 인민반장어머니는 딸에게 집을 맡기다싶이 하고 우리 집으로 옥녀를 데리고와서 살았다. 우리 집을 비워둘수가 없었다. 그때 큰어머니는 옥녀를 낳은지 얼마되지 않았다. 큰어머니는 나와 옥녀를 양옆에 놓고 자곤 하였는데 내가 울면 내쪽으로 돌아누워 한쪽젖을 물리우고 옥녀가 울면 옥녀쪽으로 돌아누워 젖을 물리우고 하였다. 그때 나에게는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큰어머니는 내가 울면 어떻게 부를지 몰라 한참 갑자르다가 《우리 아기》라고 불렀다. 어머니는 전선에 나가 있는 아버지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지어보내라는 편지를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지 못하고 더우기는 아들의 이름을 한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갔다.

어느날 저녁 인민군대처녀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포연에 그슬린 군인답지 않게 살색이 하얀 처녀군대는 여리고 병약해보였다. 그가 바로 나를 길러준 정임어머니였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싸운 전우였다. 군의소 간호원이었던 그는 아버지부대에 소속되어 부상자들을 치료하며 락동강까지 나갔다가 락동강도하전투에서 아버지의 최후를 목격했다. 몸으로 지뢰를 해제하여 부대의 돌격로를 연 공병분대장, 아버지는 숨지는 순간에 품속에서 사진 한장과 편지를 꺼내어 정임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이 사진이 우리 집 새침때기요. 글썄 아들을 낳았대요. 이름을 지어 보내라질 않소. 내가 아버지가 되었구려. 그래서 이름을 지었소. 편지에 다 썼소. 내 이름에서 첫자를 따고 우리 새침때기의 이름에서 첫자를 따서 지었소 명일이라고. 앞날을 밝게 살라는 뜻으로 지었는데 우리 집 새침때기가 마음에 들어하겠는지 모르겠소. 이 편지를 부탁하오. 그리고 아들을 훌륭히 키워달라고

내가 부탁하고 갔다고...》

정임어머니는 눈물속에 아버지의 마지막말을 새겨 들었다. 그후 후퇴의 길에 올랐던 정임어머니는 적들과의 조우속에서 그만 북부에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는 더이상 군사복무를 할수 없게 되어 제대되었다. 제대되는 날 의사들은 그에게 인차 가정을 꾸리고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몸을 회복할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 집에 온 정임어머니는 눈앞의 현실을 외면할수가 없었다. 편지를 받을 사람도 없었으며 더우기 갓낳은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의 가슴을 마구 허비여놓았다. 그날 온밤 뜬눈으로 새운 그는 그자리에 눌러 앉아 나를 맡아키울 결심을 하였다. 그것이 전우를 위한 일이며 이 나라 녀성으로서의 의무이기전에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로부터 어머니 자장가를 부르며 나의 요람을 지켜주었으며 불같이 뜨겁고 열렬한 사랑으로 나의 걸음마를 떼여주었으며 장마철마다 장자강의 범람하는 물이 무서워 내가 읊으로 이사를 가자고 졸라댈 때에도 묵묵부답으로 구멍이 뚫린 벽을 다시 바르고 나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었으니 정녕 어머니는 한가정의 미래를 위하여 자기의 녀를 다 바치였다...

그날 나는 큰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왔다. 마당에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철수가 나를 마중하였다.

《명일이!》

나는 마당가에 두팔을 벌리고 서있는 상위의령장을 단 철수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철수!》

둘은 서로 손들을 부둥켜쥐고 한동안 정희에 잠겨 눈시울을 적시며 서있었다.

《안됐네. 명일이, 나도 어제야 자네의 어머니가 잘못됐다는것을 알았네. 출장길에 잠깐 고향에 들렀다가...》

《됐네. 축하하네. 군관이 된것을.》

《고맙네. 조국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었네.》

《조국?...》

아 조국이란 무엇인가?

나는 검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 하나, 둘, 별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대하의 품에 간간 작은 별! 그 별들을 모두 품안고 빛을 뿌리게 하는 하늘!

조국이라는 그 이름이 그때처럼 나의 흥벽을 두드리며 그렇게 크고 장엄하게 들린적은 없었다.

그 이름이 그처럼 따뜻하고 웅심깊고 거대하면서 승엄한것으로 가슴가득 차오르기는 처음이었다. 말로만 듣고 입으로만 불러보던 그 조국이

우리들의 생활속에 깊이 내재했으며 이 나라 사람들에게 생의 자양분을 주고 있었으니 직접 체험하면서도 몰랐다는 잠재의식이 죄의식으로 바

귀여져 나의 가슴을 치게 했다.

《사회주의 내 조국!》

나는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다. 그것은 내 고향의 작은집이었다. 그것은 구름우에 뜬 집이 아니었으며 꿈이 아니었으며 환영은 더더욱 아닌 불같이 뜨거운 포용으로 가슴에 짊 안아보는 것이었다.

그날따라 내 고향의 작은집이 더없이 소중하고 더없이 귀중하게 안겨왔다. 내 고향의 작은집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큰 집으로 나의 눈앞으로 다가들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치 않는 마음으로 막아주고 키워주는 크고도 넓은 집, 그것은 사회주의조국이라는 크나큰 집이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였으며 인민반장 큰어머니였으며 나의 담임선생님이었으며 옥녀며 철수, 마을사람들 모두였다. 그들모두가 하나의 큰 화폭으로 안겨왔으니 그 품속에 안겨사는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위대한 그 품속에 내가 살고 이 나라 인민이 살고 있는것이였다.

옥녀와 결혼식을 하던 날 나는 어머니조국의 품이 너무도 고마와 울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었다. 그날부터 내 고향의 작은집 창가에서는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나왔으니 그것은 어머니가 바라고 바란 미래의 새 가정의 행복이 꽃피는 소리였다. 그 집에서 두 아들과 딸이 태어나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랑랑히 울려나왔으니 그 소리는 어머니의 넋이 나래치는 소리였다.

조국의 위대한 품속에서 나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으며 일군으로 자라났다.

그 품은 변함이 없었으니 《고난의 행군》이라 일컫는 력사의 류례없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품안아 키워주었으니 정녕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있는 한 이 땅에는 고아가 없다.

그 품속에서 옥녀는 부모없는 아이들의 열두명의 어머니가 되었으며 평양에서 열린 전국어머니 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대회에서 이 나라 어머니들은 심장을 합쳐 한결같이 말을 했다.

우리 어머니들의 어머니가 계시니 그 어머니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이시라고, 그 이가 계시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은 위대하고 영원한 어머니품이라고...

양 키

서진명

좋은 계절이다
꽃들은 다투어 피어나고
새들은 거침없이 하늘을 날고
어디선가 시내물소리 들려온다
꽃향기를 싣고

허나 그 모든 아름다움
삶의 벽찬 음향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듯
꽃밭속의 독초처럼
분계선 한가운데 서있는 놈이 있다

남의 땅을 두동강내게 하고
우리 겨레의 가슴에 칼을 박은 놈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중무장을 한 놈의 눈에서는
살기가 번쩍이고
몸에서는 화약내가 풍긴다

판문점을 찾는 사람들이
사진기렌즈를 들이대도
눈섭하나 찌프릴줄 모르는 놈
통일의 물결에 움썰대는

분렬의 장벽을 지탱해보려
갖은 발악을 하는 놈

만약 저놈의 몸통아리에
단 몇방울의 사람의 피가 섞여있다면
저렇게 태연히 서있지 못하리라
오랜 기간 남의 땅, 남의 나라 인민에게
분렬의 고통을 강요해오는 그 죄악감으로 해서
심장은 잠시도 저놈에게 안정을 주지 않으려니

만약 저놈의 머리에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귀가 붙어있다면
잠간새 미치고 말리라
화살처럼 날아와 박히고
뢰성벽력처럼 울리는
북한인민들의 증오의 목소리
인류의 한결같은 규탄의 목소리에

바로 저놈은 전범자의 무덤속에
이미 한발을 들여놓은 산 송장
인간세상과 동떨어진 판 세상
죽음의 세계에
망령처럼 서있는 양키다

독서금지

비전향장기수 김용수

처서가 지난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소매자락을 스치며 지나간다.

그처럼 기승을 부리던 삼복더위도 이제 한풀 꺾인 듯하다.

그리고 보니 가을도 한발자욱 성큼 다가선 듯하다.

가을은 들판마다 황금이삭이 물결치고 오곡백과 주렁지는 풍요한 계절이라 누구나 좋아하는 계절이다. 그리고 예로부터 독서의 계절이라 했다.

우리 사람들속에서는 옛날부터 가을은 동화가친이라 해서 로소가 한데모여 등잔불을 중심으로 빙 둘러앉아 글공부를 하던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책은 일생을 살아가는데서 놓지 말아야 할 생활의 길동무이며 훌륭한 스승이다.》

책은 사람들에게 혁명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지혜를 준다.

요즘은 선풍기가 돌아가고 램온풍장치가 되어 있는 방에서 가을과 여름을 가리지 않고 밝은 전등불아래서 독서를 즐길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편리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독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남조선감옥의 침침한 0.75평 좁은 감방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그곳 교형리에게 당하던 일이 떠올라 몸서리치곤 한다.

놈들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조금이라도 더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위해 때없이 《검방》소동을 벌리곤 했는데 그럴 때면 매일 3~4명씩의 간수들이 감방에 들어와서 옷보따리와 모포, 도서와 식기들을 헤쳐놓고 마루와 방구석을 꼬챙이로 후려파기도 하고 마루를 굴러보거나 창문과 창틀을 두들겨보기도 하면서 금지된 물건이 없는가 해서 눈을 밝히곤 한다.

그런 일을 당한 뒤에 방안은 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엉망진창이 되고만다.

이러한 고의적인 악행에 대하여 항의하면 관규에 항거한다고 욕설을 퍼부으며 매질을 한다.

어느날 내가 운동을 나갔다가와서 양말이 다해졌기에 감추어두었던 바늘을 꺼내서 그것을 집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도관이 《검방》을 한다면서 방문을 벌컥 열었다.

나는 급한김에 쓰던 바늘을 재빨리 내가 보고 있던 책갈피에 감추고 밖으로 나갔다.

그날따라 검방은 류달리 까다로웠다.

옷보따리를 풀어헤치고 누데기같은 내의며 양말따위를 한방 가득히 헤쳐놓은 교도관놈은 내가 보던 책을 들고 한장한장 넘기면서 살펴보다가 끝내 바늘을 찾아내고는 《한건 했다》고 소리쳤다.

《바늘이 어디서 났는가? 누가 가져다주었는가?》하고 심문을 들이댔다.

《오전에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주었다.》고 했더니 《거짓말말아. 바른대로 말해라.》하면서 귀찮을 때리고 구두발로 차다가는 《이차식 그냥두면 안되겠다. 징벌방에 보내서 고생 좀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보안과로 달려갔다.

놈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징벌방에는 만원이 돼서 못보내겠다, 그대신 《2개월독서금지》에 처한다고 했다.

놈들은 내 방에 있는 책이란 책은 한권도 남김없이 모두 몰수해갔다.

그 책들은 놈들이 허락한 극히 일반적인 책이었는데 결국 그런 책이나마 읽을수 없어 하루종일 술막히는 독감방에 뿔어앉아 벽만 쳐다보고 있어야 할 신세가 되었다.

이 기막힌 정신적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화국에서의 생활을 회상하였다.

나는 조국해방전쟁전에 남조선에서 살 때에는 공부를 하고싶었지만 집이 가난해서 하지 못했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공부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러던 나는 공화국의 품-위대한신 김일성대원수님의 품에 안기여 세상에 태어난후 처음으로 사람대접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렇게도 배우는것이 소원이던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영광넘치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돈한푼 내지 않고 오히려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마음껏 배웠고 희망을 꽃피우며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도 하고 대학시절에 배운 정치경제학, 철학, 노동당투쟁사 등 과목에 대한 체계와 내용을 기억을 더듬으며 머리속에 재정리하고 그것을 손가락에 물을 묻혀 마루바닥에 써보기도 했다.

나는 많은 시간을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중에서 《김일성선집》을 재학습하고 사상체계를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학습했다.

이렇게 하여 나는 《독서금지》기간을 오히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무장시키고 단련시키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다.

인류의 문명은 사회의 진보와 발전의 산물인 동시에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할수 있

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 정보산업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과학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력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고 한 반력사적인 야만의 시기, 암흑의 시기를 력사의 교훈으로 기억하고 있다.

고대로마제국의 폭군 네로나 중국의 진시황의 시대가 그러하다.

국가의 재사들인 지식인들을 생매장하거나 모든 책을 산더미로 쌓아놓고 불질렀던 악명높은 분서갱유를 기억하고 있으며 중세기의 로마교황이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 코페르니크스나 갈릴레이 갈릴래오 같은 사람을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몰아 《화형》에 처한 사실이나 《마녀사냥》으로 수많은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죽인 사실도 그러한 실례로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근대나 현대사회에 와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오늘 미제강점하의 남조선땅에서도 《보안법》, 《반공법》의 악명하에 력사와 인류문명에 도전하는 온갖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다.

남조선정부가 규정해놓은 《금서목록》에는 자그만치 1만5천종을 통가한다고 한다.

그러니 비전향장기수들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나는 남조선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있다.

만약에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보고싶은 책이라도 마음대로 볼수있게 해주었다더라면 30~40년의 옥살이기간에 과학과 기술, 학문과 창작분야에서 가치있는 발명이나 걸작을 내놓는 동지들도 적지 않았을것이다 하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요즘 나는 꿈만같은 현실속에서 살고 있다.

0.75평 독방에서 인간이하의 최악의 생활환경에서 살아온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긴후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해같은 은혜를 입어 고급살림집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하여 《김일성전집》, 《김정일선집》들과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혁명소설 등의 금보다 귀한 책들이 가득 꽂혀있는 서재에 앉아 독서를 즐기다가 문득문득 남조선의 감옥에서 만났던 한 청년을 기억해내고 깊은 생각에 잠기곤한다.

그는 (최근) 대학내에서 진보적인 학생들로 《독서회》를 조직하고 혁명서적들을 읽고 토론하는 일을 지도하는 한편 《김일성방송대학》강의를 받아오다가 적들에게 구속되었다한다.

나는 그와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머리로 명석하고 혁명에 대한 열의도 비

교적 높은편이었다.

당시 남조선에는 유신독재가 최후발악을 하던 시기로서 반공과 반복일변도의 팽전의 광풍이 무섭게 휘몰아치던 때였다.

최근이 이 엄혹한 시기에 혁명적인 서적을 구할수도 없었고 또 이런 책을 읽고 공부하는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인것을 잘 알면서도 독서회를 조직운영했다니 대견스럽고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그러한 최근에게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미제신식민주의정책의 본질과 등과 함께 공화국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면서 공화국북반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눈부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에 의하여 령도된다는데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다.

그럴 때면 그는 새별같은 눈을 반짝이며 온 신경을 집중하여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듣곤 했다.

그때 최근은 김선생님은 비록 징역을 살고 있지만 김일성주석님 같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사회에서 살아보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인가고 하면서 나는 김일성대원수님과 같은 위인을 령도자로 모신 사회에서 딱 한번만이라도 살아보았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 두손을 마주잡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통일된 민족의 령수로 모실 그날을 앞당기는데 우리 함께 노력할것을 굳게 다짐했다. 그후 우리는 서로 헤어졌었다. 나는 이 감옥, 저 감옥으로 이감을 다녀야 했고 《붉은별》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고 전향공작의 광풍이 무섭게 휘몰아치던 때에는 매일같이 계속되는 놈들의 전향강요나 고문으로 몸서리치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러한 소용돌이속에서 10여년이란 세월이 지난 어느해 여름 나는 감옥에서 그 최근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만이나? 만날곳이 못되는 이곳에서, 기쁘지만도 않는 사람 살곳이 못되는 이곳에서!

우리는 철창을 사이에 두고 손가락을 맞추어 손가락악수를 하면서 10여년만의 해후를 감격적으로 나누었다.

최근에게서는 10여년전의 그와는 다른 많은 변화를 볼수 있었다. 키도 크고 몸집도 단단해졌을 뿐만아니라 해맑은 선비형의 애된 얼굴을 한 대학생에 불과했던 그전날의 최근이 아니었다.

쩍 벌어진 두어깨, 굵고 억센 두주먹, 검게 탄 얼굴에 부리부리한 두눈엔 정열에 불타는 투사형의 사나이로 변해있었다.

외형상의 이러한 변화뿐만아니라 정신사상적발전에도 그야말로 질적변화가 있었다.

10여년전의 최근에게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색과 고뇌, 탐구의 모습이 엿보였다면 지금의 그에게는 마치 진리를 터득하고 희열에 충만한 성숙한 모습이 력연했다.

알고보니 최군은 그사이에 《전대협》간부출신의 투철한 《주사파》핵심으로 자랐고 로학련대(로동자+학원)의 기수이고 자주통일운동의 선구자였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다 살고 나가서 대학에서 회학처분을 받고 모회사의 노동자로 취업한후 노동자들을 계몽하고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투쟁을 이끄는 중심인물이 되어 불철주야로 뛰고 또 뛰었으며 지난봄에 기업주측의 부당해고와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투쟁을 주동적으로 조직지도한것때문에 경찰에 구속되어 지금 재판중에 있는 것이다.

그는 투쟁의 나날 진리탐구에 심혈을 기울여오던중 한 선배의 소개로 주체사상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 자기가 지금까지 찾아헤매던 진리가 바로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나가는 데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그는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주체사상의 대가이시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고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대한 무한한 흠모의 정과 절대적충배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최군의 지나간 10년세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너무도 자랑스럽게 느껴졌고 또 한명의 혁명동지가 늘어난것이 무한정 기뻐다.

나는 이때부터 최군에 대한 호칭을 동지라고

불렀다. 하많은날 고달픈 징역살이만 한것 같았지만... 력사는 흐르고 사회는 진보하고 있으며 혁명의 대하는 도도히 굽이쳐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승리의 날은 멀지 않았다는 신심이 생겨나는것 같았다.

그리고 수령의 전사된 공지와 자부심이 가슴가득히 충만됨으로 하여 희열의 눈물이 눈곱을 적셨다.

오늘도 우리 조국의 남녘땅에서는 그 최군만이 아닌 수많은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고 조국통일의 민족적숙망을 실현하고자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로작들을 연구하고 주체사상을 배우기 위해 적들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감옥살이도 각오하면서 지하에서 혁명과 진리의 보검을 찾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피타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곤 한다.

많이 보아야겠다, 우리 장군님의 금언들로 가득찬 저 귀중한 책들을!

감옥살이하면서 그렇게도 보고싶었던 책들을 분과 초를 아껴가면서 하나라도 더 읽어 우리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일과 조국통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서 조금이라도 이바지해야 하겠다고.

단시묵음

묘향산 절경

(총련) 오흥심

향산의 물은 거울보다 맑아
내 잠시 얼굴을 비추어보니
이보소 벗님네들
내 얼굴의 주름이 다 없어졌소

×

팔담의 물을 두손으로 한웅큼 뜨니
작은 담이 내 손에 생겼구나
여보소, 팔담이 아니라 구담이로세

×

비선폭포에 비낀 아름다운 무지개
그 한끝을 내 쥐었더니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날보고 떠들썩하오

상원동에 살던 룡이 하늘에 날아오르려다
천하명승 묘향산을 차마 떠날수 없어
그만 돌로 굳어져 룡각석이 되었다네

×

유선다리에 올라서 선남을 찾으려니
나무도 바람도 산들산들 웃기만 하는데
물방울을 튕기면서 내리쬘는 폭포수는
무엇이 우습다고 저렇게 맞장구를 치나

×

하늘을 치받든 천주석바위우에
묘하게도 뿌리박은 한그루 소나무
천년 비바람에도 그 푸름을 떨치거니
내 너의 강한 기상을 닮고저

반향

승냥이는 오늘도 살아있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는것처럼 강산이 열 백번 변해도 결코 미제의 침략적이며 살인귀적인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미제는 지구상에 살아있는 한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침략자로, 살인마로, 승냥이로 남아있을것이다. 이 력사의 진리를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에 창작발표되었던 단편소설 《승냥이》(한설야작)에서 뚜렷이 확증하고 있다.

아메리카식인종 미제,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강요하여오는 미제 침략자, 우리 인민은 이 치욕스럽고 저주로운 말만 들어도 자다가도 소스라쳐 일어나 치솟는 분노에 치를 떨고 피끓는 가슴은 복수의 일념으로 타번진다. 이러한 우리 인민의 분노와 증오를 더욱 격발시키며 미제침략자들의 최악의 력사, 살인만행의 력사를 폭로단죄한 단편소설 《승냥이》가 《조선문학》 잡지에 다시 발표되었다.

단편소설 《승냥이》는 《하느님의 사도》의 탈을 쓰고 우리 나라에 기여든 미국선교사놈들과 그 족속들이 감행한 귀축같은 살인만행을 통하여 미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교활하고 악랄하며 포악하고 야만적인 인간도살자이며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게 한다.

소설에서 야수의 기질을 천성으로 물려받은 새끼승냥이 시몬놈은 소외양간의 색은 물웅덩이에 던져버린 고무공을 얻어가지고 노는 어린 수길을 《도적》으로몰아 머리를 쳐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구두발로 짓밟아 반주검이 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을 집앞의 언덕우에서 바라본 애비 선교사놈은 아들놈에게 조선애들이 가지고 놀던 더러운 공을 던져버리라고 하며 《하느님》의 아들인 미국사람은 더러운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되며 몽둥이로 때리거나 개가 물어뜯어 죽게 해야 한다면서 야수적기질을 더욱 부추긴다. 이놈들은 제놈의 아들의 살인죄행이 드러날가봐 교회병원

원장님과 짜고 수길이 어머니를 속여넘겨 수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는 전염병이라고 하면서 주사를 놓아죽이며 그 시체마저 불살라버린다. 이리하여 불쌍한 수길이는 생죽음당하고 놈들에게 항거하던 그의 어머니는 일제순사에게 끌려간다.

그러나 귀축같은 살인만행을 저지른 미제선교사놈을 비롯한 승냥이들은 피묻은 이발을 감추고 살아있으니 이제 또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이 불쌍한 수길이처럼 죽어야 하겠는가.

소설은 이처럼 미제승냥이들의 교활성과 악랄성, 포악성과 야만성을 예리한 예술적형상으로 생동하게 파헤쳐보임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다.

오늘도 미제는 우리 조국 남쪽땅에 틀고앉아 치떨리는 살인만행을 계속 일삼고 있으며 조국통일을 가로막으면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없애 버리려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악랄한 봉쇄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제타격전략》을 새롭게 들고 나와 우리 인민을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발광하며 승냥이적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나는 력사적으로 감행하여온 미제의 살인만행을 통하여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이며 승냥이무리들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구천에 사무친 민족의 원한을 풀수 없다는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나는 피에 주린 승냥이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심정으로 혁명의 무기, 선군옹호의 필봉을 억세게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투쟁과 승리로 불려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는데 이바지하는 평론들을 활발히 창작해내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박성국

이것은 결코 소설이 아니다

생활에서 흔히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현실에서 보기드문 극적인 이야기를 두고 허구가 도입되어 재가공된 듯한 이야기, 소설같은 이야기라고들 말한다.

하다면 물론이 우리 펼쳐보는 단편소설 《승냥이》, 미제야수들의 귀족같은 만행을 낱알이 고발하고 있어 온몸의 피가 끼꾸로 치솟게 하는 이 치떨리는 작품의 이야기는 작가가 고안해낸 허구의 산물이던가, 진정 소설같은 이야기런가.

이 땅에 생을 둔 수억만 사람들이며, 인간이 인간이기를 바라는 선량한 인류여, 작품의 수길이를 보시라. 한줌의 재로 변한 그의 싸늘한 시체를 보시라.

아버지를 억울하게 감옥에서 잃고 어머니손에서 외롭게 자라난 불쌍한 소년, 불면 날새라 쥐면 꺼질새라 귀히 여기는 홀어머니의 눈물겨운 사랑속에서 배움의 아름다운 꿈을 그리며 학교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수길이가, 이 순진한 소년은 무엇때문에 때이르게 죽어야 했는가, 인생의 꽃망울을 터쳐보지도 못한 철부지소년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 시체마저 불타야 했는가.

수길이는 선교사 아들놈이 버린 공을 주어가지고 논 《죄》때문에 죽어야 했다. 《미국사람 명예 위해서는 조선사람 생명 고려할 필요없》다고 뇌까리는 선교사놈의 위선적이고도 파렴치한 《명예》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오직 미국인을 위한 《도덕》을 세계에 강요해야 한다고 떠벌이는 강도적인 미국식 《도덕》의 희생물이 되어 그 시체마저 불타야 했다.

그 비참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썩은 사과 한알을 주운것이 《죄》가 되어 청강수로 이마에 《도적》의 락인을 찍혀야 했던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원한품고 쓰러진 신천땅의 수만의 령혼들의 모습으로 안겨온다. 그 모습은 오늘 저 분계선너머 동무생일놀이에 가다가 백주에 장갑차에 깔려죽은 효순이, 미선이의 원한서린 모습들로 선히 안겨온다.

이들모두는 각이한 시기 각이한 장소에서 각이한 방법으로 비통한 죽음을 당한 수난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에는 그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이는 그것이 다같이 인간의 시체더미우에서 패락을 찾고 《번영》을 찾는 승냥이, 인간중오사상이 골수에 배긴 미제승냥이들로부터 강요당한 참혹한 죽음이라는것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미제는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첫날부터 우리 인민에게 계속 재난만을 강요해왔습니다. 조선인민은 절대로 미제와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 미제는 다르게는, 정녕 다르게는 비유할수 없는 승냥이, 피에 주린 승냥이이다.

승냥이에게서 잔인성은 본성이다.

승냥이에게서 살육은 그 고유의 본업이다.

하거니 짐승도 낮을 뽐힐 야수적만행으로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해가는 승냥이미제의 악귀같은 본성을 폭로하고 있는 단편소설 《승냥이》를 두고 우리 어찌 단순히 소설이라고 말할수 있으랴.

그렇다. 이것은 결코 소설이 아니다. 인간의 두뇌로써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너무나도 치떨리는 만행이지만 승냥이무리에서는 매일 매시각 늘 쌓 일어나는 너무나도 범상한 레상사이기에 우리는 이 작품을 작가의 허구로 빚어진 소설이 아니라 승냥이무리의 피비린내나는 생리를 사실 그대로 펼친 축도라고 말한다.

단편소설 《승냥이》는 소설이기전에 인두집을 쓴 야수-20세기의 식인종이며 살인마인 미제승냥이의 정체를 낱알이 고발한 론고장이며 아메리카식인종들이 벌리는 매일매일의 《먹이사냥》의 일단을 꾸밈없이 적라라하게 발가낸 준렬한 고소장이다.

미제가 강요한 한 소년의 비극적인 운명을 담고 있는 이 고소장에서 우리가 심장깊이 간직해야 할 심각한 교훈이 울려나온다. 승냥이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라는 빠져린 교훈이, 승냥이를 양으로 보고 미국놈을 그래도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며 자그마한 환상과 기대라도 품는다면 그에 대한 값비싼 대가는 원통한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는 수길이가 어머니의 피라는 절규가...

수길이가 어머니가 한가닥 미련을 품고 수길이를 교회학교에 넣으려고 작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를 교회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더라면 수길이는 그 무서운 죽음의 나락에서 구원될수도 있었을것이다. 승냥이에 대한 환상이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길을 채촉하였다고 수길이가 어머니는 오늘도 피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 웨치고 있다.

사람들이여, 이 웨침이 어찌 수길이가 어머니 하나만의 웨침이라.

미제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과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이것은 땅속에서도 분노에 잠못드는 저 신천의 원혼들 또한 피떨어지는 아픔속에 터치는 준절한 웨침이며 승냥이에게서 그 어떤 공경

한 판결을 바라며 어리석게도 그 탐욕스런 아가리에 통채로 나라를 들이밀었다가 무매하게 얻어맞고 패배의 쓴맛을 본 오늘의 이라크현실에서도 공명되어나오는 진리의 메아리이다.

이 메아리에 귀기울이며 작가들이여, 반미대결전의 전초선에 선 문필전사들이여! 우리 틀어진 이 붓을 멸적의 총검인양 더 으스러지게 비껴들자.

이제 더는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수길이에 대한 이야기, 수길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비참한 수난자들의 눈물담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리.

백수십년간의 장구한 세월 서리서리 쌓인 분노,

서리서리 맺힌 이 원한을 활화산마냥 무섭게 터뜨릴 그 순간을 위해, 미제승냥이들과 치를 총결산의 시각을 위해 서리발증으로 붓끝을 고무며 혁명의 필봉을 더 억세게 달리고 또 달리자.

위대한 선군령도의 자욱따라 미제와의 총결산에 펼쳐나선 수천수만의 심장마다에 증오의 불, 투쟁의 불, 사생결단의 불꽃을 달아주자. 달리고 또 달려 피맺힌 원한으로 상처입은 이 땅에 천백배 복수의 불, 무자비한 징벌의 불, 가슴후련한 승리의 불길 활활 타번지게 하자.

리금희

미제에게 멸망의 종지부를!

정성환

이가 갈린다
속이 뒤집힌다
미제가 이 땅에
핵전쟁의 불길을 기어이 지피려하거니
내 가슴대인 전호가
작은 풀잎마저 분노에 떠다
고지우에 날으는 저 날새도
미제를 저주하며 울어옴다

나는 지금 듣고 있다
이 땅에 들썩을 핵무기를 싣고
남해의 군항에 기여드는 함선들이
뺏을 내리는 소리를
나는 지금 듣고 있다
핵폭탄을 만재한
미군용기들의 아츠러운 그 동음소리를

남녘의 호순이 미선이를 장갑차로 끌아몽겐
그 살인귀들이
우리 아기들의 꽃같은 웃음에
핵폭탄을 퍼부으려 하거니
신천의 마을들과 석당교에서
로근리의 그 다리밑에서
미군의 총탄에 무참히 학살된
사람들의 평흔도
분노에 떨며 일떠선다

갈라져 재가 앉은 민족의 가슴가슴에
반세기나마 피를 태우는 원한의 불길에
나의 총대에 한알한알 만탄창
복수탄을 채워준다

우리는 누구보다 평화를 더 사랑하기에
터지면 불을 뿜을 분노를
의지로 누르고 있었노라
부림없이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에
한가닥 그늘도 없기를 바래

인류의 안전과 번영
지구우에 생을 둔
인간의 리념이
더 아름답기를 바래

미제는 상상도 못하리라
우리의 물리적억제력에
수천만 민족의 가슴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을 더한 화력
그 화력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들으라 미제야
너는 들어야 한다
병사의 준절한 이 목소리를
보아라 미제야
너는 보아야 한다
번개가 번뜩이는 총대의 이 숲을

나는 지금 미제 너를 겨냥하였다
악마의 아성 백악관을 겨냥하였다
날강도 부위를 길러낸
침략과 살인의 상징
성조기를 겨냥하였다

네놈들이 이 땅 그 어디에라도
총탄 한발만 날려보라
조선은 무궁무진한 힘으로
복수의 불길을 뿜을것이다
그 불길에 미제국주의는 통채로 뒤집혀
이 세상밖으로 영영 사라질것이다

우리 장군님의 백승의 선군전법으로
불패의 사회주의총대는
조국과 민족의 안녕을 지켜
미제 너에게
죽음의 불벼락을 들썩울것이다
멸망의 종지부를 찍을것이다

불굴의 처녀공산당원 류호란

류호란은 1940년대 후반기에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불굴의 처녀공산당원이었다.

류호란(1932년-1947년)은 베이징 서부 하북성과 잇닿아있는 산서성 문수현 운주촌에서 빈농의 딸로 태어나 일찌기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소녀시절부터 중국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총명하고 투쟁정신이 강하며 적극적이고 어른스러운것으로 하여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열세살때인 주체34(1945)년 11월 운주촌 부녀구국회 서기로 임명되었다.

다음해 주체35(1946)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류호란은 곧 지구부녀구국회 간사로 임명되었으며 군중을 이끌고 토지개혁과 전선지원사업에 앞장섰다. 하여 그는 나 어린 처녀공산당원으로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그 일대에서 유명한 녀성활동가로 되었다.

그러던 주체36(1947)년 1월 류호란은 모진 시련을 겪게 되었다. 중국인민해방군과 국민당군대와의 교전지역이 되어 무시로 량편군대가 들락날락하던 형편에서 그달 12일 국민당정부군의 한개 구분대가 불의에 마을에 달려들었던것이다.

놈들은 공산당원들과 공산당을 지지하는 농민들을 모조리 체포하고 그들을 투항변절시키려고 날뛰었다.

열다섯살의 애 어린 처녀공산당원 류호란은 적들의 온갖 회유와 기만, 위협공갈과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투항을 거절하였다.

류호란이 나 어린 처녀의 몸으로 놈들의 모진 악형을 이겨낼수 있는것은 공산당원으로서의 그의 신념과 지조가 굳세였기때문이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그는 열다섯해의 짧은 한생을 통하여 공산당의 고마움과 공산당이

가져다준 새 세상의 귀중함을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가슴뜨겁게 느낀 처녀였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모진 천대와 구박, 착취와 압박을 받으며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해오던 그와 마을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고 사람답게 살수있게 해준것은 다름아닌 공산당이였다.

공산당은 그가 당원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도록 해주고 아직은 모든 점에서 너무나 어린 그를 믿고 마을부녀구국회 서기로, 지구부녀구국회 간사로까지 내세워주었다.

이런 고마운 당, 이런 고마운 당을 배반하고 적들에게 투항한다는것은 생각도 할수 없었다.

하여 류호란은 굳센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낼수 있었던것이다. 악에 받친 놈들은 마을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류호란을 작두날우에 얹혀놓고 농민들이 쓰는 6개의 작두로 칼탕쳐죽이는 짐승도 낮을 불힐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렇게 처녀공산당원 류호란은 열다섯살의 청춘시절에 장렬하게 희생되었다. 이 소식은 삽시에 온 나라에 퍼져 중국인민들과 중국인민해방군 장병들속에서 원쑤 국민당도당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이 원쑤격멸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크게 고무하였다.

모택동동지는 그해에 류호란의 영웅적소행을 찬양하여 《생은 위대하고 죽음은 영광스럽다》는 글을 썼다.

류호란을 소재로 한 가극 《류호란》[주체37(1948)년 서북전투극사 집체작]이 창조되었다.

공산당을 사랑하고 원쑤를 증오하며 공산당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류호란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소행은 오늘도 사람들의 추억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

김왕섭